

The Chungnam Review

열린 충남

제 18 호

2002.1

季刊

- 신년특집
심대평 지사 도정연설
2002년 예산분석·업무방향
-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 충남의 재발전
내포지역의 재조명
- 역사테마기행
계룡산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충남의 밝은 미래 충남발전연구원이 열어갑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모두가 살고싶은 충남건설’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CDI충남발전연구원

情風
明月

爲忠南發展研究院
精選歲至二千二十年
五春詩北山居士情風

청강 김재희

월정 정주상 선생 사사 / 남천 정연교 선생 사사(사군자) /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입선 /
KBS휘호대회 특·입선 / 전국 서도민전 대상 / 한국 서화작가전 대상 /
현 청강서예학원 원장

열린충남 포커스 ○





계룡산 전경

권두에세이 ○ 새롭고 힘있게 정진하겠습니다.



희망의 壬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新年에는 우리 2백만 충남인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壬午年 '말의 해'입니다. 말은 12支干 中 7번째 동물로서 인류의 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의 곁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말의 상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역동성과 생동감입니다.

전쟁터에서 말은 제일 먼저 나아가 적과 대치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말은 가만히 있다가도 움직일 때면 온 힘을 다해 뛵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주저함이 없이 앞만 보고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우리가 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도 금년 한해를 말처럼 최선을 다해 새롭고 힘있게 정진하고자 합니다. 지난날의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고 세계 속의 경쟁력 있는 충남을 열어가는 THINK TANK로서 명실상부한 지역연구기관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충청남도를 비롯한 도내 15개 市·郡이 전국에서 가장 행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수동적인 연구활동보다는 능동적인 정책과제의 발굴과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研究院은 충남을 발전시키고 충남인을 위하여 不撤晝夜 연구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2백만 충남도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研究院의 존재이유는 2백만 충남 道民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남도는 서해안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재도약의 好期를 맞았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풍부한 역사자원과 발전잠재력을 갖고있는 內浦圈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동안 국토발전의 중심이었던 京釜軸이 西海岸軸으로 이동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인 충청남도는 지방주도의 지역발전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세상은 하루가 달리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 혁신하는 사람이나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목과 혜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연구원도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면서 충남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긴 안목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충남도민 여러분!

금년에도 소원하시는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연구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2월

충남발전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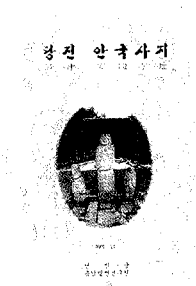
정 롱 환



영원한 충청인의 고장 '계룡산' 계룡산 높고 높이 솟았는데 / 충청의 역사
와 함께 한 계룡산 / 왜 '계룡산'일까 / 박재가 숨쉬는 오랜 역사의 산 / 중악
단이 말하는 것 / 계룡산의 세기 얼굴 / 감시의 신원사와 동학사 / 남대림에
얹힌 자연 / 정도광은 또 언제인가 / 계룡산 문화유적 탐사코스

목 차

사 진에세이	2
권 두에세이 / 정종환 ...	4
년특집 / 편집부 ...	8
2002도정연설 · 업무방향 · 도정예산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면도 국제 꽃 박람회 / 편집부 ...	33
역사테마기행 ① 룡산 / 이해준 ...	42



내포문화의 재조명 ❶



충남의 재발견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 유흥준 ...	62
내포지역의 불교 / 최완수 ...	66
내포지역의 지성사 / 이성무 ...	76
내포지역의 민속과 삶 / 임동권 ...	88
내포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개발방향 / 김용웅 ...	98



역논단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지역 개발 / 김정연·전영노 ...	114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개발 / 한무호 ...	124
당진항의 명칭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성 / 안기용 ...	127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에 대한 기초연구 / 송두범 ...	135

충남의 전설 ❶



나루 / 편집부 ...

구원 소식, 동정 / 편집부 ...	144
---------------------	-----

2002년 도정연설

새로운 도약과 성취의 충남시대 창조

— 200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道政) 연설(연지)—

새해는 민선 2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3기를 출범시켜야 하는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생활자치를 펴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해입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준비해온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세계인의 한마당 꽃 잔치로 승화시켜야 할 해이기도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완전 개통과 함께 세계 최대시장 중국의 부상은 새로운 발전여건으로 작용하면서 충남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도약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2002년은 우리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장기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주체 모두가 나라경제 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첫해인 금년, 충남 도정은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창조하는 해'로 삼아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승의 성과를 새로운 발전의 기폭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친절·질서·청결운동과 애향정신을 지속적으로 고양하는 한편,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다만 90년만의 극심한 한발 등 온갖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5년 연속 대풍을 이루었음에도 쌀값 하락으로 풍년의 기쁨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일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새해 도정방향

2002년을 맞아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열어갈 충남이 환황해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한 도정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신나게 기업 할 수 있는 도를 만들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기술·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신바람을 느끼며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벤처기업과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전략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식기반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서해안 시대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 서해안 고속도로의 쏜구간 개통은 대망의 서해안 시대가 본격 개막됨을 뜻합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 개최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우리 충남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特需)에 보다 큰 비전과 그림을 갖고 적극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차 도계획을 근간으로 중장기적 실행프로그램을 담은 '충남 2010 정책비전'을 마련하여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주도적으로 경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산항·보령항 등 주요 항만과 물류시설의 다각적인 연계 개발을 통해 대(對) 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건설하겠습니다.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매력적인 문화도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지원과 함께 풍부한 경험과 원숙한 지혜를 활용한 사회활동 참여로 긍지를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활동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공경을 위한 사회 분위기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6대 도정방향

가장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충남
서해안 시대 새로운 발전기반 확충
어르신(노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선진 도민의식과 안정된 지역사회
혁신과 경쟁을 실천하는 일류 도정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성공적 개최

넷째, 선진 도민의식을 바탕으로 가장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끌어낸 참여와 화합의 도민의식을 지역발전의 정신적 에너지로 다시 모으면서 새로운 지역안정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친절·질서·청결 운동을 새로운 차원의 도민의식과 생활선진화 운동으로 고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도민들이 큰 화합과 단합을 이루도록 힘을 쏟으면서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혁신과 경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일류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민이 느끼는 불편·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및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실적에 대하여 도민 만족도를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도민평가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디지털 지방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행정품질 경영체제도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SO 9001과 Single ppm 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업무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지식관리 시스템(KMC)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道의 조직과 기능을 행정수요에 따라 재설계하여 21세기형 시스템으로 정립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사기 높은 조직은 고품질 행정을 수행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내년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강해이를 방지하고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창의와 신념을 가진 프로 공무원을 발굴 육성하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장 조성공사가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는 등 주요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 내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교통·숙박 등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와 관람객 유치활동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장 때까지 치밀한 일정 관리를 통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주요 시책

이와 같은 도정 운영의 기본 방향아래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대(對) 테러 전쟁의 여파로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금과 기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민원의 일괄처리(One-Roof Service)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과 기업이 상호 협력·지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을 키우는 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체에 빠져있는 재래시장을 위해 시설과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재개발 사업도 추진하여 상품과 관광을 함께 파는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IT와 BT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전략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벌여온 '충남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산지역에 전자정보 산업단지를 본격 조성하고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여 영상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생물소재 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유치하여 인삼과 생약 등을 소재로 한 BT산업 육성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천안밸리를 내년까지 조성 완료하고 창업보육센터와 벤처투자 조합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대졸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학생 인턴십제의 적극적인 활용 권장과 함께 첨단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취업난 완화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경제·문화·체육 등 더욱 실용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외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하면서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과 박람회 참가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입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의 소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특산물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통해 판로확대를 꾀하고 충남의 공동상표로 새롭게 개발한 '해뜰'을 전국적 상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8월 개통된 '충남 푸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농림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도매시장도 유치하여 전자상거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꽃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금산 인삼을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2개에서 6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감소 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달초 중국을 방문하여 연변(延邊)조선족 자치주 허룽(和龍)시와 농업투자방향서를 체결한 데 대한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양질의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과 수출 전업농 육성 등 돼지고기 수출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강구하여 경쟁력 있는 한우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적 바다목장 조성으로 다양한 고급 어종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복지 분야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이념 위에서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푸른 충남 2020'을 수립하고 청정 충남의 마스터플랜으로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여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수원별·수계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오염원 정보를 네트워크화 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수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설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환경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생태관광지로 금강권 생태산업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

충남도가 노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노인)'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해 6대 도정방향중 하나로 설정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의 질을 높여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교육·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용촉진과 재활훈련 지원을 늘리면서 청각 및 시각 장애인에 대한 무료시술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분야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문화관광과 첨단산업, 물류 등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주~서천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금년 말에 착공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해 나가는 한편, 대산항 개발도 내년부터는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시행 기관의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집’은 기본계획 수립결과를 토대로 공주와 부여에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설로 시·군 주관 아래 조성하고, 보령·홍성·청양·태안 개발촉진지구사업도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자체 수립한 장기 용수 공급계획을 토대로 효과적인 물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노후 간이 급수 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진흥과 함께 개성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창 진행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내년에 백제역사 민속박물관과 기능촌 조성 등 19개 사업에 1천6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내포(內浦)문화권 개발사업은 내년에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3년부터는 가시화하게 될 것입니다. 시·군 문화원이 지역 문화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금년에 전국 최초로 사이버 향토문화원이 구축된 것을 계기로 도민에게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충남 인물사(人物史)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내년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월드컵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충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향토 문화축제와 고유의 부존자원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관광객 기호에 맞는 다양한 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머드축제·인삼 캐기·섬 관광·철새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를 선보이겠습니다.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의지를 키울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하고 충남에서 시작된 스승존경운동과 예절의 고장 재건운동도 내실 있게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7.8%가 증가된 1조8천9백44억원입니다.

주변국 경기 둔화와 국내경기 부진 등 여파로 내년도 우리 道의 재정여건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 전망임에 따라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위주의 건전 재정 기조 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술, 오늘의 사고는 내일이 되면 옛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이 변혁의 파도를 뛰어넘어 저 너머에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세계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희망과 도전의 발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회는 그저 기다리는 자에게보다 착실히 준비하는 자에게 먼저 온다고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도약과 성취의 충남시대'를 창조하는데 2백만 도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21세기 새 도약 전기, 인본·경영 철학 견지 10대 중점시책 추진, 국제 꽃박람회 주력

■ 2002 도정 기초와 방향

- 인본·경영행정의 도정철학을 견지
-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성과를 새로운 도정발전의 기폭제로 연결
- 인간적인 디지털, 매력적인 문화도, 환황해권 중추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 총력 추진

〈상반기〉

도정 전반에 걸쳐 민선 2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도정의 역동성을 확보

〈하반기〉

민선 3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도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비전 제시 등 대응성 강화

■ 2002 도정 중점 시책

-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운동 전개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시스템 행정을 통한 품격 높은 도정 실현
- '충남 2010 정책비전' 수립 및 분야별 사업 착수
- 고품질로 승부를 거는 농업 행정의 패턴 전환
- 문화·관광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 스포츠의 산업화와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노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확산

'21세기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

충남도가 지난달 24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 '2002 업무구상 보고회'를 갖고 내건 내년도 캐치프레이즈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충남을 게임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테크노파크 기능과 연계 추진하는 '민·관 공동' 법인으로 제3섹터 방식의 '게임산업 법인'을 설립·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신나게 기업 하는 충남만들기' 운동 전개 ▲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 시스템 행정을 통한 품격 높은 도정 실현 ▲ '충남 2010 정책비전' 수립 및 분야별 사업 착수 ▲ 고품질로 승부를 거는 농업행정의 전환 ▲ 문화·관광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 스포츠의 산업화와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노령화 사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확산 등 중점 추진 10대 시책을 선정 발표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수요와 테마관광을 위해서는 오는 2010년까지 곤충 생태관, 야생화단지, 반딧불 생태관, 통나무집, 향토식당, 생태학교 등이 함께 어우러진 '금강권 생태산업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인물사 연구를 통한 '충남의 정체성' 확립과 대학생들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생 초청 특강'과 '대학생 디지털 및 수출 지원반 운영' 등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계룡 지식포럼’ 설립 추진

■ 기획정보실

계룡신도시에 ‘관광휴양+지식정보교류+과학기술’이 생산과 직결되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형태의 가치 ‘계룡 지식포럼’ 설립이 추진된다.

또 ‘디지털 충남’ 제2단계 전략이 추진돼 충남이 명실상부한 ‘디지털 지방정부’의 중심축에 설 전망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 관광 특수에 대비해서는 지난 9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백제의 집’을 조기 건립키로 하고 내년에 기본·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정 업무의 과학화

■ 자치문화국

내년 10월께 충남육상연맹과 공동으로 ‘봉달이 마라톤코스’에서 전국대회 규모의 5km(초·중·고, 일반), 10km(남녀), 하프(가족단위), 풀 코스(남녀) 마라톤 대회를 연다.

또 내년 7월부터 인터넷 고지제 등 납세자 위주의 눈높이식 운영과 적극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로 지방세정 업무의 과학화를 꾀할 방침이다.

지역 향토축제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인삼·모시·머

드축제 등 우수 관광축제와 백제·해미읍성 축제 등 우수 민속축제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화훼’ 전략산업으로 육성

■ 농림수산물국

품질관리규약을 제정, 포장·규격·균질화된 농특산물 상품을 개발하고 전국단위의 고유 브랜드(‘해필’)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특히 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동서천 냉각쌀, 청양 바이오이온쌀 등 ‘기능성 쌀’ 생산을 육성하고 농작물 재해보험(2개~6개 품목)을 확대 시행한다.

또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수요를 위해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2002 꽃박람회를 계기로 화훼산업을 21세기 충남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농정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해외 농업투자에 대한 도내 농업인의 참여를 지원하고 농촌정보화를 위해 ‘디지털 농정 10대사업’을 추진한다.

푸른 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 복지환경국

인본(人本)행정 구현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내에 ‘복지상담실’과 25개 복지관에 ‘사랑의 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푸른 충남 건설을 위해서는 ‘푸른 충남 2020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하는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푸른 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클리닉 추진

■ 건설교통국

백제문화권(19개 사업, 1천64억원)과 개발촉진지구 사업(20개 사업, 2백29억원)에 대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포(內浦)문화권 종합개발과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의 지구 지정과 조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친(親)환경 건축클리닉을 통한 '녹색도시 만들기'와 전통마을의 '신 농촌 만들기', 실시설계부터 환경·생태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에코-로드(eco-road) 만들기', 금강의 옛 모습을 찾는 '생태하천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충남산업기술진흥원 설립

■ 경제통상국

IT(정보통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연건평 5천평 규모의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02~05년)와 천안밸리에 영상미디어기기사업화지원센터(02~06년)를 각각 설립한다.

특히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 '충남산업기술진흥원' 설립하고 경제통상국에 '첨단산업과'를 신설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2천억에서 3천5백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10년까지 벤처기업 2천개 육성을 위한 창업기반을 조성한다.

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국제교류의 전환점으로 삼아 박람회 기간중 2박3일 일정으로 교류단체간 단체장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19 소방정보시스템 보강

■ 소방안전본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2월중 홍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또 긴급구조 재난 대응체제 구축과 119신고자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119소방정보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완벽한 재난관리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확립

■ 공보관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도정 홈페이지에 다양한 도정소식을 홍보하고 사이버 명예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능동적인 도정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도정신문'에 도핵심사업 특집과 독자투고란을 확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two-way communication)'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주민 공개감사제 시행

■ 감사관실

'청렴 서약제'를 내년 1월부터 시·군 및 산하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관리팀'을 운영한다.

또 재정 투·융자사업 등 5개 분야에 '정책(성과)감사'를 도입하고 '명예감사관·자문관제' 확대와 주민 '공개감사제'를 실시한다.

화목한 가정 가꾸기 추진

■여성정책관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한국 제1의 '유관순상(賞)' 수상자를 내년 3월1일 발표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화목한 가정문화 가꾸기를 위해서는 '평등 부부상' 발굴 시상과 한 부모 가정 '화합 한마당 잔치' 등의 신규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다면평가제로 전환

■총무과

전 직원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상·하급자와 동료가 함께 평가하는 '다면(多面) 평가제' 도구를 개발하고 도정의 지속적인 디지털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꾀한다.

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공무원 성공의지 다짐 마라톤 대회(5km)'를 내년 3월 중순께 박람회 전시장에서 가진다.

1백가지 꽃 음식 개발

■농업기술원

전국 최고의 충남 쌀 생산 등 13대 작목의 목표관

리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로 농산물 소비촉진의 수요를 창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서는 국내 개발 신품종 꽃 전시(02. 4. 26~5. 19)와 1백 종의 꽃 음식을 개발 전시(02. 5. 3~6)한다.

정예 공무원 양성반 통합

■공무원교육원

정예반과 여성 초급간부 양성반을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으로 통합해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생 미추천 시·군에 대해 '교육생 선발 네거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산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어 연설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먹는물 검사항목 확대

■보건환경연구원

MMR(홍역, 풍진) 유행 예측과 인플루엔자 감시 사업 등의 신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인과 함께 먹는 물 민·관 합동 채수(採水)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검사항목 수를 내년 77종에서 오는 2005년까지 85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1세기 비전 초점, 투자사업에 1조 3천억

총 1조9천2백43억 ... 계층별 수요자 중심 편성

(단위: 억원)

계	19,243	100	
일반회계	15,653	81.3	
특별회계	3,590	18.7	
〈공기업특별〉	2,173	11.3	
·도공영개발	126	0.7	
·계룡공영개발	528	2.7	
·지역개발기금	1,519	7.9	
〈일반특별〉	1,418	7.4	
·의료보호기금	763	4.0	
·안면도관광지개발	83	0.4	
·금강종합개발	530	2.8	
·청양대학	42	0.2	

2002년도 예산은 「人本과 經營」을 도정 철학으로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신나는 충남문화」
창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선택과 검증」의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 아울러 금년 4. 26 ~ 5. 19 개최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방선거의 공명한 수행 및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행·재정적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신나게 사업하는 충남」 만들기 및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그리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새로운 충남발전」의 기반조성,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보장 및 「선진도민의식」의 발양과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활동에 적합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신나게 企業하는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도로망 확충, 지역경기활성화, 국제통상교류 및 공업기술향상 등을 위하여 4,506억원을 투자합니다.

· 중소기업육성지원	517	· 지역경제기반조성	48
· 도로망 확충.....	3,514	· 공업기술향상도모	74
· 공업단지조성	121	· 노사화합증진	1
· 실업대책추진	222	· 국제통상교류 확대	9

21세기 상업농시대를 맞아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농업인육성, 선진농산사업지원, 농업생산기반확충, 축·수산업 기반구축등 4,201억원을 투자합니다.

· 농정유통·프로농업인육성.....	615	· 축산진흥	209
· 농산사업지원	622	· 해양수산물기반구축	312
· 농업생산기반확충	1,799	· 산림자원화	644

21세기를 선도하는 경쟁력 높은 「초일류 충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충남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오지·도서개발, 문화예술창달, 체육진흥,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5,761억원을 투자합니다.

· 원활한 공영용지개발	654	· 문화예술창달	337
· 오지·도서및소규모지역	1,410	· 관광사업육성	248
· 「푸른충남실현」 환경보전	480	· 체육진흥	187
· 맑은물 보전.....	2,255	· 백제문화권개발	190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도민 모두의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지급, 노인복지시설 확충·운영,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1,749억 원을 투자합니다.

· 경로연금지급	310	· 경로당운영	36
· 도민의료서비스제공	1,019	· 경로식사제공	19
· 노인복지시설보강·운영등	102	· 노인건강관리	20
· 노인교통수당지급	215	· 노인 주·단기보호	4
· 노인복지회관 신축	24		

참여와 화합의 도민의를 충남발전의 정신적 에너지로 재결집하여 글로벌시대 「선진도민의식」 발양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보장, 장애인 자활보장, 청소년·여성사회참여, 치수방재 구호체계확립, 민방위 재난 관리 등 4,553억원을 투자합니다.

· 저소득층생계보장	1,790	· 사회복지·보훈단체육성	43
· 청소년육성	1,138	· 치수방재·구호체계확립	491
·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591	· 민방위·재난관리	25
· 장애인 자활보장	382	· 소방력보강	93

개혁과 경쟁시대를 맞아 창의와 역동성을 갖춘 선진행정 시스템을 구축, 도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행정」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행정 내부혁신, 행정전산화, 공명선거지원, 선진농업 기술향상, 직무수행능력 배양 등 422억원을 투자합니다.

· 행정내부혁신	58	· 통신기능보강	18
· 지방선거지원	50	· 도정홍보강화	11
· 행정전산화	62	· 직무수행능력배양	5
· 선진농업기술지원	210	· 도민정보화교육	8

예산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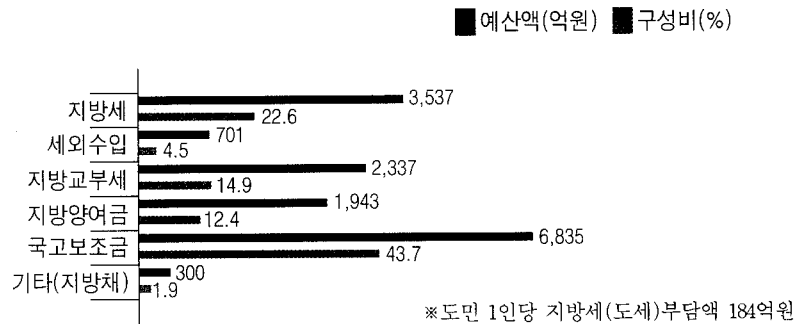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8,851	10,755	16,045	17,568	19,243
일반회계	3,538	7,162	12,705	14,083	15,653
특별회계	5,313	3,593	3,340	3,485	3,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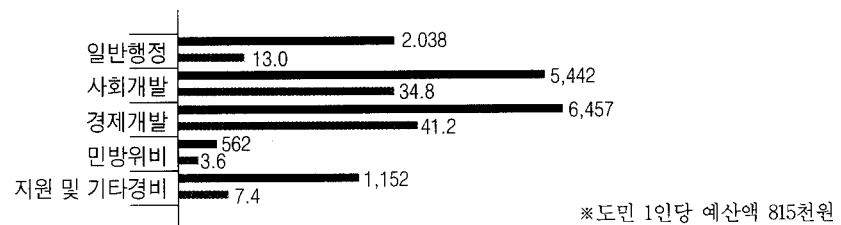
일반회계 예산

세입·세출 계 예산액 15,653억원, 구성비 100%

세입



세출





2002년도 분야별 투자내역

노인복지 중시 400억원 배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예산의 13.7%인 2246억원을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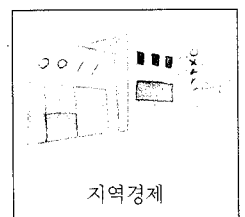
지난해와 올해는 복지의 중점을 저소득층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했으나 내년에는 고령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

노인복지를 위해 401억원 저소득생계보장 1521억원 장애인 재활보장 298억원, 사회복지시설, 단체육성에 26억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中企 경쟁력 강화 250억원 편성

미래형 산업기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예산의 4.6%인 746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에 250억원, 공업단지 조성 114억원, 실업대책 153억원, 원활한 교통대책 124억원, 지역경기 활성화 33억원, 국제통상교류 9억원, 공업기술향상 62억원, 노사화합증진 1억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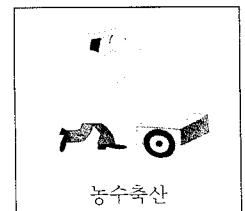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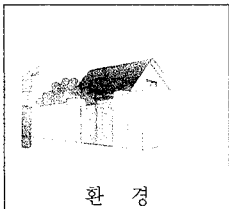
풍요로운 선진 농축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18.6%인 3041억원이 편성됐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정유통과 경영지원에 314억원, 축산진흥분야에 7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농업생산증진 489억원, 해양수산 기반확충 236억원, 농업생산 기반확충 1549억원, 산림지원화 육성을 위해 382억원이 투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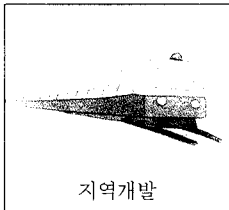
신년 특집



환 경

2100억원 투입 '푸른충남' 실현

맑고 깨끗한 환경과 도민들을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12.8%인 2100억원이 편성됐다. 푸른 충남 실현과 환경보전을 위해 232억원, 치수방재사업 458억원, 맑은물 보전 1392억원, 민방위 재난관리에 18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지역개발

공영택지개발 예산 654억원

유기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경영개발을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29.8%인 4883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3286억원, 공영택지개발 654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943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체육

백제권 개발사업 172억원 반영

21세기 새로운 충남발전 기반확충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4.3%인 701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향토문화예술의 전승과 창달에 171억원, 도민체육향상 133억원, 문화예술의 특성화 61억원, 백제문화권 개발 172억원, 관광산업 164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소년 공간확충 등 1111억원

건강하고 진취적 기상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6.8%인 1111억원이 편성됐다.

청소년 권리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083억원, 문화감수성 함양 3억원, 청소년공간 확충 17억원, 청소년 복지지원 8억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22억원 투입 사회참여 확대 모색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과 건강한 사회환경조성을 위해 투자예산의 71%인 1160억원이 책정됐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을 위해 22억원, 도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908억원, 능력개발사업 8억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213억원, 요보호여성 생활보장 9억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지방선거비용 49억원 준비

혁신적인 실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예산 규모의 2.3%인 390억원이 편성됐다.

농업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112억원, 소방행정력 보강 84억원, 행정서비스 향상 58억원, 행정전산화 55억원, 도 정홍보 11억원, 통신기능보강 16억원, 지방선거 수행 49억원, 직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해 5억원이 책정됐다.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 자료제공·편집부〉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저소득층 암 무료 검진, 자동차 등록 간소화
관광지 바가지 요금 단속 '관광경찰제' 도입

올해부터 만 5세 어린이 무상 보육 대상이 확대되고 쓰레기 종량제가 대 폭 개선되는 등 많은 제도가 바뀐다.
각 분야에서 달라진 제도를 알아본다.



보건 · 복지

-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기존 만성신부전증, 근육종, 혈우병, 고셔병 등 4종 외에 베체트병, 크론병 환자에 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된다.
- ▲암 무료 검진=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99만명(소득기준 하위 20%)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무료검진이 실시 된다.
- ▲무상보육 확대=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지난해 1만5천4백74명에서 8만6천9백82명으로 확대된다.
- ▲국민연금=보험료율이 소득월액 기준 5%에서 6%로 인상되고 연금보험료 고지 및 납부가 인터넷으로 처리되 며 가입자 납부분 연금보험료가 전액(현재 50%) 소득공제된다.
- ▲최저 생계비 인상=최저 생계비가 현재의 95만6천원(4인가구 기준)에서 99만원으로 인상된다.
- ▲분유 이름 이유식 광고 금지=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 품은 언론매체에 광고할 수 없게 된다.
- ▲금연 건물=정부 청사,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교, 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이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돼 위 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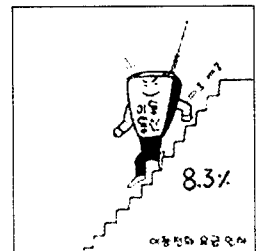
소비자 보호

- ▲자동차 등록 간소화=3월부터 자동차 등록 때 자동차등록신청서만 내면 된다. 시·도간 주소지 변경 때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번호판을 첨부하고, 이전 등록 때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 ▲자동차 주행거리 변조 처벌=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변조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이사나 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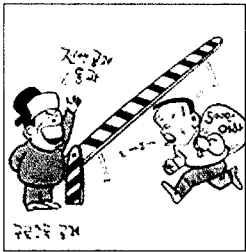
정보·통신

- ▲이동전화 요금 인하=1월부터 이동 통신 요금이 8.3% 정도 내린다.
-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4월부터 지문·음성·홍채 인식 등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의무화돼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우편요금 조정=1월15일부터 우편요금과 수수료가 9.5% 정도 오른다. 국내 보통편지 요금은 1백70원에서 1백90원으로, 등기수수료는 1천원에서 1천1백원으로, 국제통상 우편물은 10.4% 정도 오른다. 빠른우편 요금은 3백40원에서 2백80원으로 내린다.



금융·세제

- ▲고객 과실이 없는 신용카드 사고=현금 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 단말기 등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본약관 제정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 ▲금융 신용불량자 등록 연기=3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연체금을 일부만 갚아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이 연기된다.
- ▲연체 금리 차등 적용=대출금 연체 금리가 기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새로운 연체금리는 은행별로 1~3월중 적용한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이 5백만원 이하이면 지금까지 전액 공제를 받고 1천5백만원 이하는 40%에서 4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그 이상은 세분화돼 3천만원 이하는 15%, 4천5백만원 이하는 10%, 4천5백만원 초과하는 5% 공제율이 적용된다.



병무

- ▲인터넷으로 입영일 선택=입영 연기된 대학생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 ▲의무소방원제 도입=소방행정 수요 폭증에 따라 의무소방원 모집이 시작돼 올해 1천2백92명이 충원되고 연차적으로 모집규모가 3천명선까지 확대된다. 28개월간 복무하면 현역 복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저소득 근로자가 보증 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신용을 보증해 준다.
- ▲근로자 무보증 대부=1월부터 월 급여가 1백5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보증인 없이도 1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 대부를 받을 수 있다.
- ▲남녀 차별 시정명령제=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시정조치를 권고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의 이행을 명령받게 되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

- ▲쓰레기 종량제 개선=하반기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 폐기물의 종류가 현재 3개 분야 20개 품목에서 4개 분야 5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 강화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속이 보이지 않는 봉투가 보급되며 봉투의 끈도 길어진다.
- ▲3대 강 특별법 시행=금강·낙동강·영산강 등 3대강 특별법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상수원댐과 상류하천 양안 3백~1천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오염시설 설치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 ▲정수 처리 기술 기준=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이 하반기에 도입된다.
- ▲오수·분뇨 처리 강화=건물 신축시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 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산업폐수 관리제도가 개선되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도 강화된다.



- ▲자동차 공해 관리 강화=하반기에 시·도 조례로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지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1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도입돼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한 가운데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항목에 산화질소(NOx)검사가 추가된다.

법무

- ▲외국인 취업 허용=3월부터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난민 인정자 중에서 법무부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 ▲증인 감치제=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인상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한다.
- ▲채무자 재산 조회제=7월부터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채무자 재산 명시 의무 강화=7월부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
- ▲부동산 등기 완전 전산화=9월께 전국 2백10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가 완전 전산화돼 어디서나 다른 관할 지역의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소송 구조 활성화=1월부터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 구조'를 대폭 활성화, 소송구조 전문변호사제가 도입된다.
- ▲경범죄처벌법 개정=7월부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칙금 납부의 통고를 받은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을 더해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는다.
- ▲대형버스 운행기록계 설치=7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포함되고, 대형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운행기록계 설치가 의무화된다.





관광

- ▲여행자 피해규정 강화=상반기부터 여행사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와 계약서 약관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유원시설업 안전기준 강화=상반기부터 대규모 유원시설들은 안전관리자를 시설 내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 ▲관광경찰제 도입=음식 및 숙박업소, 여행사, 택시 등 관광 관련업계의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사법권을 갖는 관광경찰이 5월 이전에 등장한다.



농림수산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대상품목이 사과·배에서 포도·단감·감귤·복숭아 등 4개가 추가되고 재정 지원율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 ▲소규모 농지취득 규제 완화=새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3백평 이상의 농지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취득농지가 3백평이 안되더라도 임차농지를 합쳐 3백평이 되면 3백평 이하 농지도 살 수 있다.
- ▲농업보호구역 위락시설 제한=우량농지의 농업환경 보호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 내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 ▲발베 수매 중단=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2년산 추곡수매부터는 밭에서 재배한 벼는 수매하지 않는다.
- ▲GMO 표시대상 농산물 확대=표시대상 품목이 콩, 옥수수, 콩나물 이외에 3월부터 감자가 추가된다.
- ▲정육점 거래기록 비치 의무제=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이후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마다 고기를 매입할 때 구입량과 부위, 등급, 원산지 등을 기록해 일정기간 비치해야 한다.
- ▲활어 원산지표시제 도입=활어의 수입 증가로 소비자와 국내 양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표시범위는 수족관(보세장치장, 보관시설, 횃집, 활어운반차량)이다.
- ▲어업재해 복구지원 확대=철거비 1백% 지원으로 개선되고 대당 14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산업·건설

-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LP(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뒤 가스를 공급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 ▲토지 보상액 평가=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민간이 부도 등 사유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시·군·구에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

행정

- ▲재산세 과세 기준일 조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기준일이 달라 혼란을 줌에 따라 매년 6월1일로 통일하고, 재산세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돼 세 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1개월 늦춰 매년 7월1일로 조정된다.
- ▲지목 신설=잡종지로 돼있는 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양어장의 지목을 신설한다.
- ▲조상 땅 찾아주기=행정자치부와 시·도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시·군·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편집부〉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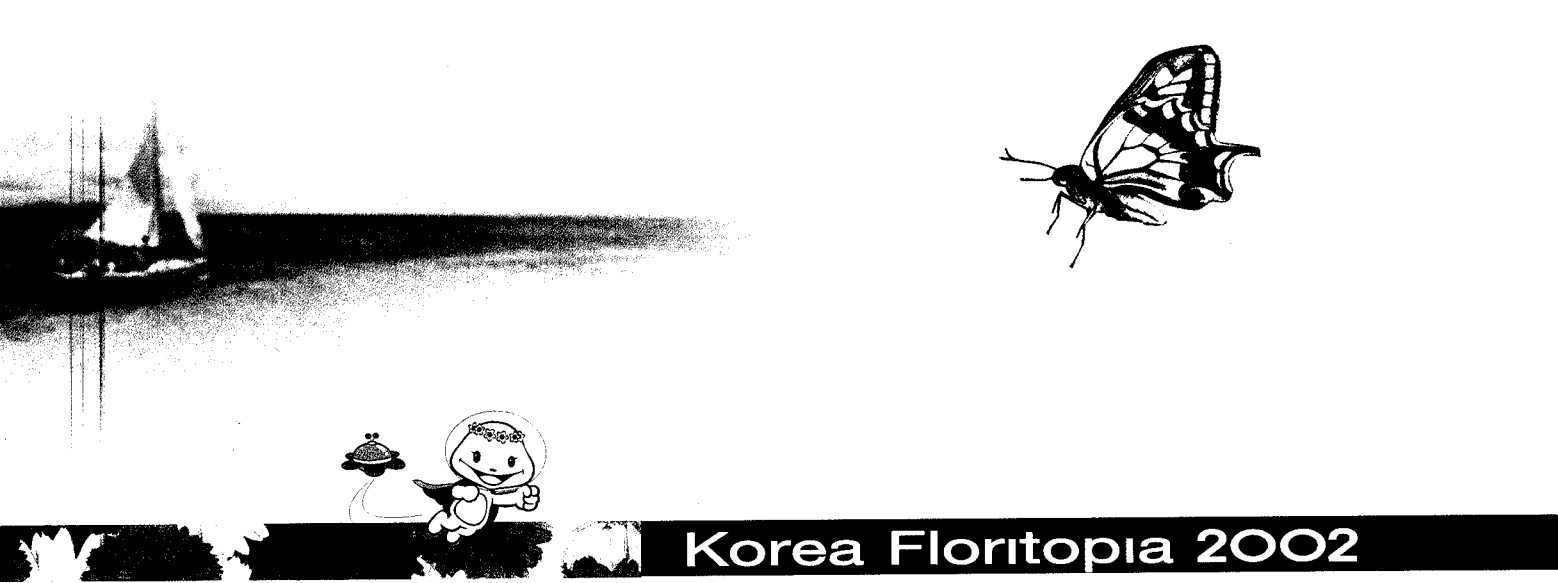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눈짓)가 되고 싶다.

〈김춘수〉



꽃천지..... 가슴설레는 기다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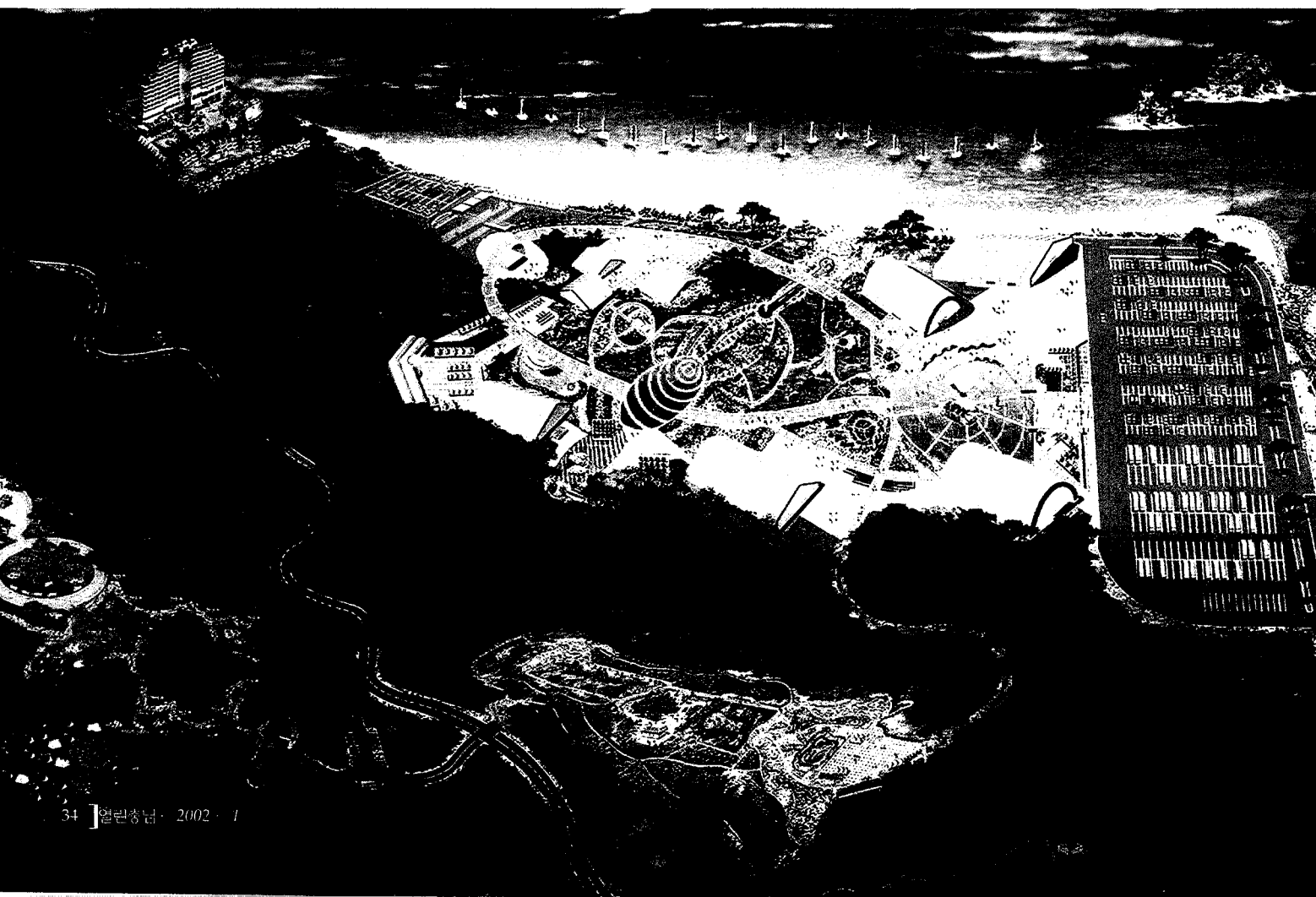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살아 남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분야는 살아 남을 수가 없다. 충남도는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훼와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년 꽃 박람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안면도는 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지로 수많은 해수욕장을 비롯해 각종 먹거리가 풍부한 곳이며 도내 화훼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안면도를 국제 꽃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했다.



Korea Floritopia 2002

안면도는 역사적으로 본래 육지였으나 조선 인조 때 영의정 김유에 의해 절단되어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섬이 된 곳이다. 또 향토적 명칭인 꽃지는 화지(花池)이며 수목원은 잡화골(雜花)로 전해져 내려와 꽃 박람회 개최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특히 1998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부터 국제 공인을 받아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국제 수준의 전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99년 11월에는 박람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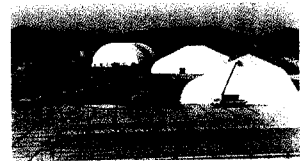


친환경적인 회장 조성

안면도 꽃 박람회는 자연과의 조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하고 친환경적인 박람회장을 조성함으로써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간 박람회장은 현재 토목공사 96%를 비롯해 총 공정률 75%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 전시장인 꽃지지구는 14만평의 백사장을 주무대로 풍성하고 이국적인 이미지로 회장을 연출하는 8개 실내전시관과 13개 테마공원 등으로 조성된다.

「꽃으로 여는 미래」를 테마로 한 꽃과 새 문명관은 생명의 탄생을 느낄 수 있는 「꽃과의 만남 공간」 꽃의 다양성과 활용을 보여 줄 「꽃과 인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27m의 사이버 터널에서 관람객이 직접 걸어가며 오감을 통해 꽃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꽃과의 교감」 미래의 실내조경 문화를 보여 줄 「미래정원」 등 4부분으로 구성된다.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또 우리나라의 우수한 꽃을 전시하는 「무궁화관」, 「금강초롱관」을 비롯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우리 고유의 자생화 등이 전시될 「자생화관」, 최고의 분재 작품들이 연출될 「분재원」 등은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촌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코스모스관」, 꽃과 나비가 조화를 이뤄 옛 고향의 정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나비관, 예술작품으로 승화된 꽃을 이용한 아름다운 「꽃음식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장이 준비된다.

바다물결 정원, 구근원 등 13개의 테마 정원에서는 각양각색의 꽃들로 연출하는 색채의 미술을 체험하고 꽃의 아름다움으로 관람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부 전시장인 수목원지구는 10만평의 숲속에 만들어지는데 이곳은 조용하고 그윽한 한국적 이미지로 연출하며 야외정원이 주로 들어서게 되는데 행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지역이다.

이 지구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한국정원은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별서정원을 기본 모델로 한국 고유의 정원문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백제시대의 연못인 방지를 비롯해 각종 전통 건축양식을 재현했다.

또 대표적 전통문화 유산인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선과 색상을 꽃으로 수 놓듯이 장식하여 형상화할 청자 지수원과 수생식물의 생태습지원, 방향수원 등 13개 식물원이 조성된다.

특히 야외에는 1300여 종 280만그루의 각종 나무를 비롯해 1000만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꽃을 비롯한 신품종들이 식재돼 그야말로 세계의 꽃과 나무를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 참가국과 참가업체 현황

꽃 박람회가 당초 세계 30개국 170여개(국내 90, 해외 30개국, 80)기관 및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31개국 166개(국내 81, 해외 31개국 85)기관 및 단체의 유치에 성공,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관람객들에게 꽃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전시 참가 업체와 협의, 전시 수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네덜란드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화훼 선진국들이 대거 참여, 수준 높은 전시연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회장 운영 및 행사계획

1일 평균 3만명, 총 7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7시까지 관람객들이 회장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 회장(會場) 운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240여 개소의 편의·식음·판매시설을 설치하고 1000여명의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이 편안히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는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효과를 겨냥해 사전행사와 회장내 행사로 구분해 구성했다.

회장 주변 도로공사등 진척현황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수립으로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홍성·C~AB방조제~박람회장으로 이르는 주진입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등 해안관광도로를 제외하고 모든 도로를 2001년말 완료했다.

사구 보존문제로 공사 착공이 지연돼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해안관광도로는 전 행 서산~부석간, 태안~안면도간 등 보조 진입도로도 갓길포장, 선형개량 등 관람객들이 박람 회장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으며, 주차장도 총 9만평(예비 2만평)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고장차량 처리반, 노점상 단속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상수송을 위해 대천~영목항까지 10~15분 간격으로 여객선을 운항하여 하루 최대 5,000 명의 관람객을 수송하기 위한 접안시설 등의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주요 관람객 유치 포스트 지점과 안면도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영원한 충청인의 고장 ‘계룡산’

이 해 준 (공주대 교수, 본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계룡산 높고 높이 솟았는데 / 충청의 역사와 함께 한 계룡산 /
왜 ‘계룡산’ 일까 / 백제가 숨쉬는 오랜 역사의 산 / 중약단이 말하는 것 /
계룡산의 세(?) 얼굴 / 갑사와 신원사와 동학사 / 남매탑에 얹힌 사연 /
정도령은 또 언제인가 / 계룡산 문화유적 답사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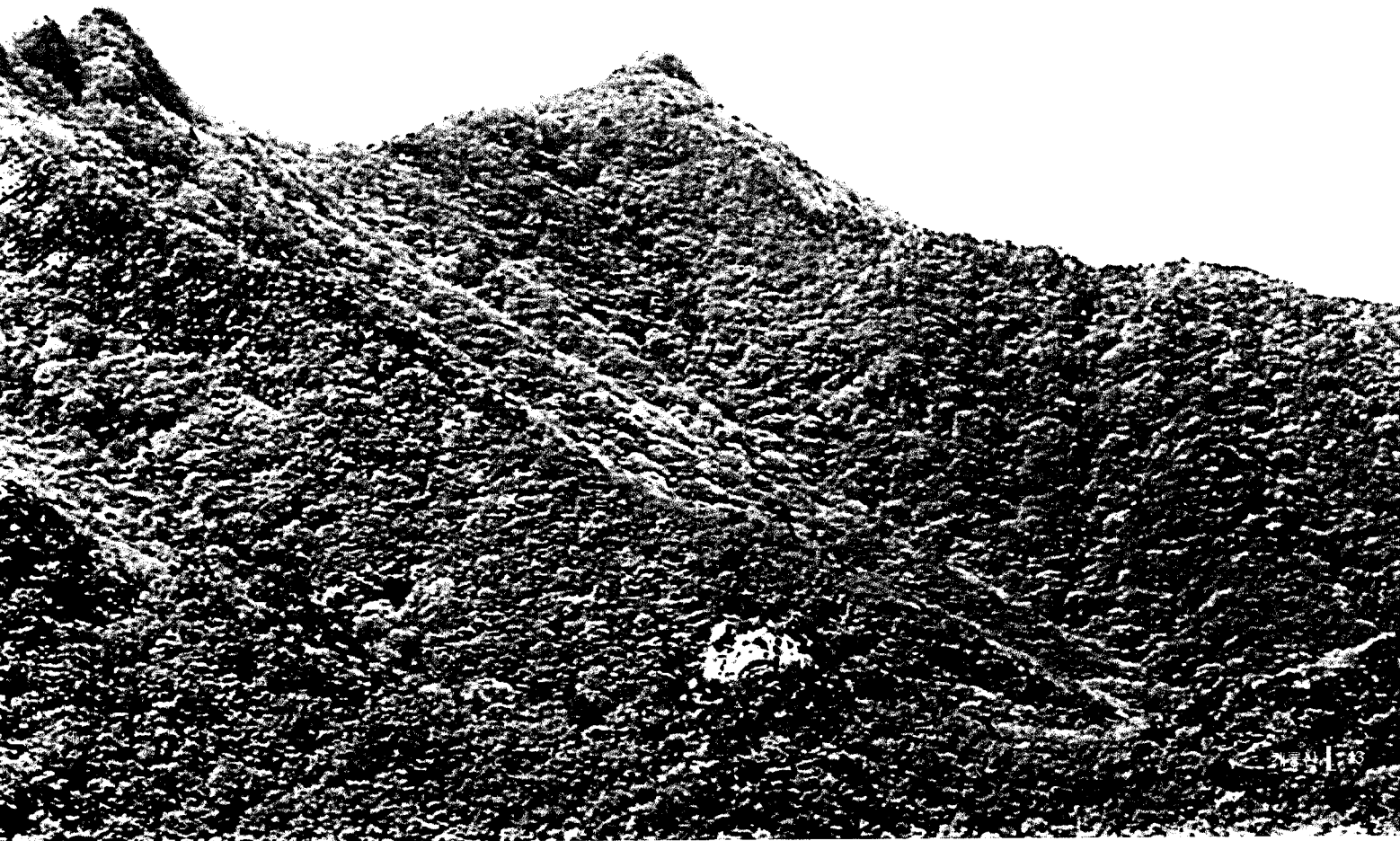
계룡산 높고 높이 솟았는데

계룡산 높고 높아 푸른 층층 솟았는데
맑은 기운 굵실굵실 장백(長白)에서 달려왔네.
산에는 못이 있어 용이 살고
산에는 구름 있어 만물을 적셔주네
내 일찍이 이 산 속에서 놀아보았더니
신령스러움이 다른 산과 사뭇 달랐네
구름 모여 비가 되어 천하를 적실 때는
용은 구름을 부리고 구름은 용을 따르더라

조선의 문장가 서거정은 「계룡산의 한가로운 구름(鰲嶽閑雲)」이라는 시에서 계룡산의 신비한 자태를 이렇게 읊었다.

‘험한 돌산으로 이어진 연봉이 마치 닭벼슬을 쓴 용과 같다’ 해서 계룡이라 불리는 이 산은, 주봉인 상봉(천황봉, 845m)을 비롯하여 연천봉(740m), 삼불봉(750m), 문필봉(796m) 그리고 관음봉·황적봉·도덕봉·신선봉 등 크고 작은 여러 봉우리들이 어우러져 웅자한 자태를 뽐낸다.

신령스러움이 다른 산과 사뭇 달랐네
구름 모여 비가 되어 천하를 적실 때는
용은 구름을 부리고 구름은 용을 따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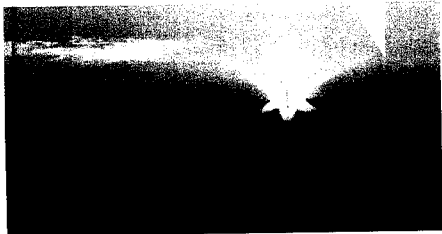
역사적으로도 계룡산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신령스러운 국중의 명산이었다. 백제 때 이미 계룡(鷄龍), 또는 계람산(鷄藍山) 등의 이름으로 바다 건너 중국 당나라에까지 알려졌었고, 통일신라 때는 5악의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그런가 하면 계룡산에는 의자왕과 태조 이성

계 같은 역사적 인물의 전설이 배어 있고, 갑사·동학사·신원사, 그리고 구룡사 같은 유서 깊은 사찰들이 역사와 문화의 자취를 남겨주는 현장이다.

그런가하면 조선개국 초에는 왕도 후보지로서 건설되다가 중단된 바도 있었으며, 조선후기의 도참설과 관련된 『정감

록』으로 더욱 유명한데, 여기에서는 도읍지로뿐 아니라 피난지로 적혀 있어 이후 도참과 민간신앙의 주요 근거자가 되었으며, 근대 이후에는 신도안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흥종교들의 본산이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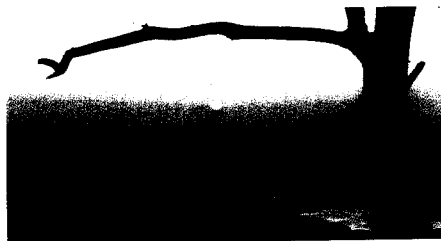




제1경 천황봉의 일출



제2경 삼불봉의 눈꽃



제3경 연천봉의 낙조



제4경 관음봉의 한가로운 구름

• 제1경 천황봉의 일출

계룡산 최고봉인 천황봉 정상에 서면 계룡산뿐 아니라 대전을 비롯해 공주, 논산 일원의 산야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곳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 본다.

• 제2경 삼불봉의 눈꽃

세 부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삼불봉에서 보면 설개동~천황봉으로 연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들의 형상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또 이곳에서는 동학사계곡과 갑사계곡도 한눈에 들어와 계룡산의 전모를 볼 수 있다. 그 풍광이 사철 아름답지만, 그 중 한 겨울의 눈꽃(雪花)이 피었을 때를 최고로 친다.

• 제3경 연천봉 낙조

계룡산의 서쪽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연천봉에서 서쪽으로 펼쳐진 들녘을 석양에 바라보는 풍경이다. 저녁노을이 물들 때 산야는 붉게, 멀리 백마강 물줄기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등 절경이 펼쳐진다.

• 제4경 관음봉의 한가로운 구름

관음봉은 계룡산의 중앙에 위치한 봉으로 이 곳에서 하늘을 떠다니는 한가로운 구름을 보면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동학사계곡 신록 • 제5경

설개봉, 장군봉, 황적봉 등 계룡산을 대표하는 능선들 사이의 깊은 계곡으로 수림이 매우 울창하며, 이곳의 신록은 더욱 빼어난 절경을 이룬다.

갑사계곡 단풍 • 제6경

갑사계곡의 가을 단풍은 아름답기로 이름 높다. 옛부터 '봄 마곡, 秋 갑사'라 하여 가을철 갑사의 울긋불긋한 단풍이 일품이다.

은선폭포 운무 • 제7경

옛날 신선들이 폭포의 아름다움에 반해 숨어 지냈다는 은선 폭포는 절벽과 녹음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특히 이 폭포는 안개가 자욱할때의 풍광이 제일이다.

오누탑 명월 • 제8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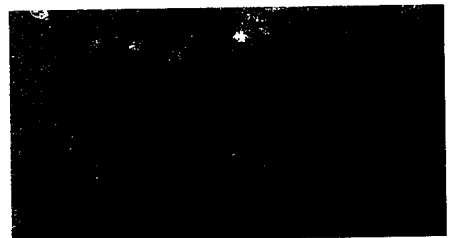
남매탑이라고도 불리는 오누탑에는 멸망한 백제의 왕족과 호랑이가 얹고 온 여인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한다. 이 탑에서 관망하는 달빛이 계룡산의 마지막 절경이다.



계룡팔경



제5경 동학사계곡의 신록



제6경 갑사계곡의 단풍



제7경 은선폭포 운무



제8경 오누탑의 명월

충청의 역사와 함께 한 계룡산

계룡산은 백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청의 정신사적 태반을 형성하며 그 상징으로 오래도록 우리들과 함께 한 명산이다. 역사상 계룡산의 부각은 5세기 후반 백제의 공주 천도에서 비롯되어 단순

한 지방의 산이 아니라 국도의 진산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한다. 이후 계룡산은 명실상부하게 충청인의 역사·문화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열과 정신을 남겼다. 계룡산이 갖는 이러한 문화사적 성격은 국가적 제사처로서의 계룡산, 불교문화 성지로서의 계룡산, 그리고 풍수도참 신앙과 관련한 계룡산 등의 세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국가제사처로서 계룡산은 우리의 전통 신앙의 하나인 산천신앙의 맥을 이은 것이다. 특히 계룡산 제사처는 천황봉과, 후일 계룡산사가 마련된 신원사 지역과 중악단이다. 이러한 산천신 숭배의 전통은 조선후기 이후 민간신앙의 본산으로 자리잡아 현재도 신원사 부근의 무속 곳판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불교문화는 백제시대로부터 출발하여 신라-고려시대를 거치면서 계룡산을 배경으로 발전하였다. 계룡산의 불교문화 발전은 당 시대의 불교 발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계룡산의 경우 백제시대 왕도지역 소재의 산악이었다는 지리적 위치는 이후의 불교문화 발전에도 일정한 기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구룡사와 감사, 동학사, 신원사 등의 대소 사찰이 계룡산을 중심으로 밀집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불교문화 유산도 보유하게 되었다.

풍수도참과 관련한 계룡산의 부각은 오랜 연원을 지닌 전통적 산천 숭배신앙에서 비롯하여, 조선왕조 개국과 함께 새로운 도읍의 후보지로 선택되는 등의 정치적 측면에 의하여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조 말기 사회의 말기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고 바라는 민중의 염원까지 계룡산은 수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1〉 계룡산의 문화유적

구 분	문 화 재 명 칭	지정번호	소 재 지
국 보	감사삼신패불탱	298	감사 경내
	신원사노사나불패불탱	299	신원사 경내
	감사철당간 및 지주	256	감사 경내
	감사부도	257	감사 경내
국가지정	감사동종	478	감사 경내
	월인석보판본	582	감사 경내
문 화 재	청량사지 5층석탑	1284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청량사지 7층석탑	1285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사 적	신원사 중악단	1293	신원사 경내
	학봉리 도요지	333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유 형	감사석조약사여래입상	50	감사 경내
	감사대웅전	105	감사 경내
도 지 정	감사사적비	52	감사 경내
	감사석조보살입상	51	감사 경내
문 화 재	감사대적전	106	감사 경내
	감사강당	95	감사 경내
문 화 재	신원사대웅전	80	신원사 경내
	신원사 5층석탑	31	신원사 경내
기 념 물	상신리당간지주	94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속모전	67	동학사 경내
문 화 재	삼은각	59	동학사 경내
	초혼각지	18	동학사 경내
자 료	구룡사지	39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표충원	52	감사 경내
천 연 기 념 물	천진보탑	68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동학사 삼층석탑	58	동학사 경내
	동학사 삼성각	57	동학사 경내
	팔색조	204	
	사향노루	216	
	붉은배새매	323	
	황조롱이	323	
	소쩍새	324	
	솔부엉이	324	

계룡산은 백제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청의 정신사적 태반을 형성하며
 그 상징으로 오래도록 우리들과 함께 한 명산이다. 역사상 계룡산의 부각은 5세기 후반
 백제의 공주 천도에서 비롯되어 단순한 지방의 산이 아니라 국도의 진산으로서 그 기능을 확대한다.
 이후 계룡산은 명실상부하게 충청인의 역사·문화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얼과 정신을 남겼다.

왜 ‘계룡산’일까

계룡산은 계람산(鷄籃山)·옹산(翁山)·서악(西岳)·중악(中岳)·계악(鷄岳)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는) 삼산 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大祀·中祀·小祀로 하였다. 이 중 中祀는 오악을 제사하는 것이다. 오악은 동악 토함산, 남악 지리산, 서악 계룡산, 북악 태백산, 부악(공산이라고도 함)이다. (『삼국사기』32, 잡지 제사조)라 하여 “서악 계룡산”으로 이미 통일신라 때에 국중에서 유명한 명산으로 지목받고 있었다. 이는 최근 충남발전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천황봉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들이 많이 수습되는 것으로도 확실하다.

‘계룡산’ 이 산 이름은 닭(鷄)과 용(龍)이라는 두 동물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계룡산이 계룡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산봉우리와 줄기가 마치 닭의 벼슬을 머리에 단 용처럼 생겼다는 형상설이다.



▲ 천황봉에서 수습된 통일신라시대 기와편들

그러나 좀더 연원을 따지면 용은 조금 뒤에 덧붙여진 것이고, 원래는 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록상 계룡산의 가장 오랜 이름은 백제시대 계람산(鷄籃山) 혹은 계산(鷄山)이고, 용이 포함된 이름의 계룡산은 통일신라 때부터 기록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닭은 사람과 가장 가까웠던 가축이다. 그리고 닭은 하루가 새롭게 열리는 새벽을 알리는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여, 한 시대를 미리 알리는 선지자적 역할이라는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가하면 용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의 대표로 상상의 동물이며, 그런 때문에 왕과 같은 지극히 높은 자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볼 때 계룡산은

새벽을 먼저 알리는 선지자적 상징성, 그리고 고귀함을 나타내는 지극히 특별한 의미를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풍수적으로 계룡산의 형국이 ‘금계포란형(金雞抱卵形)’,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 ‘계룡’의 어원에 대해서 국어학자들은 백제어 기원설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새미레’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그 의미는 ‘신원(新原)’, ‘신국(新國)’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 충청도 공주목지도 중의 계룡산 부분



신원사는 현재의 '신원사(新元寺)'가 아니라
본래는 '신원사(神院寺)'
또는 '신정사(神正寺)'로 불리었으며,
'신원(神院)'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제사처의 의미라는 것이다.

백제가 숨쉬는 오랜 역사의 산

산악이 갖는 위엄과 신비는 사람들의
외경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고대로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계룡산
에 대한 산악신앙이 국가의 제사처로 지
목되는 것은 백제시대 웅진천도 이후의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왕도인 공주와 부
여를 보호하는 계룡산은 정치적 의미와
비중이 높았을 것이고,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부여가 함락되자 의자왕이 계룡
산으로 피해왔다가 공주 공산성으로 갔
다는 것이나, 계룡산에 백제시대에 신앙
처가 있었다는 구전 설화들은 그 같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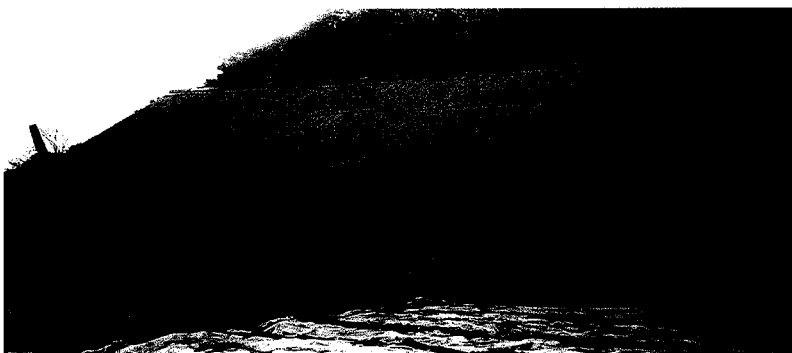
는 있지만, 그 내용은 의자왕이 웅진으로
도망하였다는 것과 5일만에 다시 부여로
와서 항복하였음을 알려줄 뿐이다. 즉 기
록만으로는 의자왕이 확실하게 계룡산
어디에 머물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의자왕과 관련된 구전과 지명
이 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다. 그 내용을 표집하여 보면 대개 다음
과 같은 것들이다.

○ 고왕암(古王庵) : 신원사(新元寺) 동
쪽 위에 있는 절. 큰 바위 밑에 암자가 있
는데 660년(의자왕 20) 6월에 이 절을 짓
고, 왕자 융(隆)이 이곳에서 나·당연합
군을 피하다가 7년만에 항복하였으므로
고왕암이라 한다 함.

○ 마명암(馬鳴巖, 騰雲庵) : 고왕암 옆
에 있는 절. 백제 왕자 융(隆)이 고왕암에
서 피난하다가, 신라군에 잡혀가게 되었
는데, 왕자의 말이 이 모습을 보고 크게
슬피 울다가 죽었다 함. 암자의 창건은
신라 665년(문무왕 5)에 등운대사(騰雲大
師)가 창건 등운암이라 불렀으나 후에 이
태조가 중건하여 계룡산의 정씨의 왕기
를 누른다는 뜻으로 압정사(壓鄭寺)라 하
여 오늘에 이름.

이 전설은 아주 정확한 시기와 역사사
실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자칫 사실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 정확성

- ▼ 등운암(암정사)의 옛 모습(위)
- ▼ 고왕암 전경(아래)



정을 전해주는 일면이다.

계룡산 신원사 골짜기에는 오랜 구전으
로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피난했
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물론 백제
멸망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삼국사기]에
는 의자왕의 공주 쪽으로의 행적을 적고

때문에 후대의 부회 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 그 근거가 되어줄 만한 유적이나 자료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추측은 그저 추측에 머물 뿐이다. 그리고 고왕암의 창건 년대가 660년 6월이었다거나, 신원사를 651년(의자왕 11) 선덕화상이 창건했다고 보는 것, 또 앞의 지명전설처럼 등운암(마명암)을 665년 등운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는 구전의 사실성은 아직 의문이다.

그러나 신원사가 원래는 “神院寺”로 불려졌었다는 점과, 신원사 경내에서 백제시대의 연화문 와당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윤용혁은 이를 토대로 신원사가 계룡산의 사찰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 가능성이 많고, 특히 사찰 성립 이전에는 이곳이 계룡산 제사처로서 특별한 기능을 가지지 않았았을까 추측하기도 한다. 신원사는 현재의 ‘신원사(新元寺)’가 아니라 본래는 ‘신원사(神院寺)’ 또는 ‘신정사(神正寺)’로 불리었으며, ‘신원(神院)’이라는 것은 다른 아닌 제사처의 의미라는 것이다.

백제시대의 계룡산 제사는 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으나, 신라 통일 이후 계룡산을 전국 5대 명산의 하나로 지정한 것도 이같은 백제시대 계룡산이 갖는 정치·종교적 의미에 주목한 것이라 하겠다. 신라 오악 신앙에 의한 국가적 제사의 전통은 제사의 전통은 후대로 계승되어 고려와 조선조에 이어졌는데, 고려 태조 26

년(943) 4월 계룡산을 비롯한 오악에 대한 제사의 기록이 있고, 현종 9년(1018) 2월에는 오악을 비롯한 산천신에 대한 작호 하사의 기록이 보이고 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같은 계룡산을 비롯한 산천신에 대한 제사는 계속되는데, 태조는 계룡산에 호국백(護國伯)이라는 작호를 내리고 있다. 즉 『태조실록』 2년 2월조에 보면 전국의 주요 명산대천 서낭에 작호를 내리는 기사가 보이는데,

진국공(鎭國公) : 송악(松嶽)서낭
계국백(啓國伯) : 화령(和寧), 안변(安邊),
완산(完山)서낭
호국백(護國伯) : 지리산(智異山), 무등산(無等山),
금성산(錦城山), 계룡산(鎭龍山),
감악산(紺岳山), 삼각산(三角山),
백악산(白岳山) 및 진주(晉州)서낭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태종 13년 10월에는 태종이 사람을 직접 보내어 계룡산신과 금강의 웅진(곰나루)에 제사를 지낸 사실이 있다. 이로써 볼 때 계룡산신에 대한 국가적 제사는 고대 이래 정해진 규례를 따라 거행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악단이 말하는 것

조선 초기의 지리지『동국여지승람』에 서는 계룡산 제사와 관련된 기사를 ‘계룡산사(鷄龍山祠)’라는 항목에서 적고 있다. 고대이래 계룡산신에 대한 제사처인 사당은 ‘공주 남쪽 40리 지점’이라 하여 오늘날 신원사에 해당됨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전통은 신원사 중악단으로 귀결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셈이다.

계룡산 신원사 경내에 있는 중악단은 계룡산 신당을 국가적인 품격에 맞게 격상시켜 불허진 명칭으로 ‘중악(中嶽)’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시대에 묘향산(北嶽), 지리산(南嶽)과 함께 계룡산이 ‘중악’으로 3악의 하나였던 때문이다. 계룡산 신당이 ‘중악단’으로 호칭되면서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주목되었던 것은, 한말에 고종과 민비에 의하여 신원사 중악단이 증건되면서였다.

중악단은 고종 16년(1879) 민비에 의하여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월주화상이 폐허가 되어 가는 건물을 재건하고 중악단으로 개칭했다고 한다. 원래 ‘신원사(神院寺)’로 불려지던 신원사가 현재의 이름인 ‘신원사(新元寺)’로 개칭된 것도 구한말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로 황제가 된 고종이 이듬해 1889년 계룡신사(鷄龍神祠)의 격을 올려 중악단으



▲ 중악단 전경



▲ 계룡산 산신제 광경

로 개칭하고 건물을 새로 위엄있게 짓는 한편 중악단이 위치한 ‘신원사(神院寺)’를 새로운 제국의 기원을 연다는 의미에서 ‘신원사(新元寺)’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1923년 동아일보의 기사)

같은 계룡산 자락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같은 사찰이면서도 시기에 따라
갑사와 신원사, 동학사는 서로 다른 문화로서
굵적굵직한 자취들을 남겨 놓고 있다.
갑사골짜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채취와,
신원사 골짜기에서 배어 나오는 숨소리.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동학사 골짜기의
여러 모습들이 지녔던 옛 모습과 의미를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계룡산의 세(?) 얼굴

계룡산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정신사적 전통은 이곳에 그에 걸 맞는 수많은 문화 유적들을 남겨두었다. 대개는 수려한 단풍과 산행의 묘미 속에 일반인들에게 소외 받고 있는 이들 문화유적들은 얼른 보면 모두가 불교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갑사와 동학사, 신원사가 그 모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좀더 다른 각도에서 계룡산의 문화를 구분하여 보자.

같은 계룡산 자락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같은 사찰이면서도 시기에 따라 갑사와 신원사, 동학사는 서로 다른 문화로서 굵적굵직한 자취들을 남겨 놓고 있다. 갑사골짜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채취와, 신원사 골짜기에서 배어 나오는 숨소리,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동학사 골짜기의 여러 모습들이 지녔던 옛 모습과 의미를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갑사의 부도와 철 당간, 부도 발과 대웅전, 동종을 보면서 갑사 골짜기에서 우리는 나말여초 이래 계룡산의 불맥을 이어온 갑사의 모습을 발견한다. 물론 현재의 대웅전이 있는 구획과 보물로 지정된 부도와 철당간이 있는 대적전 구역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편차가 있더라도 그것은 매한가지이다.

이에 비하여 보면 계룡산의 서남쪽 신원사 부근의 모습은 너무나도 문화적 차이가 느껴진다. 신원사라는 사찰이 물론 불교문화로서 상징되고는 있으나, 이와 함께 이곳의 여러 골짜기들에서 벌어지는 무속적인 당굿판의 다양한 모습들은 계룡산신 제사처로서 중악단과 함께 사뭇 불교와는 차이가 나는 다른 모습들이다. 무속적·민간신앙적 풍모가 진한 것이다.

그러면 동쪽의 동학사 골짜기는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 동학사는 현재는 비구니들의 수련처로서 매우 유명하다. 그리고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의 관광인파가 항상 줄을 잇는 명소이지만, 이곳에는 사찰의 내음과 함께 숙모전이네 삼은각이네 하는 선비들의 건물들이 앞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어쩌다 그리 된 것이 아니라 동학사의 역사와 이들 유교적 문화는 일찍부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공생하여 왔던 것이다.

또 우리가 느껴야 할 계룡산 문화의 수수께끼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바로 구룡계곡의 대규모 사찰 구룡사의 문제이다. 왜 그렇게 큰 사찰이, 빠른 시기에 그 골짜기에 조영되었으며, 또 왜 후대로 전승되지 못한 것일까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갑사와 신원사와 동학사

계룡산에는 이미 백제시대 때부터 절이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관련 유물들도 일부는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신원사 경내에서 발견된 백제 연화문 와당편이라든가, 약간 불확실하지만 구룡사(반포면 상신리)에서 발견되었다는 백제 와당편이 그런 것들이다. 백제의 불교수용과 특히 공주 천도 이후 불교가 보다 폭넓게 발전하였다고 본다면 명산 계룡산 자락에 불교 사원이 들어서지는 것은 당연했으리라.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계룡산 지역에서 백제시대 절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계룡산이 불교 성지로 보다 분명히 부각되는 것은 통일신라 때의 일이다. 통일신라시대 계룡산에서 가장 번창한 사원은 갑사였다. 갑사는 옛 문헌

에 '갑사(甲寺)' 혹은 '계룡갑사(鷄龍甲寺)'로 표기되는데, 통일 이후 특히 화엄종 사찰로 이름이 높았다. 갑사는 계룡산의 여러 절 중에서 웅천주의 치소였던 공주에 가장 근접한 위치이며, 신라 통합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화엄종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갑사가 중앙 교단으로부터도 일정한 뒷받침을 받은 것임은 자명하다.

실제 계룡산에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갑사이다. '갑사'라는 말뜻 자체가 '첫째'라는 짚 이고 보면, 역시 계룡산에서는 가장 크게 지속적으로 번창하였던 절이 바로 갑사였다. 지금도 갑사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당간지주, 고려시대의 부도, 조선시대에 지어진 각종의 절 집들, 그리고 작은 돌부처며 종(鐘)이며 월인석보의 판목이며 다양한 재료들이 이곳 저곳에 흩



어져 있다. 갑사의 골짜기는 예로부터 갑사구곡(甲寺九曲)이라 하여 더운 여름이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이 때문에 한말 일제 때의 어느 유명인사는 바로 이 갑사 절 곁의 물가에 별장을 짓고 자기 과시의 세계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갑사 철당간(鐵幢竿)과 지주(支柱)

갑사의 원금당지의 서측 끝부분 아래의 평평한 대지 위에 세워져 있는데 보물 제256호로 지정되었다. 철당간은 지름 50cm의 철통 24개가 3m높이의 두 개의 지주에 연결되어 세워져 있다. 본래는 28개였는데 지금은 24개만 남아 있다. 지주의 대석은 흙 속에 파묻힌 상태인데 장식이 없이 소박하나 튼실하다. 지주의 조각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중기의 것으로 여겨지는데 절에서는 통일신라초기인 680년에 건립했다고도 한다.

갑사 부도(甲寺 浮屠)

갑사경내 대적전 앞에 있는 고려시대 부도로 높이 205cm, 보물 257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래는 계룡산 중에 쓰러져 있던 것을 1917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놓은 것이다. 갑사 부도는 팔각 원당형으로 입체적이고 섬세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부도 전체가 크지 않은데 기단의 사자 조각은 딱 힘있는 느낌을 주고, 그 위로 꿈틀거리는 구름 무늬조각 위에 천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천상세계가 되는 말각 몸 돌의 네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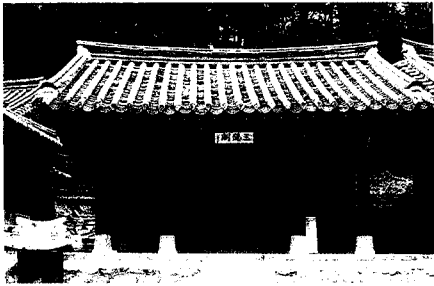
에는 사리를 보호하는 의미로 문 양쪽에 사천왕이 새겨져 있으며, 지붕 돌에는 기왓장무늬가 새겨져 있고 상륜부에는 연꽃 봉오리가 있다. 우리 나라 부도 중에서 수려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고려초기의 작품이지만 정작 이 부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 갑사 철당간과 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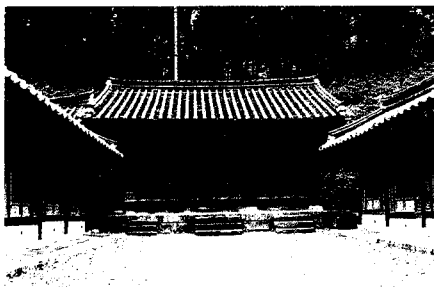


▲ 갑사 부도



삼은각(三隱閣)

동학사 경내에 숙모전과 함께 자리잡고 있는데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59호로 지정되어 있다. 삼은각의 건립은 태조 3년(1394년)에 길재가 동학사 승려 영월(影月)·운선(雲仙)과 함께 단을 쌓아서 고려 태조를 비롯한 충정왕, 공민왕, 정몽의 초혼제를 지낸데서 비롯된다. 그 뒤 정종 1년(1399)에는 고려 유신 유방택(柳方澤)이 길재가 쌓은 단위에 정몽주와 아색을 제사하였으며 다음해에 공주목사 이정간(李貞幹)이 양은각(兩隱閣) 짓게 된다. 1421년 길재가 추가로 제향되면서 비로서 삼은각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후 광해군 때에 유방택, 손조때는 이승인과 나계종을 차례로 추배하여 현재는 모두 6인을 제향하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한국전쟁때 소실된 것을 1960년 이후에 중건한 것이다.



숙모전(肅慕殿)

동학사경내 동편에 위치해 있으며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67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조 2년(1456)에 단종 복위를 준비하던 사육신들이 세조에 의해 죽음을 당하여, 노량진에 시신이 버려졌다. 이 때 김시습이 몰래 노량진에 임정하고 동학사에 돌아와 삼은각 옆에 단을 만들어 사육신에 대한 초혼제를 지냈는데, 이 초혼단이 숙모전의 효시이다. 그 후 세조가 동학사에 왜 제단을 살피며 단종을 비롯하여 세조 찬위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비단에 써서 주며 초혼제를 지내게 한 뒤 초혼각을 짓게 하였고 도장과 신표, 토지 등을 하사하며 동학사(東鶴寺)로 사액한 다음 승려와 유생이 함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다. 그 후 숙모전은 동학사 경내에 있는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영조 4년(1728) 신천영의 난으로 소실되었다가 고종 6년(1869)에 만화(萬和)·보선(普善)이 중건하였다. 1904에 숙모전으로 이름을 고쳐 사액하였다.



동학사와 신원사도 계룡산의 품에서 성장한 큰절들이다. 동학사는 계룡산 동편의 수려한 산세를 따라 조영되었고, 신원사는 계룡산 신사(神祠)가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보한다.

동학사가 유명한 절이 된 것은 근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동학사가 덜 유명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 동학사의 가을 단풍

옛날 그 절의 존재가 미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동학사에는 조선 초에 고려의 왕들과 고려에 충절을 바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등 고려 충절신의 위패를 모신 삼은각이 있으며 사육신의 원혼을 위령하는 숙모전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동학사는 불교 신앙의 공간과 별도로 고려말 조선 초의 충절인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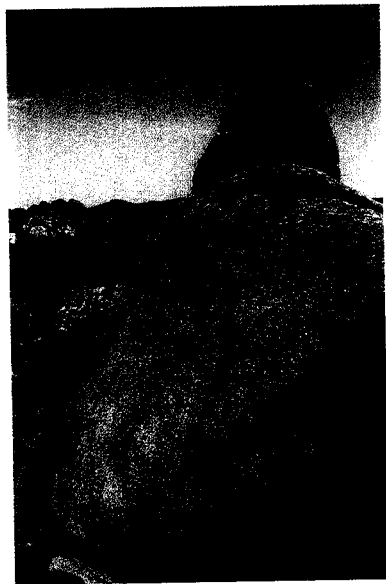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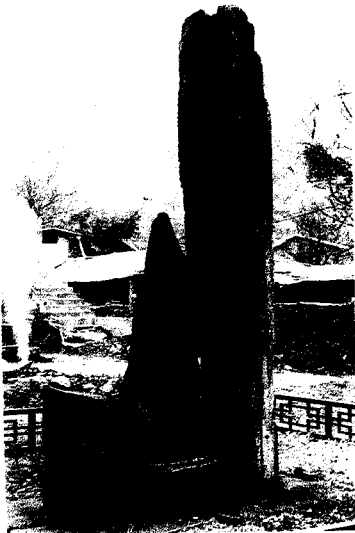
한 위령의 제사처가 공존함으로써 독특한 역사성을 계승하여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계룡의 사찰 중에서 가히 동학사는 유불(儒佛)의 교감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할만하다. 현재의 동학사는 비구니들의 도량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동학사 입구에 홍살문이 서 있는 까닭도 삼은각, 숙모전이 있는 때문이다.

지금은 넓은 절터만 남아 있지만 갑사와는 반대편에 해당하는 계룡산 동북편 기슭(반포면 상신리)에 구룡사가 조영되어 있었다. 구룡사(九龍寺)는 신라, 고려 시대에 걸쳐 번영하였는데, 사역(寺域)의 규모에 있어서 계룡산 최대의 사원으로 꼽힌다. 현재에도 통일신라기의 당간지주만이 외롭게 서서 당시의 영광과 번성함을 흔적으로나마 알려주고 있다.

구룡사는 그 광대한 규모에 비하면 이 사찰에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고, 폐사된 지도 오래이기 때문에 번영의 배경이나 폐사의 이유 등 모든 것이 수수께끼이다. 1980년대 말 공주대 박물관의 절터 발굴작업에 의하여 그 폐사 시기는 고려말 조선초로 추정되고 있다. 구룡사가 있는 계룡산의 골짜기는 ‘용산구곡(龍山九曲)’으로 불려왔는데 이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금잔디고개와 맞닿는다.

구룡사지 당간지주(九龍寺址 幢竿支柱)

구룡사의 유물로는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충청남도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은 절터에서 동으로 약 150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2개 중 하나는 절단되어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다. 크기는 3.6m로 조성의 수법으로 미루어 통일신라시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2기의 탑이 주목을 끄는 중요한 이유는 부여 정림사탑과 같은 백제 스타일로 건축된 것이라는 점이다. 백제의 탑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부여와 익산에 각각 1기씩이 있다. 백제 멸망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백제스타일은 자취를 감추었고 경주에서 볼 수 있는 신라스타일의 탑들이 백제지역에 들어섰다. 그러던 것이 신라가 망하고 난 이후 우후죽순으로 옛 백제 지역에서 백제스타일의 탑 건축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다. 오뉘탑의 건립시기는 대략 고려 초로 짐작되고 있다. 백제의 옛 도읍지 계룡산 봉우리에 신라가 망한 다음 세워지는 2기의 백제계통의 탑, 그것은 백제정신의 계승을 회구하는 백제인 후예들의 간절한 열망과 정신이 불교적 구도의 옷을 입고 표현된 것이었다.

▼ 남매탑 전경



남매탑에 얹힌 사연

그리고 이곳에 유명한 오뉘탑(남매탑)이 있다. 7층과 5층의 2기로 된 오뉘탑(보물 제1284호와 1285호로 지정)은 동학사에서 감사로 향하는 서편의 등산로를 오르면 비로봉 아래의 산 중턱에 2기가 다정하게 세워져 있다. 원래 여기에는 ‘청량사’라는 절이 있었기에 학술적으로는 ‘청량사지 쌍탑’으로 불리워지지만, ‘오뉘탑’ 또는 ‘남매탑’으로 더 많이 불리워지고 있다. 이 석탑에는 한 스님과 남매의 의를 맺은 비구니의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온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시대에 한 스님이 이곳에 작은 암자를 짓고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괴로운 몸짓을 하고 있었다. 이 상스럽게 여긴 스님이 호랑이 입 속을 들여다보니 큰 가시 하나가 목구멍에 걸려 있어 빼 주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호랑이는 한 아리따운 처녀를 등에 업어와 놓고 갔다. 은공에 보답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처녀는 상주사람으로 혼인날에 호랑이에 잡혀 온 것이었고, 스님은 처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그 처녀의 부모는 다른 곳으로 시집보낼 수도 없고 인연이 그러하니 거두어 주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스님은 그 처녀와 남매의 의를 맺고 비구와 비구니로서 수행하다가 한날 한시에 열반에 드니 그 두 사람의 사리를 모신 것이 바로 이 탑

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라 성덕왕 15년(716)에 당나라에서 입국한 상원화상이라고도 하며, 동학사

를 창건한 회이가 스승인 상원의 사리탑을 세우고 동학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한편으로 주인공이 백제왕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탑이 부여 정림사터 탑과 같은 백제계 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남매탑 전설은 펍 종교적이고 교과서적 모범으로 종결되고 있지만 탑의 구성에 얹혀있을 사연들을 전혀 짐작할 수 없어 그 궁금증이 더할 수밖에 없다. 이 2기의 탑이 주목을 끄는 중요한 이유는 부여 정림사탑과 같은 백제 스타일로 건축된 것이라는 점이다. 백제의 탑으로서 현존하는 것은 부여와 익산에 각각 1기씩이 있다. 백제 멸망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백제 스타일은 자취를 감추었고 경주에서 볼 수 있는 신라스타일의 탑들이 백제지역에 들어섰다. 그러던 것이 신라가 망하고 난 이후 우후죽순으로 옛 백제 지역에서 백제스타일의 탑 건축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다. 오뉘탑의 건립시기는 대략 고려 초로 짐작되고 있다. 백제의 옛 도읍지 계룡산 봉우리에 신라가 망한 다음 세워지는 2기의 백제계통의 탑, 그것은 백제정신의 계승을 회구하는 백제인 후예들의 간절한 열망과 정신이 불교적 구도의 옷을 입고 표현된 것이었다.

감사, 구룡사, 동학사, 신원사 이외에도 문헌 기록에는 계룡산에 등라사(藤羅寺), 가섭암(迦葉庵), 울사(栗寺), 중심사(中心寺), 상원사(上院寺) 등의 사찰이 조선조

개천의 물은 냇의 물과 달리
이산의 좋은 경치를 유혹하
지 않는데, 이 때문에 도로 당
시 개천산의 조경에 조의 절들이 밀
집하여 이름을 전한다.

개천산의 절들은 개관 시에 때때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몽고군의 침략
이나 고려 말 왜구의 침략, 조선 초기
왜란 때 왜군의 침략 등 여러 차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왜란의 피해는 매
우 컸다. 대부분의 절은 유적들이 그 때
부터 단절되어 버리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
들이다.

조선왕조 건국 직후 태조 이성계는 새 왕조의 기틀을 잡기 위하여 새 서울을 건설해야 할 일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 때 계룡산 남쪽 기슭, 신도안 지구가 새 도읍의 적격지로 추천되었고, 이성계는 직접 현지 확인까지 한 후 계룡산 새 도읍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공사의 초기 단계에 취소되고 이어 현재의 서울지역이 조선의 새 왕도로 정해져 일단락 되었다.

정도령은 또 언제인가

계룡산은 또 풍수지리적으로 역사에 크게 부각된 산이다. 조선왕조 건국 직후 태조 이성계는 새 왕조의 기틀을 잡기 위하여 새 도읍을 건설해야 할 일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 때 계룡산 남쪽 기슭, 신도안 지구가 새 도읍의 적격지로 추천되었고, 이성계는 직접 현지 확인까지 한 후 계룡산 새 서울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공사의 초기 단계에 취소되고 이어 현재의 서울지역이 조선의

새 왕도로 정해져 일단락 되었다.

이렇게 새 나라 서울의 후보지로 계룡산이 선택되었던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계룡산의 풍수지리적 특징 탓이었다. 계룡산의 풍수지리는 흔히 '회룡고조(回龍顧祖)의 형세' 혹은 '산 태극(山太極) 수 태극(水太極)의 형세'라고 한다. 이는 계룡산의 산세가 남쪽 덕유산에서 갈라져 북으로 내달리다가 공주 동쪽에 이르러서 역 C자 형으로 우회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종(祖宗)을 돌아보는 형세, 혹은 산 태극의 형세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수류 역시 금강의 줄기가 '장수-진안-무주-영동-대전 동쪽-부강-공주-강경을 거쳐 군산 장항사이로 빠지는 동시에 용추굴 용동리의 명당수가 청룡의 뒤를 돌아 크게 우회하여 금강에 합류한 거대한 수 태극의 형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도안은 비록 계획이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이후 끊임없이 미래의 서울로서의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여기에 풍수지리적 혹은 예언적 신비 요소가 덧붙여지면서 더욱 유명해진다.



신도안

계룡산은 풍수지리상 지기·지력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논산시 두마면 계룡산 남쪽에 위치한 신도안 일대는 장차 도읍지가 된다는 도참풍수의 발원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도 신도안 일대의 대궐터에는 조선 태조가 무학대사(無學大師)와 정도전(鄭道傳)을 데리고 와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사하였다는 주춧돌이 남아 있다. 한말 세상의 혼란을 틈타 전국 각지에서 신흥종교들이 들어와 104개의 교단이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1984년 '신도안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모두 철거되고 이곳에 '3군본부(계룡대)가 자리잡고 있다.

계룡산에 대한 신비적 기대가 특히 고조된 데에는 조선조 후기 이래의 {정감록}의 예언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였다. 정감록은 계룡산에 대한 도참적 예언서의 대표로서 17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것인데, 이 책에는 신도안에 대하여 '송도 500년에 이씨가 나라를 빼앗아 한양에 천도하였는데 한양 400년에 정씨가 나라를 빼앗아 계룡산에 도읍한다. 그리고 신도는 산천이 풍부하고 조야가 넓고 백성을 다스림에 모두 순하여 800년 도읍의 땅이다'라 적고 있다. 지금도 연천봉 꼭대기 강선대 바위에 새겨져 있는 "방백마각(方百馬角) 구혹화생(口或禾生)"의 명문에 대한 해석에서도 보여진다. 즉 전해지는 바를 토대로 이 기록을 해석하면 方은 4를 의미하여 방백은 400을 의미하고 馬는 80, 角은 뿔이니 2가 되어 482년이라는 설명이고, 口或은 나라 國의 파자이며 禾生은 移의 옛 글자로서 결국 이 글은 참서로서 조선왕조가 482년이 되면 망하고 나라가 바뀐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감록의 참위설은 민중 속에 오래도록 번져갔고, 왕실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모습이 한말에 보이고 있다. 즉 민비가 은밀하게 연천봉의 등운암 옛터에 압정사(壓正寺)라는 절을 세워 정씨의 왕기를 누르는 기원소로 삼았던 것이나, 민비가 여자 시녀를 보내 연천봉 위의 샘에서 몸을 씻고 아들을 빌어 이척(李适)

을 낳았다는 일화, 나아가 앞서 적은 바대로 중악단을 증진하면서 신원사의 이름을 대한제국의 신기원을 연다는 의미의 新元寺로 개칭한 것 등등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다.

현재 신도안에는 종교촌이 형성되어 있다. 이 종교촌은 1924년 2월 동학의 한 교단인 시천교 제3세 교주 김구암이 신도안으로 그 본부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신들의 터전이 되었고, 1970년대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동학계, 무속계, 기독교계 등 무려 104개의 교단들이 이곳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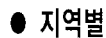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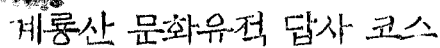
조선왕조가 망한 지는 이제 거의 1백년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간혹 어떤 이

들은 이 새 도읍 새 나라의 지도자 정도령이 어디에 있나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6백년 전 새서울을 건설하려 하였던 바로 그 땅에 대한민국의 3군 지휘부가 들어선 사실을 들어 이것이 옛 예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게 아닌가 하고 가우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하면 바로 그 계룡산에 인접하여 20세기에 새로 들어선 1백여 만명 규모의 대도시 대전, 그리고 대전에의 정부 종합청사 이전이 {정감록}의 예언과 전혀 무관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쳐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솟을추

▼ 계룡산 연천봉 강선대(우)의 암각새(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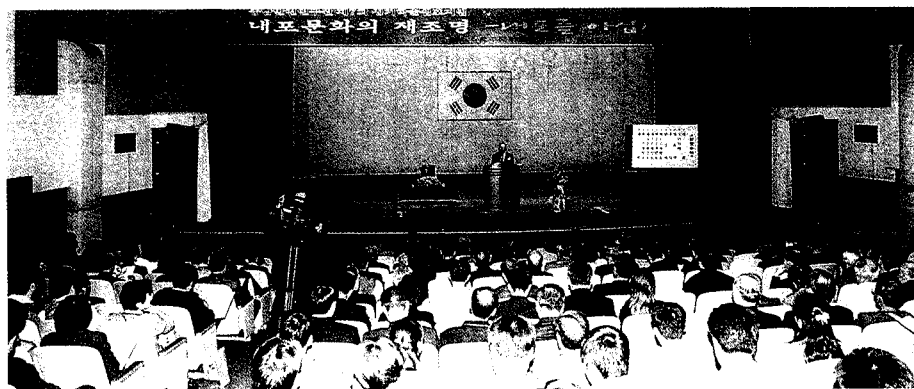




- ## ● 주제별

- 60 열린충남, 2020. 1. 1.

「내포문화의 재조명」 유홍준교수 등 전문가 초빙



우리 연구원(원장鄭鍾煥)은 2001년 11월 6일(화)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제7회 정기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내포문화의 재조명」이라는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서산시 등 9개시·군 내포지역 관계자, 유관기관, 학계등 5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난해 충청남도과 국토연구원이 함께 추진한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 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가 있는 후 이 분야와 관련된 하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이루어진 행사로 앞으로 내포지역 개발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홍준교수(명지대)가 '내포지역의 역사와문화적 특성' 최완수실장(간송미술관)이 '내포지역의 불교문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진데 이어 이성무위원장(국사편찬위원회)이날 '내포지역의 지성사', 임동권명예교수(중앙대)가 '내포지역의 민속과 삶' 김용웅부원장(국토연구원)이 '내포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다.

이날 주제발표 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제언 —

유홍준 (명지대학교 교수)

1. 도로망의 건설과 문화권의 이동

본래 지역 개념은 생활문화의 동질성 속에서 형성된다.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서 도(道)의 개념도 자동차가 없던 시절 생활문화권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기차, 고속도로, 터널과 교량에 의해 분리됐던 생활문화가 동일문화권으로 형성되는 수가 많으며, 기존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휴전선으로 북쪽이 막히면서 강원도 철원은 경기도 북부문화권과 동화되었고, 경기도 가평은 강원도 춘천과 같은

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고속도로 건설로 합천 해인사는 사실상 고령 해인사로 되었고, 청도 운문사는 경산 운문사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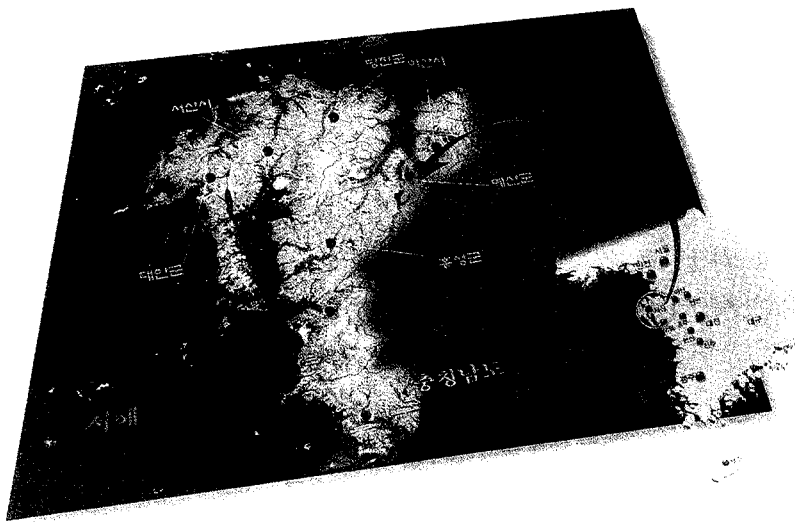
반대로 새로운 교통시설의 건설로 잃어버린 문화권이 다시 옛날의 문화권 전통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내포문화권의 재형성이라고 생각한다.

2. 내포문화권의 역사적 정의

내포지역이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조선시대에는 거의 일반

화된 명칭이었다.

오대산에서부터 뿔어내려온 차령산맥 줄기가 서해바다에 다가오면서 그 맥을 주춤거리다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면서 마지막 용틀임을 하듯 북쪽을 향해 치솟은 땅이 가야산(伽倻山 : 678m)이다. 이리하여 차령산맥 위쪽 가야산을 둘러싼 예산, 서산, 태안, 나아가 당진, 아산에는 비산비야의 넓은 들판이 생겼다. 옛날에는 여기를 '내포(內浦)'라 했고 지금도 이 일대를 내포평야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고장 사람들은 사는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도 마치 옆마을 사람처럼 느끼는 친근한 동향의식을 갖고 있으니 내포 사람들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성 싶다.

내포는 농사와 과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안면도·완도의 조기잡이, 간월도의 어리굴젓이 상징하는 바다의 풍요가 있다. 그래서 조선후기의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이증환은 『택리지(擇里志)』의 팔도총론에서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산천은 평범하고 아름답고 서울의 남쪽에 위치하여 서울의 세력있는 집안치고 여기(충청도)에 농토와 집을 두고 근거지로 삼지 않은 사람이 없다. …… 충청도는 내포를 제일 좋은 곳으로 친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은 큰 바다

요, 북쪽은 큰 만(灣)이고, 동쪽은 큰 평야, 남쪽은 그 지맥이 이어지는바, 가야산 둘러 열 개 고을을 총칭하여 내포라 한다. 내포는 지세가 한쪽으로 막히어 끓기었고 큰 길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진, 병자 두 난리의 피해도 이곳에는 미치지 않았다. 토지는 비옥하고 평평하고 넓다. 물고기, 소금이 넉넉하여 부자가 많고 또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도 많다. …… 다만 바다 가까운 곳은 학질과 부스럼병이 많다.”

3. 21세기 첨단사업으로서 문화관광

지역문화의 개념은 본래 농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산업사회로 들어와서는 공장 산업 즉 공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세기말로 들어서면 우리사회는 다시 3차산업을 중심으로 문화권이 개편되고 있는데 21세기는 이런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차산업의 여러 형태 중 가장 촉망받는 산업은 관광산업이다. 관광산업은 21세기 첨단산업의 꽃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반도체·전자사업이 인간의 생활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또는 다르게 바

꾸어 놓은 것이고, 그런 변화된 삶에서 기초하여 인간 모두가 새롭게 즐기는 여가문화로서 관광문화가 오히려 21세기 산업의 꽃으로 피어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관광은 어떤 특정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의 영위자만이 갖는 특수 문화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누리는 여가활동의 필수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가 퍼져나갈 경우 관광산업은 더욱 활발히 지향될 것이다.

4. 관광수입의 종류

관광산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입형태는 대단히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교통·숙박·식사비용이 관광비의 핵심을 이룬다.

이것을 관광을 제공하는 지역의 입장에서 다시 분리해 보면 외래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마시고, 관광기념품을 사가지고 가는 일체의 소비행위가 지역의 관광수입으로 되는 것이다.

흔히 관광수입을 계산할 때면 관광명소의 입장료와 주차비를 많이 따지는데 그것은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계산법이고 실제로 창출되는 관광수입은 오히려 숙박·요식업에서 더 일어난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한 사람이 내포지역에 1박2일로 답사 온다면 그는 제아무리 쓰지 않아도 숙박비·식사비로 5만원 이상을 써야만 한다. 그것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든 5만원이 내포땅에 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세계 모든 관광국가들이 외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때 국가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되도록 오래 머물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광수입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것이다. 내포지역의 관광사업도 이 점에 크게 착안해야 한다.

5. 자연관광에서 문화관광으로

관광의 출발은 자연관광, 아름다운 산, 바다, 강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것은 사실상 관광·여행·답사의 기본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연관광은 점차 문화관광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마침내는 관광은 곧 문화관광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사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 자체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내포지역은 다행히도, 자연관광과 문화관광을 모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구역 중 아주 중요한 관광문화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이 관광문화권으로 엮어진 것을 보면 경주문화권, 안동문화권,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 지리산문화권, 남도문화권, 한려수도문화권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내포문화권이 독자적인 관광문화권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6. 내포관광문화권의 과제

내포지역이 관광문화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보완사항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전환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1) 숙박시설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

- ① 덕산·도고 온천 지역
- ② 만리포·천리포 해수욕장 지역
- ③ 수덕사입구를 비롯한 문화재 지역
- ④ 순수민박(B&B)의 개발



2) 음식점에 대한 종합대책

- ① 향토음식의 개발
- ② 일품요리와 일반 가정식 요리
- ③ 외국인을 위한 배려
- ④ 계절음식

3) 문화재에 대한 관광차원의 정비

- ① 문화재의 보호와 보수
- ② 주차장 정비
- ③ 안내원과 안내 표지판

7.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제언

내포지역이 문화관광권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몇가지 이에 대한 발표자의 평소 생각을 제안한다.

1) 관광·답사코스의 개발

관광객들이 관광·답사를 즐기는 방식을 외지 관광객입장에서 편리하고, 유익하고, 감동적으로 엮어 제시해야 한다.

- ① 백제불상의 순례 : 예산 사면석불 - 서산마애삼존불 - 태안마애불
- ② 가야산 순례 : 수덕사 - 해미읍성 - 개심사 - 서산마애불 - 보원사터
- ③ 역사인물 탐방 : 아산 현충사 - 예산 추사고택 - 윤봉길 생가 - 만

해생가

- ④ 내포의 고건축 : 맹씨행단 - 추사고택 - 수덕사 대웅전 - 개심사

2) 비지팅 하우스의 설치

역사인물을 많이 배출한 내포지역으로는 역사인물 유적지의 연고지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 ① 생가 또는 묘소 입구에 방문객을 위한 비지팅 하우스(Visiting House)를 만들어 방문객이 그 역사인물을 심도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종래의 관리사무소는 생가 또는 묘소와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오히려 유적지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으므로 과감히 해체시키고 유적지로부터 적당한 거리로 옮겨야 한다.

- ③ 주차장은 유적지로부터 멀수록 좋다. 주차장을 유적지 대문에 만든 것은 모두 길 건너편 또는 유적지 초입으로 옮겨 평안히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비지팅하우스 건물은 현대건축으로 유적지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검소한 건물로 해야 한다.

- ⑤ 비지팅하우스는 전시내용물을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충실하고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제주도 추사유배지 기념관은 내용의 부실로 인하여 관광객들의 실망과 분노를 사고 있는 대표적인 실패사례임)
- ⑥ 내포지역의 역사인물 중 문화관광의 차원에서 특히 강조될 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특별 대우를 해야 함. 모두 형평성을 내세우면 관광은 성립하지 않음.

8. 결론

내포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과 차로 불과 2시간 안에 다다를 수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로 순환코스를 만들 수 있어 문화관광지로 급속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2002월드컵을 계기로 서울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또는 관광버스(일본의 비둘기 버스)같은 1일 관광코스를 개발하면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지역의 불교(佛敎)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

1. 내포(內浦)의 지세(地勢)

태안반도는 한반도의 정기가 한 데 뭉쳐져 분출되는 곳이다. 백두산으로부터 발원하여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며 내려오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태백산에서 서쪽으로 꺾어져 소백산, 속리산,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으로 내려가면서 한반도의 골격을 이루어 놓는다.

그런데 내륙의 중앙인 속리산에서 북쪽으로 한 가닥 한남정맥(漢南正脈)이 치올라 가면서 청주 선도산(仙到山), 청안 인경산(引頸山), 음성 보현산(普賢山), 죽산 칠현산(七賢山)으로 이어지다가 장

항령(獐項嶺)에서 다시 분기(分岐)한다. 여기서 한 줄기는 계속 북진하여 과천 관악산(冠岳山)으로 달려가며 남한강 물줄기를 한강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한 줄기는 다시 남진하여 천안 성거산(聖居山), 진의 월조산(月照山), 공주 차령(車嶺), 온양(溫陽) 각흘치(角屹峙), 대흥 차유령(車踰嶺) 사자산(獅子山), 청양 백월산을 거쳐 남포 성주산(聖住山)까지 내려가며 금북정맥(錦北正脈)을 이루어 놓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줄기가 서북쪽으로 휘돌아 되올려 치며 보령 오서산(烏棲山)으로 이어져 북주(北走)와 서진(西進)을 계속하면서 마치 분수(噴水)처럼 여러 가닥의 산줄기를

북쪽 바다로 혹은 서쪽 바다로 뿜어내며 태안반도를 만들어 낸다.

그래서 부채살처럼 펼쳐져 나간 산맥에 따라 복잡한 대소반도가 형성되고 그 산맥 사이를 따라 크고 작은 시냇물이 흐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 지형이 전체적으로 완만한 데다가 바다의 조석간만의 차가 8~9미터에 이르는 큰 격차를 보이므로 시내마다 거의 모두 갯물이 역류하여 중하류 지역은 바다와 직결되므로 수십리 혹은 백여리 물길이 내륙으로 깊이 들어오며 바다물을 끌어들이었다.

그러니 곳곳에 안개(內浦)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지역 전체를 안개 즉 내포

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오서산 줄기가 계속 북진하여 홍주 보개산(寶蓋山) 월산(月山) 삼존산(三尊山), 덕산 가야산(伽耶山), 서산 상왕산(象王山), 면천 마산(馬山), 아미산(蛾眉山) 신암산(申巖山) 창택산(倉宅山)으로 이어지는 가야정맥(伽倻正脈)과, 온양 각홀치에서 남진해 오던 금북정맥(錦北正脈)이 성주산을 휘돌아 이어지면서 삼태기 같은 지형(地形)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사이 모든 물줄기를 몰고 곧장 북류(北流)하여 바다로 들어가는 삽교천(옛 이름은 宣化川)은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유역평야가 가장 넓어 이 지역을 내포중의 내포로 꼽는다.

그래서 광의의 내포는 태안반도 전체를 일컫는 명칭이지만 협의의 내포는 삽교천 유역의 평야지대만을 지칭하는 명칭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지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내포지방은 인류 생활의 필수조건인 어염시수(魚鹽柴水)가 풍부하고 곡물이 지천이라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인류 문화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선박(船舶)의 발달로 해로(海路)가 열리면서부터는 외래문화의 유입이 용이하게 되니 더욱 문화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갔다. 그 결과 이곳은 일찍

부터 한반도 안에서는 가장 문화 선진 지역으로 부상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삼한(三韓)시대에는 마한(馬韓)의 중심 지역으로 백제의 침략에 끝까지 저항하였었다. 그리고 지배층이 압록강구를 거점으로하여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해양세력인 백제가 현재 서울인 위례성(尉禮城)에 수도를 정하고 건국하였다가 강화만 일대와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공주로 남천하였을 때는 이곳 내포를 해상 거점의 최후 교두보로 삼아 고구려의 남천을 끝까지 막아내었다.

그래서 문주왕(文周王, 475~477)이 웅천(熊川, 곧내 즉 큰내라는 우리말의 한자식 표기) 즉 공주로 피난해 와서 나라를 재건한 이후부터는 이곳 내포가 백제를 지탱해 주는 해양세력의 근거지로 부상하게 된다.

이로말미암아 이곳을 지배하던 진씨(眞氏, 뒤에 驪陽 陳氏가 된다.) 일족을 중심으로 백제는 왜(倭)와 남중국 해양세력의 도움을 받아 가며 제해권(制海權)을 되찾으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 결과 개로왕 21년(475)에 강화만에 주둔하던 백제 수군선단이 고구려 수군 선단에게 격파당하여 빼앗겼었던 서해 제해권을 46년 만인 무령왕(501~

522) 21년(521)에 이르러서야 고구려 선단을 다시 제압함으로써 되찾아 온다.

이제야 백제는 다시 바다를 호령하면서 남중국 양나라와 일본을 자유롭게 내왕하며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비롯한 중국 해안 곳곳에 건설해 놓았던 해양 식민지와와의 교통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당시 남북 중국을 통틀어 모든 나라에서 불교를 국교로 떠받들며 불교적인 이상 국가 건설을 도모하고 있던 상황에서 불교가 이곳 태안반도로 집중 유입되지 않을 리가 없다.

불교는 인도에서 일어났으니 1세기 후반경 중국으로 전해와서 석도안(釋道安, 314~385)에 의해 중국화를 마무리 짓고 나자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前秦) 황제 부견(苻堅, 357~385)이 도안의 제자인 순도(順道)를 보냄으로써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해져 왔고,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에 동진(東晉)에서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처음 와서 불교를 전해 주었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백제로 왔다면 북조의 전진이나 후진(後秦) 후연(後燕)을 거쳐 고구려를 통과하는 육로를 택했을 리는 만무하다. 당연히 배를 타고 상해(上海)나 영파(寧波) 등지를 출발하

여 흑산도를 거쳐 목포로 해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강화만에서 조강(祖江)으로 들어와 한강을 거슬러 올라 위례성에 도착하는 해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때 백제는 강화만을 거점으로하여 서해와 동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해양 강국이었던 때문에 해로를 이용하는 길이라면 백제 선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당연히 인도로부터 해로를 택해 남중국 즉 동진까지 왔던 마라난타가 백제로 가려했다면 이 길을 택했을 것이다.

이로부터 당시 세계를 주도하던 선진 이념인 불교는 자연스럽게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던 백제의 지배층에 전파되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마한계의 토착 원주민을 이끌어 나가려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인 지 근 백년쯤 되던 시기인 개로왕(455~475) 때에 고구려 승 도림(道林)이 간첩으로 내려와 개로왕의 존경을 받으며 개로왕으로 하여금 토목 사업을 일으키게 하고 군비를 소홀히 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사회현상이었다. 그래서 북위 문성제(文成帝, 452~465)는 황제를 당금여래(當今如來)

즉 현세에 출현한 부처님으로 생각하여 선대 황제의 모습으로 불상(佛像)을 조성하였었고, 남조 양(梁)나라 무제(武帝, 502~549)는 스스로 보살(菩薩)이라하여 불교적인 신정(神政)을 베풀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선진문화의 수용에 항상 앞장서 온 백제의 지배층들이 이를 모방하지 않을 리 없다.

2. 내포 불교의 시원

그래서 태안반도를 거점으로 제해권을 되찾아가던 무녕왕대에 이르면 태안반도를 세력 기반으로 하고 있던 진씨 일족이 제일 먼저 불교에 깊이 귀의하여 남북중국으로부터 불교를 활발히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당시 북중국을 중심으로 운강(雲岡)석굴, 용문(龍門)석굴, 향당산(響堂山)석굴, 천불산(千佛山)석굴 등 석굴 조각이 유행하던 시류(時流)에 따라 내포의 중심지인 큰물현(今勿縣: 합덕·고덕·봉산 일대)에 <예산사면석불(禮山四面石佛)>(보물 794호)을 조각해 낸다. 중국 석굴 조각 양식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마애불 양식이다. 아마 이 <예산사면석불>의 주불인 남면 석가여래좌상은 무녕왕의 초상조각일 것이다.

지금 이 <예산사면석불>이 서 있는 봉산면 화전리 일대는 과거에 갯물이 들어오던 곳으로 뱃길이 통하던 가장 깊은 오지이었다. 그래서 무녕왕이 이곳에 다 백제 수군의 본영을 설치하고 전선(戰船)의 건조에 국력을 기울여 결국은 백제 수군을 재건하고 제해권을 되찾아 백제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듯하다.

그러나 무녕왕이 제해권을 되찾아 남조 양나라와 교통을 터 놓은지 2년 만에 62세로 돌아가자 뒤를 이은 태자 성왕(聖王, 523~553)은 이곳에 부왕인 무녕왕의 초상조각으로 불상을 조성하여 이를 기념하려 했을 것이다. 당시 북위 운강석굴이나 용문석굴에서 당연스럽게 시행하던 전례를 따른 풍습이었다.

그리고 위덕왕(威德王, 554~597) 때에 이르러서는 보다 더 서쪽으로 나가 태안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태안의 진산(鎭山)인 백화산(白華山) 상봉 가까운 절벽에 사람 키보다 더 큰 <태안마애삼존불(泰安磨崖三尊佛, 보물 432호)>을 조각해 낸다. 아마 이는 신라의 배신을 응징하러 직접 나섰다가 관산성(管山城, 옥천) 전투에서 전략적인 실수로 신라군에게 피살된 비운의 영웅인 성왕의 초상조각일 것이다.

무왕(600~640) 초년 경에는 태안반도

의 북쪽인 당진만에서 채운천(彩雲川)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 그 물길의 발원처에 가까운 상왕산(象王山) 계곡에 더 세련된 <서산마애삼존불(瑞山磨崖三尊佛, 국보 84호)>을 조성해 낸다.

대개 이 시기에 이르면 불교가 이 내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해되고 신앙되어 상하에 뿌리를 굳건히 내려가는 듯

하다. <태안마애삼존불>에서는 삼존불 구도에서 왜소한 보살상이 거대한 양불 사이에 끼어 표현되는 미숙한 구도를 보이는데 <서산마애삼존불>에서는 거대한 주불을 중심으로 왜소한 두 보살이 좌우에서 협시하는 일반적인 삼존불 구도를 나타내 보인다. 그러면서 바로 내포 지역의 미남 미녀 상호와 그 특유의 미

소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 수덕사에는 혜현(慧顯, 570~627)대사라는 고승이 있어 삼론학(三論學)을 강의하고 법화경을 염송하며 대중을 교화하였다니 이미 수덕사를 비롯하여 <서산마애삼존불>이 있는 보원사(普願寺)와 개심사(開心寺) 등의 사찰이 이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서산 마애삼존불

을 짐작할 수 있다.

수덕사 혜현대사에 대한 기록은 당(唐) 나라 태종 정관(貞觀) 19년(645)에 도선(道宣)율사가 편찬한 廉厭『속고승전(續高僧傳)』 권 28 백제국 달나산 석혜현전(百濟國 達拏山 釋慧顯傳)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혜현은 어려서 출가하여 법화경을 염송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었는데 복을 빌어 그 소원을 이룬 사람이 많았었다. 또한 삼론을 강론하기도 하였었는데 처음에는 본국 북부 수덕사에 살면서 대중이 있으면 강론하고 없으면 맑게 염송하니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시끄럽게 찾아왔었다.

이에 남방 달나산(達拏山; 달이 나오는 산이란 의미로 전라남도 강진 월출산의 우리말 원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가서 예전처럼 수행하다 그곳에서 돌아갔다. 동학들이 그 시체를 메어다가 석굴 속에 두었더니 호랑이가 모두 먹고 허만 남겨 놓았다. 3년이 지나자 홍적색이던 혀가 자색으로 변하면서 돌같이 굳어지므로 도속(道俗)이 모두 괴이하게 여겨 공양하고 잘 싸서 석탑에 모셨다. 나이가 58세 이었고, 그 해는 정관(貞觀) 초년(627)이었다.]

혜현대사의 신비스럽고 이상한 이야기가 당나라에 전해져서 승사(僧史)에 까지 올라 있으니 당시 내포지역의 불교 수준이 세계적이었다는 사실을 이로써 확인할 수 있다.

〈예산사면석불〉이나 〈태안마애삼존불〉 및 〈서산마애삼존불〉이 모두 사람 키 이상의 크기를 가진 거대한 규모의 불상들인데 이 당시에 이런 규모의 불상 제작은 백제의 수도가 있던 부여나 공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백제 문화의 중심지는 백제의 수도가 있던 부여나 공주 지역이 아니고 백제 해상 세력의 근거지가 되고 있던 이 내포지역이었다는 사실이 이로써 증명된다.

이 시기에 이만한 규모의 불상을 남긴 곳은 한반도 내의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당시에는 태안반도 즉 이 내포지역이 일종의 문화특구로 한반도 내에서 가장 문화선진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는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해양세력의 전진기지이자 그 본부로서 외래문물을 활발히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백제의 정치·경제·군사·문화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에게 멸망당했을 때에도 내포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니 부흥운동의 정신적 지주이던 도침(道琛, ?~661)대사는 아마 수덕사 승려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도침대사가 임존성주이던 의자왕의 종계(從弟) 복신(福神, ?~663)과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켜 일본에 가 있던 왕자 부여풍(夫餘豐)을 모셔다가 백제를 거의 다시 일으키게 되었으나 복신의 배신으로 그에게 살해당함으로써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신라 조정에서는 이 내포지역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이 지역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서산마애불이 있는 상왕산 계곡에 보원사(普願寺)를 크게 중창해 짓고 화엄종찰(華嚴宗刹)로 삼아 이곳 불교를 장악해 가게 한다. 화엄종을 통일왕국의 주도 이념으로 삼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원사는 소위 화엄전교십찰(華嚴傳教十刹) 중의 하나로 손꼽혀 이후부터 이 지역 불교의 중심사찰이 된다. 요즘 차령산맥이라 부르는 금북정맥(錦北正脈)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성주산에서 휘돌아 북주하여 이루어 내는 가야정맥(伽倻正脈)은 가야산에 이르러 가장 우뚝 솟아나 태안반도에 군림하는데 그 가야산 북쪽 계곡에 보원사는 위치



예산사면석불

한다. 상왕산 계곡이라 한 것은 가야산 연봉 중 북쪽 봉우리들은 상왕산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에서 가야(Gaya)는 코끼리라는 뜻이니 가야나 상왕이나 같은 의미라서 처음에는 함께 쓰던 이름이다. 그런데 뒷날 관행으로 북쪽은 상왕산이라 하고 남쪽은 가야산이라 구별하게 되었다. 가야산 남쪽 계곡에 역시 가야사(伽倻寺)라는 큰 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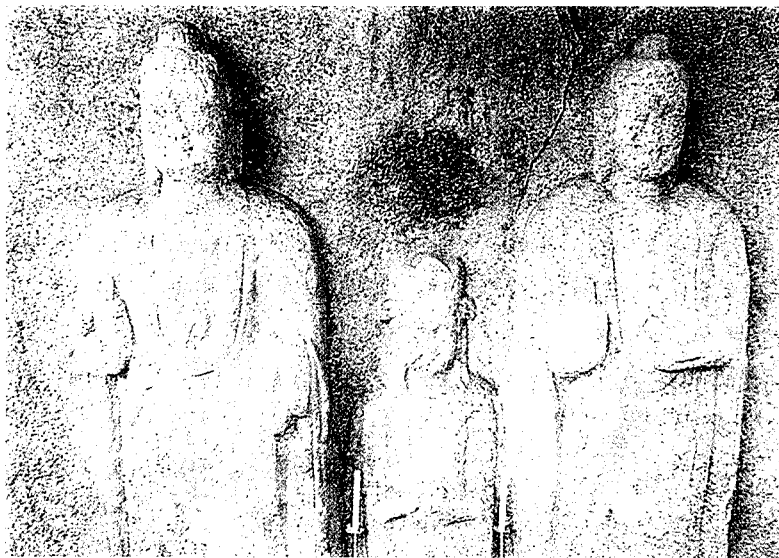
사실 이 가야산은 우리말로 개산갯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우리는 모두 이렇게 불렀다. 합천의 가야

산이나 나주의 가야산 등이 모두 그렇다.)이던 것을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석가세존이 대각(大覺)을 이루었던 곳이 가야 즉 붓다가야이므로 가야 근처에 있던 가야산(Gayra, 象頭山)의 이름을 옮겨다 불교식으로 표기하여 성역화(聖域化)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그러니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가야니 상왕이니 하는 구분이 없이 함께 써왔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로 들어와 억불정책의 결과로 불교지식이 상식 밖으로 밀려 나가자 가야와 상왕이 서로 다른 의미로 오해되어 이와 같은 구별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수덕사



태안마애석불

3. 선종의 발상지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663)와 고구려 멸망(668)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한 뒤에 이곳 내포지역의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 보원사를 화엄전교십찰 중의 하나로 건립하여 화엄종자를 전파해 가지만, 이곳 백성들의 반신라적인 감정은 더욱 골이 깊어 간다. 그래서 통일신라 왕국이 통일의 여세로 극성을 보일 때까지는 변방의 망국 후예로 은인자중하고 있었지만 차차 신라 왕실이 내분을 보이면서 해체되어 나가는 기미가 나타나자 이곳 내포지역은 옛 백제의 해상

전진 기지다운 진면목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백제의 멸망 당시에 거의 괴멸되고 부흥운동 실패 시에 완전 소멸한 선단(船團)의 복구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백제 멸망 당시 제해권을 당의 강남 선단에게 빼앗긴 이래 150여 년 동안 바다를 놓치고 살아온 내포의 해양족 후예들은 복구된 선단으로 중국 해적들을 소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제해권을 되찾아 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런데 마침 장보고(張保皋, ?~846)가 흥덕왕 3년(828)에 흥덕왕에게 군사 1만을 빌려 남해의 완도에 청해진(淸海

鎮)을 베풀어 제해권 회복에 앞장서니 이곳 내포 해상세력들도 그와 손잡고 그 일에 합류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통일신라 왕조의 주도 이념이던 화엄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념으로 새 사회를 건설해 가려는 신사조(新思潮) 운동이 맨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 때 앞장선 인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문(禪門)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의 실질적 개산조(開山祖)인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 804~880)이다.

가지산문의 종찰(宗刹)인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에 세워져 있는 <보조선사 창성탑비(普照禪師 彰聖塔碑, 보물 170호)>의 내용에 의하면 보조선사는 웅주(熊州) 사람으로 속성을 왕성인 김씨라 하였으니 내포를 점령하고 들어왔던 김씨 왕족의 후예이었던 듯하다. 이때는 내포 지역도 웅주 관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선사의 집안도 내포에 정착한 지 이미 150여 년이 지나면서 내포의 토착 귀족으로 뿌리를 내리었으므로 오히려 반신라적 성향이 더욱 강해졌던 듯하다. 그의 비문에 나타난 행장을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어려서 화산사(花山寺; 봉산 사면불이있는 곳의 현재 지명을 花田이라 하니 당시 이곳 절 이름이 花山寺가 아니었던지 모

르겠다.)의 권(勸)법사에게 출가하여 흥덕왕 2년(827)에 24세로 당시 이 일대 불교를 주도하던 화엄종찰인 가랑협산(加良峽山) 즉 가야산 보원사(普願寺) 계단에서 계(戒)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는 도리어 당시로서는 혁신이념인 남종선(南宗禪)을 최초로 받아들여 온 도의(道義)선사의 문하에 나아가 인가(印可)를 받는다. 그런 다음 도의선사의 수제자인 역성사(億聖寺) 염거(廉居)화상의 법을 이어 도의의 법장손(法長孫)이 된다.

보조선사는 설악산에서 조사(祖師)인 도의선사가 거처하는 진전사(陳田寺)와 사부(師父)인 염거화상이 거처하는 역성사를 내왕하며 10년 공부를 마친 다음 희강왕 2년(837)에 34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건너간다. 이 때는 장보고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을 때이었으므로 이와 연계되어 있는 내포 해상세력의 선단이나 강화만 해상세력의 선편으로 안전하게 서해를 건너 당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체장은 당나라 여러 곳을 다니며 선지식(善知識)을 역방해 보니 고국에서 조사인 도의선사로부터 배운 선지(禪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지라 체류한 지 만 3년 만인 개성(開成) 5년

(840) 즉 문성왕 2년에 37세의 나이로 평로사(平虜使)가 귀국하는 선편을 따라 귀국하고 만다.

그러나 그가 귀국하고 나서 5년 뒤인 문성왕 8년(846)에 장보고가 따님을 왕비로 들여 보내려다가 왕도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자 반란을 일으키다가 무주(武州; 현재 전라남도 光州) 사람 염장(閻長)의 계교에 말려 살해당함으로써 문성왕 13년(851)에는 청해진 세력이 해산되어 그 일부가 익산으로 강제이주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이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던 각 해상세력들은 구심점을 찾지 못해 한동안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러나 보조선사는 이런 해상세력들을 규합하여 제해권을 다시 잃지 않게 하기 위해 그후 15년 간은 설악사 역성사와 진전사 및 출가 본사와 수계본사가 있는 고향 내포 일대를 왕래하며 선지(禪旨)를 펼쳐내어 민심을 수습하였던 듯하다. 청양 장곡사(長谷寺)가 선사의 개창(開創)이라는 사실에서 이를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그런데 신라 조정에서는 신무왕(神武王)이 장보고 군대를 빌려 민애왕(閔哀王)을 몰아내던 때(839) 민애왕의 대장군이 되어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대구

에서 장보고 군대를 맞아 싸우다 패배하여 소백산으로 피신 은거하고 있던 김흔(金昕, 803~849)이 조정으로 다시 나온다. 그리고 신라 왕경 귀족의 후예로 김흔과 깊은 인연이 있는 낭혜(朗慧)화상 무염을 내포 최남단인 남포(藍浦) 성주산(聖住山)으로 보내어 가장 먼저 남종선문(南宗禪門)을 개설하여 혁신이념이 반신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대증 초년 즉 문성왕 9년(847)의 일이었다.

이에 보조선사는 아무래도 청해진이 설치되어 있던 무주 쪽 인심을 무마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었던지 현안왕 3년(859)에 광주 황학난야(黃鶴蘭若)로 거처를 옮긴다. 그러자 신라 조정에서는 선사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가지산사(迦智山寺; 이 역시 갯산 절의 한자식 표기이니 가야산 절 즉伽倻寺와 같은 의미이다.)로 이주(移住)할 것을 청한다.

그래서 현안왕 4년(860) 57세 때 가지산사로 옮겨가서 이곳을 가지산 보림사(寶林寺)로 표방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선문(禪門)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한다. 그래서 내포 출신 인물인 보조선사의 탐비가 바로 이곳 가지산 보림사에 세워져 지금까지 전해져 오

고 있다.

한편 내포의 남쪽 끝에 해당하는 성주산(聖住山)에 성주산문(聖住山門)을 개창한 낭혜화상은 태종 무열왕의 8대손에 해당하는 왕손이었다. 진골 귀족으로 대대로 출장입상(出將入相)하였으나 그 부친인 범청(範淸)에 이르러서 6두품으로 떨어졌다 한다.

『최문창후전집(崔文昌侯全集)』 주석에서 그가 만년에 검술을 좋아하였었는데 헌장(憲章, 金憲昌 혹은 憲貞, 명주군왕(冥州郡王) 김주원(金周元)의 장자로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821년 웅천주 도독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822년 伏誅되었다.) 공이 모반하였다가 복주되는 것을 보고 출가하여 승려가 되니 조정에서는 골품대덕(骨品大德)이라는 호를 내리고 한주승통(漢州僧統)을 맡겼다 하였다.

그러니 김범청은 아마 무열왕 후손으로 김현창과 가까운 일가이었던 듯하다. 그래서 낭혜화상도 김현창이 복주되자 그 해에 중국 유학길을 택하게 되고 같은 무열왕 후손인 김흔이 정조사(正朝使)로 가면서 이를 그 배에 태워 데리고 갔었던 듯하다.

김현창이 주살될 때 친척 부하 239명도 함께 사형되었다 하니 낭혜화상

부자도 겨우 거기서 모면한 일가인 듯 하며, 김흔이 대왕자(代王子)가 되어 숙위왕자(宿衛王子) 겸 정조사로 당나라에 가기를 자원한 것도 김현창의 난과 연관 있는 듯하다.

김흔이 당은포(唐恩浦; 지금의 경기도 남양)에서 배를 타는 것과 그곳에서 낭혜화상을 동승시키는 것 및 범청이 승려가 되어 한주승통이 되는 것을 연결시켜 생각하면 낭혜화상 일가의 수봉지가 현재 서울 일대인 한산주(漢山州)이었던 것 같다.

어떻든 낭혜화상은 23세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강서(江西) 도일(道一, 709~788)의 제자인 마곡(麻谷) 보철(寶徹)로부터 남종선의 인가를 받아 남종선맥을 이어 온다. 강서 도일은 속성이 마(馬)씨 라서 마조(馬祖) 도일로도 널리 불려지고 있었다.

일찍이 남종선의 시조인 육조(六祖) 혜능(慧能, 638~713)선사가 제자인 남악(南岳) 회양(懷讓, 677~744)선사에게 [네 문하에서 망아지(馬駒)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이다.] 하였다 한다. 우리나라 선사들이 특히 그의 법맥을 많이 이어 와서, [법수(法水)가 동류(東流)하리라.]는 육조대사의 다른 예언과 함께 모두 이를 적중

시킨다. 낭혜화상도 마조 도일의 법맥을 이어 와서 그 예언을 적중시키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가지산문의 시조인 도의선사 역시 마조 도일의 제자인 서당(西堂) 지장(智藏, 735~814)선사에게서 인가를 받고 돌아왔었으므로 법맥으로 따지면 도의선사와 낭혜화상은 사촌 형제간이 되는 법형제이다. 그러나 도의선사는 낭혜화상이 출생하기도 전인 선덕왕 5년(784)에 당나라에 건너가서 낭혜화상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해인 헌덕왕 13년(821)에 귀국한 할아버지 뻘의 대선배이었다.

그러니 도의선사가 초조가 되는 가지산문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설된 남종선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 후원세력이 미미하여 산문설립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낭혜화상은 문성왕 7년(845)에 귀국하여 왕경으로 가서 모친을 찾아 뵙고 머물만한 곳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장보고가 문성왕 8년(846)에 반란에 실패하고 피살된다. 이에 민애왕 2년(839)에 장보고 군대를 막다가 실패하여 소백산으로 피신하여 은둔해 있던 김흔이



성주사지

비로소 금고(禁錮)가 풀리게 되었으므로 낭혜화상은 김흔을 만나 거처를 의논하게 되었던 듯하다.

그러자 장보고난의 평정에 따른 서남해안의 민심 수습이 시급한 때인지라 김흔은 낭혜화상을 내포 남쪽에 있는 자신의 수봉지(受封地)인 남포 성주산의 성주사에 주석시켜 일문(一門)을 개설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운다.

김흔은 일찍이 헌덕왕 14년(822)에 숙위왕자(宿衛王子)가 되어 당나라 조정에 가서 여러 해 동안 숙위하고 돌아왔으므로 남종선이 어떻게 민심을 수습할 능력이 있는 지를 대강 짐작하

는 터이라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그를 백의재상(白衣宰相)이라 하였던 모양이다.

이런 연유로 혁신 이념인 남종선이 신라 조정의 후원 아래 최초로 내포 남쪽 성주산에 뿌리를 내려 성주산문(聖住山門)을 개설하게 되었다. 대중(大中) 초년 즉 문성왕 9년(847)의 일이었음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내포지방에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최초의 선문이 조정의 후원 아래 개설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선문(禪門)의 효시(嚆矢)도 내포 지방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이보다 10여 년 앞서 홍척(洪陟)선사가

홍덕왕(826~836)의 귀의를 받아 지리산 기슭에 실상사(實相寺)를 짓고 실상산문을 개설했다고 하나 그 경위에 대한 기록은 분명치 않다.

내포지역의 지성사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 머리말

내포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개펄과 평야가 발달하여 경제적 여건이 좋고 서울과 가까우며 중국과 내통하여 일찍부터 선진지역으로서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그리하여 고려말의 성리학 수용에 앞장섰고 조선후기에 실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으며 천주교가 널리 유포되기도 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도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포지방의 학

문활동과 정치활동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활동이 개인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2. 내포의 자연환경

내포(內浦)는 “안 개”라고도 하는데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파고든 후미진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가야산(伽倻山)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도의 서북지역을 지칭한다.¹⁾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 팔도총론(八道總論)에서는 내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쯤에 가야산(伽倻山)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의 바닷가 고을과 큰 못(大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곧 서해(西海)가 쏙 들어온 곳(斗入處)이다. 동쪽은 큰 들판(大野)이고, 들 가운데에는 또 큰 개(大浦)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유궁진(由宮津)으로,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1) 任先彬, 〈조선후기 내포지방의 역사지리적 성격〉(『百濟文化』 29, 2000, 12)

배를 이용할 수 없다. 남쪽으로 오서산에 막혀있는데 가야산으로부터 온 맥으로, 단지 동남쪽으로 공주(公州)와 통한다.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함께 내포라 한다. 지세(地勢)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壬辰)과 병자(丙子)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士大夫) 집이 많다. 그러나 바다 가까운 곳에 학질과 염병이 많다. 산천이 비록 평평하고 넓으나 수려한 맛이 적고, 구릉(丘陵)과 원습(原濕)이 비록 아름답고 고우나 천석(泉石)의 기이한 경치는 모자라다. 그 중에서 보령(保寧)의 산천이 가장 아름답다. 고을 서편에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이 있고 그 안에 영보정이 있다. 호수와 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활짝 트여서 명승지라 칭한다. 북쪽에는 결성(結成)·해미(海美)가 있고, 서쪽에는 큰 개(大浦) 너머로 안면도(安眠島)가 있다. 3읍은 가야산의 서쪽에 위치한다. 도 북쪽에는 태안(泰安)과 서산(瑞山)이 있다. 강

화(江華)와 남북으로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서산 동쪽은 면천(沔川)과 당진(唐津)이며, 동쪽으로 큰 개(大浦)를 건너면 아산(牙山)이다. 북쪽으로 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경기의 남양(南陽) 및 화랑과 비스듬히 마주하고 있다. 이 4읍은 가야산의 북쪽에 위치한다. 가야산의 동쪽은 홍주(洪州)와 덕산(德山)이다. 모두 유궁진(由宮津)의 서쪽에 있는데, 개(浦) 동쪽의 예산(禮山) 신창(新昌)과 더불어 뱃길로 한양(漢陽)으로 통한다. 대흥(大興)은 곧 백제의 임존성(任存城)이다. 이 11고을은 모두 오서산의 북쪽에 있다.”

이 글에 의하면 내포의 중심지는 가야산이고, 가야산 앞뒤의 10고을을 내포라 했다. 즉 가야산의 서쪽에 보령 결성 해미의 3고을이 있고, 북쪽에 해안 서산 면천 당진의 4고을이, 동쪽에 홍주 덕산 예산 신창의 4고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가야산 앞 뒤 10고을을 내포라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11고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10여 고을쯤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

고 내포의 포(浦)는 유궁진(由宮津)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최남선(崔南善)도 “내포라 함은 충청도 서남우(西南隅)의 가야산맥을 환요(環繞)하여 있는 여러 고을을 지방 삽교천(插橋川)의 상류, 유궁진의 안쪽에 있다 해서 이르는 말”이라 했다.³⁾ 일본사람들은 금강(錦江)유역을 내포지방이라 했지만,⁴⁾ 이는 잘못된 서술이다.⁵⁾

내포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 물이 역류하여 많은 포구(浦口)가 발달되었다. 따라서 해운(海運)에 편리하여 일찍부터 조운로(漕運路)가 발달했다. 전라도 법성창(法成倉)에서 출발한 조운선(漕運船)이 보령 앞 바다를 거쳐 태안의 안흥량(安興梁)과 당진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안흥량은 암초가 많고 조류(潮流)가 빨라 선박의 통행이 어려웠다. 그리하여 배가 전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려 1134년(인종 12)과 1391년(공양왕 3)에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에 조거(漕渠)를 뚫으려다가 실패했다. 중종조(中宗朝)에는 의항운하가 굴착되어 일시 사용되기도 했다. 인조조(仁祖朝)에도 안면곶을 뚫어 안면도를

2)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忠清道

3)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地理·制度篇 第二 人文類 內浦와 維麻

4) 野口湜興, 『續帝國大地誌』 韓國·南滿洲篇 錦江

5) 盧道陽 〈內浦文化圈의 喚起〉 『內浦文化情報』 장간호, 1999. 7. 4, 內浦文化院) 8~11면.

섬으로 만들면서 백사수도(白砂水道)를 완성하기도 했다. 그 결과 안면도의 내해에서 직접 배가 서해로 나갈 수 있어서 200여리를 도는 뱃길을 단축할 수 있었다.⁶⁾ 반면에 육로 교통은 금북산맥(錦北山脈)에 막혀 주요 역로(驛路)에서 빗겨나 있었다. 그러나 가야산을 제외하고는 높은 산이 없어 외지기는 하지만 육로교통도 그리 불편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해로 육로의 교통이 편리하여 서울로 가기가 쉬워 서울의 사대부들이 많이 옮겨 살았다. 또한 농업과 어업이 발달하고 서해로 중국과 직통할 수 있어서 명문(名門) 거족(巨族)들이 누대로 많이 살았다. 그리고 선진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선진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출중한 사상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

3. 성리학(性理學)의 수용과 내포

고려말에 내포의 지식인들은 성리학 수용에 앞장섰다. 그 중에서 성리학을 처음으로 연구 보급한 백이정(白頤正)의 묘소는 보령군 우천면 평리 양각산(羊角山)에 있으며 그곳에 그를 모신

신안사(新安祠)와 그의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안향(安尙)이지만 원나라에 10년간 있으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와 이를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백이정이다. 그리고 백이정의 뒤를 이어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곡(李穀)·이색(李穡)부자를 비롯한 한산이씨(韓山李氏)가문이다.

이곡(1298~1351)은 1317년(충숙왕 4)에 거자시(擧子試)에 합격한 뒤 1332년(충숙왕 복위 1) 원나라의 정동행성(征東行省)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한림국사원 검열관(翰林國史院檢閱官)이 되어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그 뒤 귀국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졌으며 이제현(李齊賢)·민지(閔漬) 등이 편찬한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중수하고, 충열·충선·충숙의 삼조실록(三朝實錄)을 편찬했으며 다시 원나라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수했다.

그의 본관(本官)은 한산(韓山)이며 한산 문헌서원(文獻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저서로는 『가정집』(稼定集) 4책 20

권이 있다. 안향 백이정이 들여온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앞장선 성리학의 이해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이색(1328~1396)은 이곡의 아들이요, 백이정의 제자인 이제현의 제자로서 역시 1352년(공민왕 1) 원나라 정동행성 향시에 1등, 1354년(공민왕 3) 제과(制科)에 1등으로 합격하여 그곳에서 벼슬살이도 하고 성리학을 공부했다. 귀국한 이후에는 1363년(공민왕 12)에 정동행성 유학제거(征東行省 儒學提舉)로서, 1367년(공민왕 16)에는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로서 성균관 겸대사성(成均館兼大司成)을 겸직하여 성균관 중흥에 앞장섰고,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당시 김구용(金九容)·정몽주(鄭夢周)·이승인(李崇仁) 등은 겸교관(兼敎官)으로서 이색을 도왔다. 그리하여 1373년(공민왕 22)에는 한산군(韓山君)에 피봉되었다.

그러나 1389(우왕 14) 위화도회군 이후로 이성계(李成桂)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민수(曹敏修)와 함께 창왕(昌王)을 옹립했다가 이성계 일파에게 밀려 여러 차례 귀양을 갔다. 1395년(태조 4)에 한산백(韓山伯)에 피봉되었으나, 이듬해

6) 任先彬, 앞의 논문, 162~163면.

여강(驪江)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 이색은 불교는 본래 좋은 것이지만 승려들이 타락하여 피해가 심하니 불교적 윤리관을 유교적 윤리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온건한 개혁을 주장했다. 도첩제(度牒制)를 강화하고 성균관을 부흥시키려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정몽주 이승인 박상충 정도전 권근 등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나 이성계를 추종하는 정도전과 그를 따르는 기타 제자들의 대립으로 말년을 불우하게 보냈다. 저서로는 『목은집(牧隱集)』, 『목은문고(牧隱文集)』, 『목은시고(牧隱詩

稿)』 등이 있으며, 묘는 서천 죽혼리에 있고 서천군 한산의 문헌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이종덕(李種德) 이종학(李種學)은 그의 아들이다. 이종학은 정도전이 손흥종(孫興宗)을 시켜 이승인(李崇仁)과 함께 살해했다.

이색의 후손으로는 이자(李紱) 이개(李

垔) 이지함(李之函) 등이 있다.

이개(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이종선(李種善)의 손자이며 이계주(李季疇)의 아들이다. 사육신(死六臣)의 한 사람으로 1436년(세종 18)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441년(세종 23)에 집현전(集賢殿) 저작랑(著作郎)이 되어 『명황계감(明皇誠鑑)』의 편찬에 참여하고, 1444년



(세종 26) 집현전 부수찬으로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제정에 참여하여 『운회(韻會)』를 언문으로 번역했으며, 1447년(세종 29) 9월에는 『동국정운(東國正韻)』 편찬에 참여했다. 1450년(문종 즉위년) 문종이 어린 왕세자를 부탁하고 승하하자 1456년(세조 2) 노산군(魯山君) 복위 운동을 벌이다가 죽임을 당했다. 1691년(숙종 17)에 와서 그를 비롯한 사육신의 관직이 복구되고 사육신이 공인되었다. 노량진의 민절서원(愍節書院), 충주의 노운서원(魯雲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이자(1466~1524)는 대사간 이예견(李禮堅)의 아들로 1501년(연산군 7)에 진사시에, 1504년(연산군 10)에 식년문과에 장원하여 중종반정 이후에 벼슬살이를 했다. 그는 훈구파와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과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여기에 연좌되어 파직되어 음성 충주 등지에 은거했다. 『기묘명현록(己卯名賢錄)』에 올랐고 저서로는 『음애일기(陰崖日記)』 『음애집(陰崖集)』이 있으며 충주의 팔봉서원(八奉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며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독신했다.

4. 기호유학의 흐름과 내포

기호 유학은 화담계열(花潭系列)이 중심이었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은 무인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 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 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이중 내포지방에 살던 인물로는 이지함(李之函) 서기(徐起) 홍가신(洪可臣) 등이 있다.

이지함(1517~1578)은 한산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이지함은 화담의 영향을 받아 유학사상뿐 아니라 도가사상, 산수학(象數學)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상공업도 중시했다. 천문 지리 의학 복서 산수 등에 두루 능통한 박학풍(博學風)의 인물이다.

그는 1573년(선조 6)에 조식의 문하인 정인홍(鄭仁弘)과 최영경(崔永慶), 이황의 문인인 조목(趙穆) 김천일(金千鎰) 등과 함께 천거되었다. 청하현감을 거쳐 1578년에는 아산현감으로 재임하면서 노약자와 절인을 구호하기도 했다. 그에 관한 기사는 17세기 문헌인 『어우야담(於于野談)』 『기옹만필(奇翁漫筆)』 『죽창한야화(竹窓閑野話)』 등에 많이 나타난다. 그는 정통성리학자들과는 달리 의

(義)와 이(利)를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여 상업과 수공업을 중시했다. 이러한 학풍은 그의 조카인 이산해(李山海)와 유몽인(柳蒙仁) 김신국(金愼國) 등 북인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광해군대의 북인정권은 화담계열과 남명계열(南冥系列)의 연립정권이었다. 따라서 이지함의 사상은 북인정권에 그 일부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기(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서 화담문하에 출입했다고 한다. 그는 만년에 공주의 공암에 살다가 그곳에서 묻혔으나,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으며 선기옥형(璇璣玉衡)을 제작했고, 조헌(趙憲)등과 함께 동방분야도(東方分野圖)를 고쳤다고 한다.



동방분야도는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독자적인 천문체계였다. 그는 서자인 박지화(朴枝華)와도 친했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선조인 이지완(李志完)·이지안(李志安)등도 박지화의 제자이다.

홍가신(1541~1615)은 화담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이다. 한백겸(韓白謙)·윤효전(尹孝全~尹頊의 아버지)·홍이상(洪履祥) 등도 민순의 제자이다. 홍가신은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 바 있다.

이와 같은 화담학파는 광해군의 폐출로 북인정권이 무너지자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기호학파는 율곡(栗谷) 이이(李珥)를 정점으로 하는 서인계열의 학파가 급조되게 되었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부자의 예학파가 등장하여 율곡을 스승으로 모시고 송시열(宋詩烈)·송준길(宋俊吉) 이유태(李惟泰) 윤선거(尹宣舉) 유계(俞棨) 등 우수한 제자들을 거느려 새로운 학통을 정립한 것이다. 그리하여 영남(嶺南)의 퇴계학파(退溪學派)와 양대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더구나 서인학통은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고, 퇴계의 남인학통은 연립정권의 형태로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인정권을 구성하던 기호의 화담학파와 영남의 남명

학파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설 논쟁도 이 두 학파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으며 율곡학과 내에서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낙론(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호론(湖論)으로 갈리게 되었다.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이 그것이다. 퇴계·율곡 학파의 논쟁점은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이었는데 비하여 낙론과 호론의 논쟁점은 인물성동이론이었다. 율곡의 주기론(主氣論)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호락시비(湖洛是非)가 터진 것이다. 율곡은 4단 7정(四端七情)에 있어서는 이발(理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심(人心) 도심(道心)에 있어서는 이발(理發)을 인정하고 있었다. 즉 형기지사(形氣之私)가 발한 것은 인심, 성명지정(性命之正)에서 발한 것은 도심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 가운데 필경 두 가지 지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암(尤菴) 송시열(宋詩烈)의 수제자인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는 인심생어형기지사(人心生於形氣之私)라 할 때 기(氣)는 이목구비(耳目口鼻)를 가리킨 말이며, 칠정발어기(七情發於氣)라 할 때 기(氣)는 심(心)을 가리킨 말이라 했다. 이점은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등 호론(湖論)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낙론(洛論)의 외암(巍巖) 이간(李柬)은 일체의 만물이 천부의 본성(本性)은 같으나 인물성(人物性)의 차이는 기질(氣質)에서 생기는 것일 뿐이라 했다. 반면에 남당 한원진은 스승의 학설을 따라 성(性)을 단순한 이(理)로 보지 않고 이(理)가 일정한 기(氣)로 배정되어 나올 때 상이한 만물로 된다고 한다. 예컨대 사람은 사람의 이기배합(理氣配合)이 있고 소는 소의 일정한 이기배합이 있는데, 사람이 만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배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를 낙론이라 하고 후자를 호론이라 한다. 외암의 학설을 따르는 학자들은 서울 인근에, 남당과 동조자들은 호서 지방에 살았기 때문이다. 남당은 율곡 우암 수암의 주기론(主氣論)을 집대성했다. 남당의 심즉기설(心卽氣說)은 실로 퇴계의 심즉리설(心卽理說)에 맞서는 것이었다.

호론을 따르는 사람은 예산의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매봉(梅峯) 최징후(崔徵后), 서산의 한간(寒澗) 김한록(金漢祿),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등이 있다.

낙론을 따르는 사람은 외암 이간을 비

롯하여 도암(陶菴) 이재(李穡), 박필주(朴弼周), 어유봉(魚有鳳), 관봉(冠奉) 현상벽(玄尙壁) 등이 있다. 뒤에 안동 김씨의 김원행(金元行), 김조순(金祖淳) 등이 정권을 잡아 낙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남당 한원진(1682~1751)은 세종 때의 영의정 한상경(韓尙敬)의 후손으로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인 수암 권상하의 제자이다. 그는 이이(李珥)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바탕으로 인물성동이론 논쟁에서는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는 인물성이론을 주장했다. 그의 심성설(心性說)은 우주만물의 생성구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주에는 양건(陽健)한 기(氣)로서 남성적인 것이 되고, 음순(陰順)한 기(氣)로서 여성적인 것이 되는 기화(氣化)의 단계, 음양(陰陽)의 기(氣)가 모여 만물의 형체를 이루는 형화(形化)의 단계가 존재하며, 형화를 통해 형성된 형체의 내부에도 기화(氣化)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처럼 만물의 생성을 기화, 형화, 형화속의 기화의 3층의 구조로 파악하여 성삼층설(性三層說)을 주장했다. 그는 이 성삼층설에 입각하여 성(性)을 인간과 사물이 같은 초형기(超形氣)의 성, 인간과 사물이 다른 인기질(因氣質)의 성, 인간과 인간이 서로 다른 잡기질(雜氣質)의 성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성

(性)은 이(理)가 기질(氣質) 속에 내재된 뒤 운위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율곡의 생각을 계승하여, 인성과 물성은 기질을 관련시키게 되는 인기질(因氣質)의 차원에서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는 인성과 물성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미발심체(未發心體) 논쟁에서도 그는 미발(未發)의 심체(心體)를 본래부터 선(善)하다는 이간(李東)의 주장과는 달리 미발한 심체에도 선악(善惡)의 가능성이 공재(共在)한다는 미발심체 유선악설(未發心體 有善惡說)을 주장했다.

한원진은 충청도 결성(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에 살았기 때문에 이를 호론(湖論) 또는 호학(湖學)이라 한다. 저서로는 『역학문답(易學問答)』·『역학계몽(易學啓蒙)』·『거관록(居官錄)』·『문왕역석의(文王易釋義)』·『주자언론동이고(朱子言論同異故)』·『남당집(南塘集)』 38권·『임시취고(臨時取考)』·『경의기문록(經義記問錄)』·『퇴계집소석(退溪集疏釋)』·『의례경전통해보(儀禮經傳通解補)』·『장자변해(莊子辨解)』·『선학통변(禪學通辯)』·『왕양명집변(王陽明集辨)』·『심경부주차기(心經附註割記)』·『춘추별전(春秋別傳)』·『근사록주설(近思錄註說)』·『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가례소의의록(家禮疏擬疑錄)』·『가례

원류의록(家禮源流疑錄)』·『고사편람(古事便覽)』 등이 있다.

이중 『경의기문록』과 『주자언론동이고』를 제외한 저서는 김천 직지사(直指寺)에 판본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퇴계학설에 위배된다 하여 어사(御史) 김정희(金正喜)의 방화로 없어졌다. 1741년(영조 17)에 마친 『주자언론동이고』는 우암 송시열이 시작하여 그의 스승인 수암 권상하를 거쳐 50년만에 완성한 저작이다. 율곡 이이가 기(氣)는 발(發)해도 이(理)는 발(發)하지 않는다 했으나, 주자가 사단(四端)은 이지발(理之發)이요 칠정(七情)은 기지발(氣之發)이라 한 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주자의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삽입한 것이라는 것을 주자의 모든 저작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외암 이간(1677~1727)은 수암 권상하의 제자 중 강문 8학사(江門八學士: 韓元震·李柬·尹鳳九·崔徵后·蔡之洪·李根·玄尙壁·成萬徵)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 같이 오상(五常)을 가진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고 미발(未發)한 마음의 본체는 기질의 선악이 없으므로 본래선(本來善)이라는 미발심체본선론(未發心體本善論)을 주장했다. 이간은 충청도 온양에 살았지만 그의 추종자들

이 경기도에 살았기 때문에 이를 낙론(洛論) 또는 낙학(洛學)이라 한다.

이간과 한원진은 다같이 기호학과이므로 율곡의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신봉했다. 이통기국설은 주자의 이동기이설(理同氣異說)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통(理通)이란 이(理)는 인(人)과 물(物)에 공통적 보편적이어서 동일하게 작용하고 기국(氣局)의 기(氣)는 인(人)과 물(物)에 국한적 특수적이어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간은 주리적(主理的) 입장에서 이통(理通)과 이동(理同)을 내세움으로서 인성과 물성을 구동(俱同)한 것으로 보아 다같이 오상(五常)을 가진다는 동시오상(同時五常)의 논리를 세웠다. 이에 대하여 한원진은 주기적(主氣的) 입장에서 기국(氣局)과 기이(氣異)를 강조함으로써 인성과 물성을 상이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기질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했다. 이간은 성(性)은 곧 이(理)이므로 인성과 물성은 모두 이(理)로서의 태극(太極), 천명(天命)의 원형이 정(元亨利貞) 사덕(四德)을 본성으로 품수하여 오상(五常)의 본연(本然)을 구유(俱有)하므로 그들 본성은 이통(理通)으로 동시오상(同時五常)이다. 인성과 물성이 상이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다만 기질의 국한성에서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人)과 물의 본성, 즉 본

연지성(本然之性)은 동시오상(同時五常)으로서 모두 같고, 또 사람의 미발심체(未發心體)는 본선(本善)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원진은 인성과 물성을 각기 그 기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상이한 것이며, 그 기질지성(氣質之性)이 각기 인(人)과 물(物)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이라 하여 인물의 본성 즉 기질지성이 인(人)과 물(物)의 본성, 즉 기질지성인 인기(因氣)로서 상이한 것이고, 따라서 사람의 미발심체도 기질지성으로서 선(善)과 악(惡)이 함께 있다는 유선악론(有善惡論)을 주장했다.

이간은 온양의 외암서원(巍巖書院)에 배향되었다. 호락시비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귀결을 보지 못했으나, 처음에는 호론이 우세하다가 뒤에는 낙론이 우세하게 되었다. 안동김씨 세도정치의 주역들이 낙론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 호락시비는 결국 정치적으로 송시열의 북벌론(北伐論)을 지지하느냐, 북학론(北學論)을 지지하느냐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청나라를 오랑캐(禽獸)로 볼 것이냐, 선진국으로 볼 것이냐는 차이이다.

인물성동이론에 끼지 않은 유명한 학자 정치인도 많다. 이산해(李山海) 박지계(朴知誠) 김홍욱(金弘郁) 권시(權魅) 조익(趙翼) 조헌(趙憲) 이안눌(李安訥) 조극선(趙克善) 남구만(南九萬) 채제공

(蔡濟恭) 등이 그들이다.

이산해(1539~1609)는 한산이씨로 내자시정(內資寺正) 이지번(李之蕃)의 아들이며 화담의 제자인 이지함(李之蘭)에게서 배웠다. 그는 1558년(명종 13)에 진사, 1561년(명종 16)에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대북(大北)의 영수로서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홍여순(洪汝諄)과 함께 북인정권을 이끌어갔으며 영의정을 지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문장 8가(文章八家)의 한사람으로서 서화(書畵)에 뛰어나 조광조 묘비(趙光祖 墓碑)와 이언적 묘비(李彦迪 墓碑)를 썼다. 저서로는 아계집(鵝溪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있다.

박지계(1573~1635)는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숭(追崇)하는데 앞장선 이론가이다. 인조 초 김장생(金長生)·장현광(張顯光)과 함께 조정에 정소된 3대 산림(山林)이었으며, 예학에 뛰어난 학자였다.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신창(新昌) 사람이다.

김홍욱(1602~1654)은 경주김씨로 정조대의 벽파(辟派)인 김구주(金龜柱)의 조상으로, 효종 때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부인 강빈(姜嬪)의 원통함을 논하였다가 죽임을 당했다. 후에 신원되어 서

산의 성암서원(聖巖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서산(瑞山) 사람이다.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그의 묘소가 있다.

권시(1604~1672)는 원래 서인이면서 기해예송(己亥禮訟)에서 남인인 허목(許穆)과 윤선도(尹善道)의 예론(禮論-三年說)을 지지한 이론가로서, 그의 후손들은 남인이 되었다. 원래 박지계의 문인으로 24세에 공주로 이주하기 전에는 대안에서 살았다.

조익(1579~1655)은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趙光祖) 김공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이언적(李彦迪)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고, 김육(金堉)이 대동법(大同法)을 실시 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다. 저서로는 『곤지록(困知錄)』 『역상개략(曆象概略)』 『중용주해(中庸註解)』 『대학주해(大學註解)』 『서경천설(書經箋說)』 등이 있으며 묘는 대흥(大興) 동화산(東華山) 아래(예산군 신양면 백석리)에 있다. 광주(廣州)의 명고서원(明阜書院), 개성(開城)의 숭양서원(崇陽書院), 신창(新昌)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예학(禮學) 경학(經學) 병법(兵法) 복술(卜術)에 밝았으며, 장유

(張維) 최명길(崔鳴吉) 이시백(李時白)과 함께 사우지정(四友之情)이라 할만큼 서로 친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이안눌(1571~1637)은 덕수이씨(德水李氏)로 이행(李待)의 증손이며, 이식(李植)의 종숙(從叔)이다. 권필(權弼) 윤근수(尹根壽) 이호민(李好民)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다. 정철(鄭澈)의 사미인곡(思美人曲)을 듣고 지은 문가(聞歌)가 특히 유명하다. 홍주목사(洪州牧使) 담양부사(潭陽府使)와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냈으며, 담양(潭陽)의 구산서원(舊山書院), 면천(沔川)의 향사(鄉祠)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저서로는 『동악집(東岳集)』 26권이 있다. 묘소가 당진군 정미면 사관리에 있다.

조극선(1595~1658)은 한양조씨로 박지계(朴知誡)와 조익(趙翼)의 문인이며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다. 온양군수(溫陽郡守) 면천군수(沔川郡守)를 지냈으며 신창(新昌)의 도산서원(道山書院), 덕산(德山)의 회암서원(晦菴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야곡집(冶谷集)』 10권과 『야곡삼관기(冶谷三官記)』가 있으며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1600년경에 덕산에 입향하여 한양조씨 세거지를 마련하였으며, 묘비가 남아 있다.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結成)에 우거(寓居)했다.

채제공(1720~1799)은 홍주(洪州)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이다.

5. 내포의 실학자들과 근대화

내포에는 성호학통(星湖學統)의 실학자들이 많이 살았다. 여주이씨인 이병휴(李秉休) 이용휴(李用休) 이삼환(李三煥) 이철환(李喆煥) 이가환(李家煥) 이재위(李載威) 등이 그들이다.⁷⁾

이병휴(1710~1777)는 성호의 조카이며 고제(高弟)로서 성호좌파(星湖左派)의 수장이다. 그 문하에서 권철신(權哲身) 권일신(權日身) 등 천주교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경학(經學)에 밝았으며 성호의 가장(家狀)을 썼다. 저서로는 『정산유고(貞山遺

7) 내포의 실학자에 대해서는 李佑成, <내포지역의 실학자>, 『내포문화정보』 창간호(1997.4., 내포문화연구원), 44~51면 참조.

8) 丁若鏞, 『與猶堂全書』 권15

稿)』가 있다.

이용후(1708~1782)는 덕산현 장천리에서 태어나 외가인 덕산현 염곡에서 자라났다. 재야학자로서 문학(文學)에 밝았으며 음운학(音韻學) 병학(兵學) 농학(農學)에도 두루 달통했다. 정약용은 “그는 일찍부터 과거를 포기하고 오로지 학문에 뜻을 두었으므로, 그의 문장이 기이하고 새롭고 공교로와 영조 말년 정에는 그의 문명(文名)이 일세의 으뜸이었으며, 당시 문인들 중에 새로운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사수(師受)했으므로 그는 비록 한갓 선비의 신분에 불과했으나 문권(文權)을 잡은지 30여년이나 되었다. 이것은 종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평했다.⁸⁾

그는 또한 “문장(文章)과 정사(政事)는 처음부터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다. (중략) 문장은 반드시 나라를 빛내고 민중을 잘 다스리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여 실용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그의 실학은 아들인 이가환(李家煥) 외손 이승훈(李承薰) 또는 이학규(李學逵) 등에게 전수되었다. 저서로는 『혜환잡저(惠寰

雜著)』 11책과 『혜환시고(惠寰詩藁)』 2책이 있다. 고덕에 살면서 뱃길로 안산(安山) 성포리(聲浦里)에 있는 스승인 성호선생과 왕래하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이가환(1742~1801)은 정조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학자관료였다. 채제공(蔡濟恭)의 후계자로 남인의 지주가 될 것으로 촉망받았으나, 정조가 죽자 천주교도로 몰려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처형되었다. 저서로는 『금대집(金帶集)』 2권과 『동비낙론(東裨洛論)』이 있다. 우리 나라 역사 풍속 인물 문학에 두루 밝았다. 역시 고덕 땅에 살았다.

이삼환(1729~1814)은 12세에 종조인 성호선생에게서 성호의 손자 이구환(李九煥)과 함께 수학했으며 부친인 이병후의 학문을 전수했다. 역시 고덕 땅에 살았다. 저서로는 『소순산방장(小盾山房藏)』 8책(5책 소실) 『소순산방급고편(小盾山房汲古編)』 『목재영언(木齋詠言)』 『금삼품(金三品)』 1권, 『장천리향약(長川里鄉約)』 1권, 『백가의(百家衣)』 1권이 있다.

이철환(1722~1779)은 성호의 종손

이고 이재위(李載威)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물보(物譜)』를 지었다. 내용을 작성한 것은 아버지 이재위이고 편찬을 정하고 책 이름을 붙인 것은 아들 이철환이었으며 이기경(李基慶)이 발문을 썼다.

이외에도 유명한 고증학자인 김정희(金正喜)도 내포사람이다.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태어났으며 지금도 고택(古宅)이 남아 있다. 그는 송학(宋學)과 한학(漢學)을 절충한 고증학(考證學)의 대가였다. 그는 특히 금석학(金石學)에 밝아 진흥왕 순수비(眞興王巡狩碑)인 북한산비(北漢山碑)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글씨에도 뛰어나 이른바 추사체(秋史體)를 개발했으며 그림도 잘 그렸다. 세한도(歲寒圖)는 그의 작품이다. 저서로서는 『추사집(秋史集)』이 있으며 이상적(李商適) 오경석(吳慶錫) 등 중인 출신 인재들과 교유하여 영향을 미쳤다. 경주김씨이며 벽파(僻派) 집안의 인물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가까웠다.

내포지방은 천주교도를 많이 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우리 나라 최초의 신

충남의 재발견

부인 김대건(金大建, 안드레아, 1822~1846)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김대건은 밋내 놀피, 즉 오늘날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태어났으며 7살 때 용인으로 이사했다. 1845년 상하이에

서 서품되었으나 천주교 박해로 순교했다. 다음은 최양업(崔陽業, 토마스, 1821~1861) 신부이다. 그는 홍주(洪州) 다랫골, 지금의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태생으로 11살 경에 서울로 이사

했다. 그는 마카오로 유학간지 15개월 만인 1883년에 병으로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내포의 사도로 널리 알려진 이존창(李存昌, 1752~1801)은 여사울, 지금의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천주신앙 공동체인 여사울 천주신앙공동체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비록 양반 출신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올라가 권일신(權日身)의 문하에 들어가 김범우(金範雨)의 지도로 천주교에 입문하고 고향에 돌아와 뒷날 내포교회로 불린 여사울 신앙공동체를 만들었다.

내포에는 근대화에 앞장섰거나 의병 활동을 한 사람도 많다.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은 충주군 조휘곡, 지금의 홍성읍 소항리 사람으로 한말에 이설 임승주 임한주 등과 함께 홍주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한원진의 남당학과 계통으로 그 절의 정신을 이어받아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외에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에 고택이 있는 이남규(李南珪, 1855~1907)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 온양 평촌에서 피살되었고, 홍성 사람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은 승려로서 3·1운동의 발기인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님의 침묵』 등 많은 시를 남겼으며 일제에 항거하여 끝까지 저항했다. 문중구(1853~1897)는 당진사람으로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심훈(沈薰, 1907~1936)도 당진 사람으로 집필할



추사 영정

동과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태안 사람인 이종일(李鍾日)은 계몽운동에, 청양 사람인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대원군을 하야시키는데 앞장섰다. 최익현은 청양의 모덕사(募德祠)에 배향되었다. 윤봉길(尹鳳吉, 1908~1932)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출생하여 많은 독립운동을 펴다가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제의 승전기념식에 폭탄을 던진 애국지사이다. 덕산에는 윤의사의 생가와 성장가, 영정이 봉안된 사당인 충의사가 있다.

6. 맺음말

이와 같이 내포사람들은 우리나라 역

사의 변혁기마다 나뉠대로의 큰 역할을 했다. 바다에 가깝고 평야가 많으며 서울과 가까울 뿐 아니라,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문물이 쉽게 흘러들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누대의 사대부 집안이 많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학계와 관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다루지는 못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여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내포지역의 민속과 삶

임동 권 (중앙대 명예교수)

1. 내포의 영역

내포지역의 문화를 논하려면 먼저 내포의 지리적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내포(內浦)란 글자의 뜻으로는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쏙 들어온 부분을 말하는바 동해안에는 내포가 없으나 서해안 즉 황해에 면한 곳에는 수심이 얕고 토양이 비옥해서 내포가 많다. 특히 충청남도 서해안에는 내포가 많다.

아산·당진·서산·홍성·보령지방의 해안에는 바다가 쏙 들어와 내포를 이루는 곳이 많고 지대가 낮아 대소의 소택(沼澤)이 많으니 합덕지(合德池)가 그 대표이다.

내포지역의 지명에 포(浦) 또는 곳(串)자가 붙은 곳이 많아 그 지역의 지형을 짐작케한다.

내포의 영역 설정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있어 학자에 따라서는 강경, 논산까지 내포에 편입하려는 이도 있다. 여기에서는 고종실록 홍주부(洪州府)에 관할 지역을 내포지역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洪城郡 結城郡 德山郡 韓山郡 舒川郡 庇仁郡 藍浦郡 保寧郡 林川郡 鴻山郡 瑞山郡 海美郡 唐津郡 泰安郡 大興郡 禮山郡 靑陽郡 新昌郡 溫陽郡 牙山郡 定山郡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에 아산군·당진군·서산군·예산군·홍성군·보령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바다에 접해 있어서 지금의 충청남도의 서북부(西北部)가 내포의 영역에 들어간다.

내포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해안성(海岸性)과 평야(平野)를 지적할 수 있다.

내포지역은 바다가 육지로 쏙 들어와 만(灣)을 이루고 육지가 바다를 향해서 돌출한 곳(串)이 많기 때문에 해안선이 길다. 해안선이 길고 평야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

의 생활이 바다와 관계되는 생업은 즉 농업, 어업, 염업, 교역 등이 있기 마련이다.

내포지역에서 원양어업은 없으나 바다의 수심이 얕아서 패류(貝類)와 새우가 많아 새우젓이 특산물로 알려져 있고,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과 가까워 교역과 인적 교류도 있었으니 당진(唐津)이란 지명이 지역의 역사성을 증명한다. 즉 바다와 관련되는 생활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내포지역은 높은 산이 적어 평야가 많고 비옥한 토양이어서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하고있다. 농경지가 많으면 부촌이 많고 따라서 사람의 살림이 넉넉하니 인심이 후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호양(互讓)의 미풍을 낳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로 어울려 공존하게 되고 협동할 수 있어 화평하니 살맛이 나는 환경이 조성된다.

내포지역이 변방 이라기 보다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평야가 많고 땅이 비옥해서 농경민족으로서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포지역은 차령산맥의 끝 부분에서 벗어난 곳으로 대산(大山)이나 고산준령(高山峻嶺)이 없다. 가야산(伽倻山) 오서산(烏棲山) 칠갑산(七甲山)의 삼산

(三山)이 있으나 그 주변은 비산비야(非山非野)여서 경작이 가능하여 생활의 터전이 되고 있다. 가야산은 서산과 예산 당진군에 걸쳐 퍼져 있어 경개도를 좋거니와 그 물줄기는 일대의 농경지를 적시고 있으며 고찰인 수덕사(修德寺)가 알려져 있고, 오서산은 보령과 부여의 접경에 위치하여 바다와 내륙을 부감할 수 있고 무량사(無量寺)가 있으며, 칠갑산은 내륙 청양군에 위치하여 차령산맥에 속하나 내포의 동쪽 한계선에 위치하여 물이 흘러 금강에 합류하는데 농경수로 공급되며, 통일신라시대의 고찰인 장곡사(長谷寺)가 있다.

이렇듯 내포의 세 산이 생활수(生活水)와 생활재(生活材)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대의 불교문화의 승지로 되어 있다.

즉 내포지방의 자연적 여건인 바다와 육지가 이 지역의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기저를 이루고 있어서 내포지역 문화는 내포지역의 자연적 여건에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2. 내포지역의 민속행사

1) 유왕산(留王山)놀이

부여 양화면(良化面)의 금강가에 유왕산(留王山)이 있고, 여기에서는 매년

음력 8월 17일에 유왕산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현지에 전승되는 전설에 의하면 백제가 패망해서 당군에게 의자왕(義慈王)을 비롯해서 고관, 장졸등 약 만 팔천여명이 끌려갔는데 배를 타고 금강을 내려가서 유왕산 밑을 통과 했다.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포로가 되어 수많은 동포가 적지에 끌려가는 것이 통탄스러워 사람들이 유왕산에 모여 통곡하며 전승했다고 한다. 왕이 이곳을 통과한 것이 8월17일이기에 해마다 이날 백성들이 유왕산에 모여 옛일을 회상하면서 망국의 설움을 달랬다는 것이다.

현지의 전승에 의하면 왕을 전승한 외에도 추석을 지나 17일에 인근 백리안의 부녀자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일가친지와 만나 환담하여 하루를 즐겼다고 하니 “반보기” 행사와 중복되어 있다.

반보기란 시집가서 출가외인이 된 딸이 친정에 근친하고 싶지만 시부모의 눈치를 살피다가 추석이 지나서 친정과 미리 통문을 해서, 친정과 시집의 중간지점인 경치 좋은 정자, 산, 개울가 등의 지점에서 상봉하는 것이다.

옛날의 가족제도에서 며느리의 친정가기란 어려웠고, 또 농경사회에 있어

서는 가사일이 바빠 한가하게 몇 일씩
친정에 가서 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집 눈치만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으로 반보기가 생겼다.

딸은 친정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어머니는 딸이 즐기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상봉하여 반나절 회포를
풀고, 담소하여 그 동안의 친정소식과
일가 친척, 이웃의 소식도 들어 궁금증
을 풀게 된다. 그러나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야 했으니 마음이 서운하고 충
분하지 못했다. 마음 반만 채운것이라
해서 반보기라 했다.

유왕산놀이는 그 기원을 백제의 패
망사와 관련시켜 기원했다고 하나 시
대가 내려옴에 따라 조선시대 농촌의
가족제도에서, 추석을 보내고 농가의
한가한 틈을 타서 모녀간의 욕구를 최
소한 충족시켜 주는 반보기와 습합 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왕산놀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일제시에는 상인들이 몰려
장이 서고 임시로 경찰관이 파견되어
질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

2) 등바루 놀이

보령군 장고도(長古島)에는 등바루놀

이가 전승되고 있는데 내포 해안과 도
서등 여러 곳에서 놀이되었다.

서해 도서민의 생활에 있어 굴은 큰
수입원이고 이곳 가정의 식탁에는 굴
로 만든 요리와 젓갈이 오르고 있다.
또 향토요리로 큰 몫을 하고 있다. 그
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한해의 풍어
를 빌고 굴을 불러들이는 행사가 있다.

대보름날 밤이 되면 마을 부녀자들
이 모여 등불을 밝히고 굴을 불러들
여 밥을 주는 시늉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굴아굴아

동해는 백석굴 이영이영 영하영
남해는 청석굴 어영소리가 하할영
북해는 북석굴 이영소리가 하할영
다른마을로 가지말고 이영이영 하할영
우리마을로 돌아와라 이영이영 하할영
엇다 좋다 다모였네 이영이영 영하영

굴의 풍작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해
의 굴을 모두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
야 굴 풍년이 된다. 간절한 어민들의
소망이다.

굴을 불러들인 다음 굴이 서식할 수
있도록 돌을 주어다 쌓아 돌방을 만들
고, 돌방에 붙어 서식하여 크게 자라면
굴 캐기를 하는데 이때 굴 캐기 노래

를 부른다.

에야루 아노야 잘도한다 잘도해
조개잡이 잘도한다 어제도 여기서 살고
내일도 여기서 사네 바삭바삭 잘도 까네
해당화는 만발하고 오늘이 등바루날
용바위 경사났네 어얼시고 좋을시고

정월 대보름은 새해를 맞아 첫 만월
이고 생산성 있는 부녀자들에 의해서
놀이되는 등바루 놀이는 풍어기원제
(豐漁祈願祭)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3) 기지시(機池市) 줄다리기

당진군 송악(松嶽)에 줄다리기가 전
하는데 기지시(機池市)줄다리기이다.

무형문화재 제75호이다. 이곳에는
옛날 직조(織造)가 성해서 실 꾸러미를
담귀두는 뜻이 있었으니 「틀무시」라
하여「틀모시」의 와전이며 한자로 쓰니
기지시(機池市)가 되었다.

송악 일대는 곡창으로 농사의 고장
이며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어업이 성
하고 갯벌이 많아 소금을 생산하는 염
전이 많다. 틀무시에서는 매년 3월에
줄 다리기를 한다. 내륙 쪽을 물 위,
바다 쪽을 물아래로 구분해서 편을 갈
라 천명을 헤아리는 많은 사람들이 참
여하여 힘을 겨룬다.



기지사 줄다리기

마을 당산(堂山)으로 국사봉(國師峯 또는 國秀峯)이 있고 여기에 국사당이 있어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으로 되어있다. 정초(正初) 상원(上元)전에 국사당제를 지냈고, 줄다리기는 원래는 윤년 3월에 했으나 근래에는 해마다 하고 있다. 당제의 근처에 있는 신암사의 주지가 와서 山王經을 독경을 하니 당제(堂祭)가 무불(巫佛)이 습합(摺合)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줄다리기의 유래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으나 이곳의 지형이 풍수설로 보아 옥녀직금형(玉女織金形)이라 짠 천을 마련할 때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므로 그 동작이 확대되어 집단이 잡아당기는 줄다리기로 발전했다는 주장과 또 일설

에는 지네형국이어서 큰 줄에 겹줄을 달아 지네 발 모양으로 만들어 줄다리를 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줄다리기는 그 결과로 농사의 풍흉(豐凶)을 미리 점치고 있어서 농사의 예축의례(豫祝儀禮)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곳에서는 동(東), 서부(西部)로 편을 가르지 않고 수상(水上) 수하(水下)로 가르는데 내륙(內陸)쪽인 수상(水上)이 이기면 농사가 풍년되고, 수하(水下)가 이기면 바다 쪽 어촌이 풍어라 전한다. 줄다리기 임원(任員)들은 엄격한 금기를 지켜야 하며 시합의 승패가 끝나면 할머니들이 칼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줄을 끊어 간다. 줄을 지붕 위에 놓아

두면 우환이 없고, 줄을 가지고 출어(出漁)를 하면 만선(滿船)을 하고, 여인이 삶아 먹으면 냉병(冷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4) 은산(恩山) 별신제

부여군 은산에는 별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은산은 백제의 도성(都城) 부여에서 불과 20리에 위치하여 부여에서 서북(西北)으로 통하는 요지였다. 백제가 패망 할 때에 현몽에 의해서 장병들의 시신을 수습해 주고 그 보답으로 돌림병을 치유하는 배경 설화가 있다.

한 해 걸러 이른 봄에 별신제를 거행하는데 물막기, 조라담그기, 지대베기,

꽃받기, 상당굿, 하당굿, 독산제, 장승 세우기까지 10 여일에 걸친 큰 향토신 제로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별신제는 역병을 예방하고 퇴치해서 향민(鄕民)들이 질병이나 재앙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신(神)께 빌고 제를 지내는 민간신앙 행사인데 별신제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제(神祭)이다.

진대배기란 부정이 없는 십리 안팎의 거리에 있는 방향의 산(山)에 가서 참나무 사본(四本)을 베서 오는데 산에서 신을 참나무에 모셔오는 셈이다. 진대는 제기동안 화주(化主)네집 뜰에 세워 두었다가 맨 마지막 날 장승을 세우고 그 옆에 꽃아 두는데 “후리채”라 부른다. 부정이나 악귀가 접근하면 이 후리채가 악귀를 구타해서 추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있다.

향민대표(鄕民代表)와 무녀(巫女)가 굿을 진행하며 화주(化主)집 출입을 금하고, 꽃 만들고, 조라술 담그는 과정에 부정을 막기위해 엄격한 금기(禁忌)가 있고, 제물 운반시에 입에 백지(白紙)를 물고 행진하며, 임원(任員)들은 내방(內房)출입을 삼가며 화주집에서 소찬만으로 밥을 먹고, 고두백배(叩頭百拜)하고 동네 세대주 모두의 소지(燒

紙)를 올리는 등 향토신제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무녀가 굿을 해서 사령기(司令旗) 위에 달아맨 방울이 울리면 강신(降神)한 것이지만 아무리 굿을 해도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부정탄 증거이므로 임원 일동은 개울에 가서 목욕제계를 해야 한다.

제단에 올렸던 지화(紙花)는 동민(洞民)과 참조자에게 나누어 주는데 집안에 걸어두면 재앙을 막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5) 황도리(黃島里) 풍어제

안면도(安眠島) 황도리(黃島里)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승된 풍어제가 있으니 풍기놀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월 보름날 당산제를 지내는데 농사가 풍년 들고, 바다에 나아가 만선을 이루도록 비는 풍어제이다. 제사 지내는 당앞에 큰 기를 세우니 풍기이다.

풍기는 긴 대나무를 여러 갈래로 쪼개서 그 가지 사이에 조화(造花)를 매단다.

풍기를 세워 풍어(豐漁)와 풍년(豐年) 들기를 빈다. 이 때에 진대도 만들어 세운다.

현지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 밤에 풍

량을 만나 바다에서 해매 때에 봉기에 불이 켜져 그 빛을 보고 귀향할 수 있었는데 그 후로 풍어제를 꼭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풍어제는 무당에 의해서 부정(不淨)을 씻어내는 굿을 하며, 농악은 굿거리를 하고 호적은 시나위를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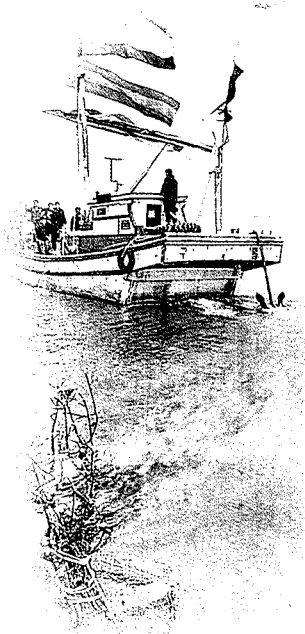
풍어제는 이름 그대로 어민들의 소원인 풍어를 비는 것으로 해안마을이나 도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민간신앙제이다.

먼저 농악대가 굿거리 장단을 치고 호적이 시나위를 불면서 당에 모이면 마을 사람들의 운집하고 분위기가 형성된다.

선주(船主)와 어부들이 봉기를 세우고 무당이 부정(不淨)굿부터 시작하여 축원을 한다.

풍어제는 신을 모셔다 제의를 올리고 신(神)을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을 봉송하는 순서인데 제의는 무당이 주재하고 선주 어민이 참여하지만 어촌에 있어서는 풍어는 생활을 보장하고, 또 바다가 일터이기 때문에 모두가 진집하고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이 때에 흥이 나서 음주가무(飲酒歌舞)하여 흥겨운 놀이판이 전개된다.



붕기풍어제

6) 동화제(洞火祭)

청양(靑陽)의 칠갑산 주변에는 장승이 많고 여러 마을에서 동화제를 올리고 있다.

장승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여러 곳의 장승들이 현대화 과정에서 소멸되고 또 새마을 운동으로 제거되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칠갑산 주변 여러 마을 입구에는 장승이 여전해서 이 지방인(地方

人)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칠갑산 장곡사(長谷寺) 앞에 장승공원이 있는 것도 그러한 신앙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새해를 맞아 상원(上元)날 달이 솟을 무렵 동화제(洞火祭)가 있다.

마을 젊은이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 논이나 밭에 높이 탑처럼 쌓는다. 마을에 따라서는 동화터가 정해져 있어서 성역으로 여기는 곳도 있다.

농악을 치고 여흥을 하는 사이에 대보름 달이 솟으면 그 앞에 제사를 차리고 이장이나 노인이 헌주하고 제를 올리며 나무탑에 불을 지른다.

그러면 불은 순식간에 타 올라 화염이 충천하고 동민들은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한쪽에서 합창하고 소원을 빌고 불을 향해서 절을 하는 부인네도 있다.

대보름 만월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즉 제화초복(除禍招福)하는 효험이 있다고 믿어 동화제를 거행하는 것이며 마을 안의 부정을 씻고 동민이 무사태평하게 살 수 있다고 믿어 전승된 제의이다.

동화제를 지낸 다음날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운다. 재앙이나 역병이나 부정이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온다고 믿어 동구(洞口) 길목에 장승을 세워두면 이러한 것을 모두 막아 차단하려는 것

이다.

탈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새해의 첫 만월에 동화제로 정화하고 장승을 세워 부정을 막아 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7) 보부상(保負商)

내포문화를 거론 할 때에 보부상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부상이 내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상권(商權)을 행사했으나 이제는 다 소멸되고 유독 내포지방에만 그 유습이 전승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부상이란 물건을 운반 할 때에 등에 짊어지거나 보로 싸서 들고 다니거나 머리 위에 얹고 가는 것을 뜻하여 소위 등짐과 봇짐장사를 말한다.

보부상제도의 역사는 조선조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에 충성한 보부상이 어, 감, 수철, 목물, 토기, 곡물, 백지의 7종 전매권을 얻어 상인조직이 되었으며 그 후 국난이 있을 때에는 장돌뱅이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적정을 정찰하고, 군량을 운반하고, 통신연락을 하는 등 평상시는 장돌뱅이 상인에 불과했으나 유사시에는 병사(兵士)가 되어 국난극

복에 기여했다. 대원군이 보부상을 규합해서 도반수가 되어 정치에 이용한 일도 있어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가 들어와 보부상 조직은 해산되었으나 상무사(商務社)로 개편되어 그 기능은 겨우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는 상거제에서 밀려나 그 유품만 남아있다.

보부상의 유품이 남아있는 곳이 예산(禮山) 덕산(德山) 임천(林川) 홍산(鴻山) 한산(韓山) 등지인 바 모두 내포권이다. 즉 내포지역에 보부상 조직이 잘 운영되어 오늘날에도 그 여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지인의 정서에 수용되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보부상 유품(遺品), 문서 중 홍산 7점, 예산, 덕산 126점, 홍성 40점, 보령 3점이 국가에서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한산모시는 그 일대 저산 8툼에서 생산되었고 상업조직도 매우 컸던 것으로 전한다.

3. 내포의 민요

내포지방은 지리적으로 경향(京鄕)과 인접하여 왕래가 잦아서 경풍(京風)과 유사한 점이 많다. 옛부터 충청도인(忠淸道人)의 기질을 청풍명월(淸風明月)이

라 하였거니와 인정이 돈후하고, 선비의 기질을 소유하고, 타협적 성격을 가졌으며, 엄한 가풍을 자랑하고, 기름진 평야지대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평온, 윤택한 생활을 하여왔다. 그들이 청풍명월인 까닭에 우유 부단한 경향도 있지만 그 반면에 강열한 의지를 관철하는 신념의 투사란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그리고 유관순 의사의 고장이 바로 이곳이란 것으로 증명된다.

민요는 향토성이 짙어 향토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좋은 방증이 될 수 있으므로, 민요 전반을 논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주제의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내포지역 향토성과 지명이 등장하는 노래만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천안 삼거리 흥
늘어진 버들은 흥
제멋에 겨워서 흥
척 늘어 졌구나 흥
에로와 좋구나 흥
성화가 났구나 흥
은하(銀河) 오작교(烏鵲橋)가 흥
다 무너졌으나 흥
간너갈 길이 막연하구나 흥
에로와 좋구나 흥
성화가 났구나 흥

계변양유(溪邊楊柳)가 흥
사사록인데 흥
그버들가지가 유색신(有色新)이로다 흥
에로와 좋구나 흥
성화가 났구나 흥

천안 삼거리의 흥타령은 너무나 유명하다. 흥겨운 가락에 유창한 가사의 맛은 언제 어디서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 감정이나 호감과 일치한다. 일설에는 이 노래가 주구자(誅求者)의 원차(怨嗟)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

온양온천 시내에는
건달만 모여들고
오서산(烏棲山) 상상봉(上上峯)에는
나무꾼만 모여든다
에헤야뉴 야뉴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천안에서 장항선을 타고 가면 머지않아 온양온천에 도착한다. 이곳은 온천인만큼 유홍도시의 분위기가 농후해서 주로 서울 등지에서 모여드는 건달 청년들이 많은데, 그들을 현지인들은 존경하거나 친밀감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백안시(白眼視)하는 것이다. 휴식이나 향락(享樂)을 모르는 농민들은 때로는 선

량한 휴양객도 건달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오서산은 광천읍의 동남방(東南方)에 자리 잡고 있어 민요에서 흔히 불리진다.

아버지 아버지 나 양산사주
온양온천 쪽다리 밑에 구경갈까

온양온천은 소비도시이며 유흥도시인 만큼 구경거리가 된다. 아버지보고 양산을 사달라 조르는 딸의 마음은 벌써 온천 기분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바위야 바위야 뜬바위야
달래야 달래야 진달래야
곰사대야 문열어라
춘향이 얼굴 다시보자.
너 죽어서 꽃이되고
나 죽어서 나비된다.
나비됐다 설어마라
꽃밭에로 날아든다.

원형을 간직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게 혼합(混合)된 노래인데 종구(終句)에서 춘향(春香)을 거론하고 변정(變情)을 노래했다. 말을 타고 수철리 고개를 넘어 간다고 했으니 『수철리』는 예산군 예산읍 북쪽 금오산 등 뒤에 있는 마을 수철리(水鐵里)를 말한다. 이곳은 사명당(四

溟堂)의 탄생지란 전설이 있는 곳으로 읍에서 가자면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신고산이 우루릉
함흥차 떠나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 보짐만 썬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난다.
뒤여라 내사랑

역나다리 우루루
화물차(貨物車)가는 소리
고무공장 큰 애기 벤도밥만 썬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난다.
뒤여라 내사랑아

이 민요는 물론 함흥(咸興)지방의 신고산타령(新高山打令)이다. 철도가 부설되고 고무공장에 출퇴근하는 여직공의 현대적 변화를 노래한 것인데, 여러지방에 전파됨에 따라 그 지방의 색채를 띠게 되는 것이다. 역나다리는 예산역(禮山驛)에서 삼교쪽을 향해 오백미터 지점에 있는 무한천교(無限川橋)를 말한다. 예산에 고무 공장은 없지만 외지(外地)의 민요를 받아들여 그 지방에 있는 지명을 노래에 도입했던 것이다.

모가지없는 잡놈이
목발없는 지계를 지고

길로길로 가다가
동전한푼을 줬었네
놓고보니 공짜요
들고보니 공짜요
올려다보니 오소산
내려다보니 광천장
광천장으로 갔더니
친구를 하나 만나서
오려송편 하나를 사놓고
너먹어라 나먹어라 하다가
지레가 늘름거려서 먹었네
국수전예를 갔더니
멀국차지는 내차지
떡전으로 가면
고물차지는 내차지

동요(童謠)의 일종인 바 종구(終句)가 불완전 하다. 『오서산』은 오서산(烏棲山)이며 『광천장』은 광천장(廣川場)인 바 광천읍(廣川邑)은 홍성군에 소재하며 시장이 번창하기로 전국에서 유명하여 어물(漁物)과 곡물의 거래가 많다. 광천 동남쪽에 있는 오서산은 산림이 울창하고 높아서 부근의 야산들에 군림하여 멀리 서해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다. 이 민요가 향토의 명산인 오서산과 그 밑에 번성한 광천시장을 중심 무대로 하였다.

에헤야 에헤야 데에야
오서산 꼭대기 쇠단풍 들었네
참나무 개상에 닭 잡고 술 먹세

참나무 개상에 보리타작 하는 것은
이곳의 탈곡 풍속이긴 하나, 단풍과 보
리타작은 계절적으로 맞지 않아서 모
순이다. 오서산은 높은 까닭에 그 단풍
은 수십리 밖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던가
시집살이 말도많고
머슴살이 일도많고
삼각산엔 돌도많고
요내가슴 수심도 많네
시아버니 체것은 호랑새요
시아머니 체것은 양양새요
서방 체것은 몽리쟁이
시누 체것은 한림새요
이웃체것은 썩당새요
비단치마 눈물받아 다씩었네
시아머니방에 들어가니
바느질대로 나를치네
내방이라고 들어가니
서방체것이 붓대로 나를치네
부엌으로 들어가니
시누체것이 불때다가

부지깅이로 나를치네
뒷간예를 들어가니
머슴체것이 똥주까래로 나를치네
동지섣달 긴긴밤에
바느질못뻔 요내팔자
삼사오륙 긴긴해에
광천독배로
시집못간 요내팔자

시집살이의 고민을 노래한 부녀요(婦
女謠)이다. 팔자타령에 있어 세 가지 원
망은 첫째, 길쌈 못배운 것 둘째, 큰글
못배운 것 셋째로, 광천 독배로 출가못
한 것을 말했다.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
해서 솜씨가 능숙치 못하고 배움이 없
는 것은 신세타령을 할 수도 있겠으나
광천 독배가 얼마나 좋기에 이곳에 시
집 못간 것을 원망했을까 하는 점이다.
독배는 광천시의 남쪽 해변으로 5리쯤
에 있는 항구(港口)이다. 광천 시장에 반
입되는 어물(漁物)들은 모두 이곳을 통
해서 들어왔으니 돈벌이가 좋았던 것 같
다. 그러나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漁業)
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생계는 그다지 운
택치 못하다. 혹시 육지 산촌 출신으로
농사일에 시달렸거나 생선에 맞들린 처
녀의 소망인지도 모르겠다.

우리집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후도뿔 대가리
실내끼 모가지
장구통 배에 공채 다리에
공주읍내로 길 감독을 갔는데
남의집 서방님은
발 이랑만 해맨다.

남의 남편은 도로 감독임을 자랑하고
있는데 나의 남편은 겨우 농사꾼임을 말
하고 있다. 그 묘사가 너무나 풍자(諷刺)
적이어서 해학요(諧謔謔)가 되었다. 공
주읍은 백제의 고도요 교육도시로 유명
하다.

다음 끝으로 충청도 장타령을 예시
한다.

경충뛰었다. 제천(堤川)장
신발이 없어서 못보고
바람이분다 청풍(靑風)장
선선해서 못보고
청주(淸州)장을 보갔드니
술이 취해서 못보고
항간장을 보갔드니
영감이 많아서 못보고
예산(禮山)장을 보갔드니
예산이 틀려서 못보고
온양(溫陽)장을 보갔드니
건달이 많아서 못보고

아산(牙山)에는 둔포(屯浦)장
큰애기 술장사 제일이라
보은(報恩)청산 대추장은
치녀장꾼이 제일이요
엄범중천에 충주(忠州)장은
황색연초 제일이요
천안(天安)이라 옛장터는
능수버들이 척 늘어졌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품바 잘한다.

장타령은 어느 지방에도 전승되어 있으며 각기 향토적 특색을 나타낸다. 그 향토의 산물(物産)이라던가 풍속(風俗)이 노래속에 반영되며 향토성을 드러낸다. 이상에서 내포지방의 민요를 일별(一瞥) 하였거니와 그러면 내포민요가 우리 민요의 전반에서 볼 때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또는 여하한 특색 내지는 타지방의 민요와 비교해서 색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도 있거니와 옛부터 충청도인을 청풍명월이라 해서 그 기질이 유순하면서 강직하고 담백하고 청아한 점에 대하여 누구나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면에 우유부단해서 과단성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민요의 지역적 특성을 말 할 때에 흔히 경풍(京風)의

우아(優雅)함과 한가한 경향요(京鄕謠), 유화(柔和)하고 구성지고 여유있는 호남요(湖南謠), 애상적(哀傷的)이며 수심(愁心)진 서도요(西道謠) 웅장하고 위압적인 영남요(嶺南謠) 등으로 평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향토인의 기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말한다. 즉 영남인을 교산태악(喬山泰岳)이라 하는 만큼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웅장하고 위압적이란 말에는 공감이가 간다.

평안도(平安道)의 청산맹호(靑山猛虎)와 황해도(黃海道)의 석전경우(石田耕牛)도 그 선천적 기질이 민요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애상적이며 수심(愁心)진 노래가 많은 것을 보면 그들의 용맹성은 민요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해서 내포의 민요가 청풍명월의 반영일 수도 있으나 서도민요의 예처럼 그와는 반대일 수도 있다.

유교가 우리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내포지방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농후하다. 민요가 미분화예술로서 무용·음악과의 관련이 불가분 한데, 이곳 내포의 민요는 무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창에 있어서는 남창은 더러 들을 수 있으나, 호남이나 서도에 비해서 여창이 많지 못하다. 그 이유는 유교적인 생활의식에 있어서 가창(歌唱), 가무(歌舞)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기에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 왔으리라 믿어진다. 유교에서는 노래나 춤같은 것은 사대부의 관여할 바 아니라고 경원(敬遠)했던 것이며, 이러한 생활관이 양반인 청풍명월의 긍지를 더욱 존대(尊大)한 것으로 만들었으니 노래를 부른다던가 춤을 춘다던가 하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 백안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포지역은 서해바다에 임해 있고 넓은 평야가 있어 농경에 알맞은 곳이다. 따라서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농요(農謠)가 많이 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홍성의 결성농요이다. 결성농요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바 있거니와 구성진 가락이 향토민요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결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수(鼓手)이며 무용가였던 한성준(韓成俊)의 출생지이고 지금도 현지에는 많은 소리꾼들이 있어 농요의 보존에 주력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소리의 고향으로서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농요 보존의 고향이란 명예를 지키고 있다.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 관광자원과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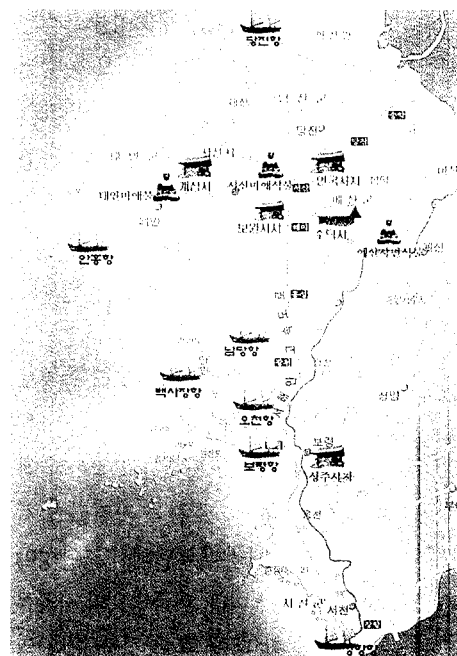
김용웅 (국토연구원 부원장)

1. 머리말

최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경제의 지구화와 기술혁신은 산업사회의 생산구조 전환과 함께 사회-경제체제의 패러다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경제의 지구화시대에는 자본·기술·노동 등 주요한 생산요소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공간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장소지향적 자원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발전은 도로, 상하수도, 항만 등 산업성장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요인이 지역의 입지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연경관,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 등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보유 여부가 지역의 입지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장과 번영을 구가하던 도시와 지역이 쇠퇴하기도 하고,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새로운 도시와 지역들이 경제발전의 선도거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선도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들은 정보와 지식의 창출과 주요한 결절지



로서의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역사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포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내포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에 뿌리를 둔 문화·관광자원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펴보고, 이들 문화·관광자원을 지역발전에 연계 활용토록 하기 위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관광산업의 증대와 관광행태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변화하는 관광행태 하에서 문화관광자원의 의의와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내포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유형화하여 밝혀 개발잠재력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내포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인자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관광산업의 성장과 관광행태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등에 따라 관광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세계여행 및 관광위원회(WTTC)에 따르면, 관광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관광산업의 연간생산액은 약 3조 5천억불로 세계 GDP의 11.7%를 차지하고, 고용비중은 8.2%, 자본투자는 11.3%를 차지하여 경제성장의 선도산업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

세계 관광산업의 증대와 함께 국제관광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관광객은 1990년 4억 5,820만인에서 1998년 6억 3,510만인으로 약 1억 8,000만인 증가하였고, 연간 국제관광수입은 2,680억불에서 4,390억불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세계 국제관광산업은 소득증대,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제관광객의 수요도 연평균 4%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억인, 그리고

2020년에는 15억 6천인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관광객은 연평균 7%씩 증가하여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국제관광객수는 1998년 세계 국제관광객의 13.6%인 8,660만인에서, 2010년에는 19.4%인 1억 9,520만인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관광산업수요의 증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WTTC의 추계에 따르면, 1999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총생산은 약 260억불로 GDP의 6.5%를 차지하고, 관광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은 115만인으로 전체고용의 5.7%, 자본투자비중은 8%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관광산업비중은 생산 측면에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과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높으며, 고용측면에서 이들 선도산업 부문의 비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다. 이는 그동안 국민국내 관광과 외래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 국내관광의 경우, 연간관광객수는 1994년 2억 6,000만인에서 1997년에는 3억 4,400만인으로 연평균 11.4%씩 증가하였

1) WTTC, Travel & tourism's Economic Impact, March 1999 (<http://www.wttc.org>)



다.²⁾ 한편 외국인 관광수요도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1992년 323만인에서 1998년 425만인으로 증가하였고, 관광외화수입은 32억 7,200만불에서 58억불로 증가하였다.

향후 관광산업수요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 자동차 보급증대 및 국내 고속간선교통망의 확대,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민 국내관광객은 2002년 연간 약 3억인/일 수준에서 2010년 5억

8,200만인/일으로 약 90%정도 증가하고, 국제관광수요도 2010년까지 약 50%의 증가가 전망된다. 이에따라 관광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성장산업으로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³⁾

이와같은 관광수요의 양적 증대와 함께 관광수요는 질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여행경험의 축적, 가치관의 다원화에 따라 관광행태는 다원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관광에서는 해수욕 등 계절형 관광, 단

순경관탐방형의 단체관광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체험과 학습을 중시하는 문화관광, 생태관광, 모험·체험관광 등 특정전문분야에 대한 개성적인 관광행태(special interest tourism:S.I.T.)가 중시되고 있다. 특히 지적 호기심의 충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가족과 소규모의 휴양관광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1997년 현재 국민국내관광 활동실태를 보면, 숙박여행의 경우 자연명승 및 풍경관광이 3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유형·오락 18.6%, 수영·해수욕 11.9%, 고적·사적지·박물관

2) 관광객 수는 그동안 IMF 경제침체로 1999년 2억 7,300만인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김덕기(2001), "내포지역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표적시장별 마케팅 전략," 충청남도·국토연구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자료집), 157-184면.

9.1%, 등산·하이킹·캠핑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1996년과 비교하면, 자연명승 및 풍경관광 등 단순경관탐방이 47.7%에서 30.8%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고적·사적지·박물관 방문이 2.8%에서 9.1%로 크게 증가하였다.⁴⁾ 이와같이 관광행태가 기존의 단순경관탐방 위주에서 벗어나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한 특정전문분야 및 문화지향적인 관광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관광객의 70% 이상이 주말 레저관광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트래킹, 승마, 산악자전거 등 체험관광과 건축·예술 및 문화재 감상 등 문화관광활동에 치중하고 있다.⁵⁾

이에따라 새로운 관광수요 및 관광행태의 변화에 부응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권 개발을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 역사, 동질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지역을 문화권으로 묶어 백제, 신라, 가야, 중원 등 문화유적지역을

정비하여 지역문화·관광기반을 조성토록 제시한 바 있다. 내포지역은 지역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나뭇대로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여 온 지역으로서, 최근의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관광행태와 관련하여 답사 및 체험관광 등 특정목적관광의 대상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3.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실태와 잠재력

1) 관광자원의 개념

관광이란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통일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이란 광의로는 통근·통학 등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여행을 의미한다. 협의의 관광은 여행거리가 최소 50마일이나 100마일이 되거나 숙박이 포함된 여행(over night travel) 또는 휴가, 여가 및 유흥을 위한 여행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을 광의로 해석하여 업무와 위락여행(pleasure travel)을 모두 포함하며, 그런 의미에서 관광(tourism)과 여

행(travel)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관광의 포괄적인 의미를 Mathieson과 Wall(1982)의 정의가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관광이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일터와 주거의 범위 밖의 목적지로의 임시적 이동과 그곳에서의 활동 및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만들어진 시설”을 의미한다.⁶⁾

관광이란 이를 제공하는 지역입장에서 보면 외부지역 사람이 일시적으로 해당지역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자원이란 지역이 지닌 모든 물적, 인적자원을 망라한다. 여기에는 교통, 숙박, 상가 등 일상적 생활환경에서부터 관광유흥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주민의 생활관습 및 태도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협의의 관광자원이란 “외부지역 사람에게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이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는 유인요소로써 지역이 지닌 유·무형 자원”을 의미한다.

2)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내포지역은 경주, 부여, 공주 등과

4) 한국관광개발연구원, 2000, 1999년도 한국관광연감, 362-363면.

5) 김용웅·차미숙(2001), 유럽의 지역개발 성공사례와 동향, 국토연구원.

6) Gunn, Clare A.(1988) Tourism Planning, Taylor and Francis.

같이 한가지의 성격으로 규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지역은 아니다. 내포지역은 가시적인 거대한 상징물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문분야 또는 특수목적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역사 문화적인 전통과 향기를 간직한 다양한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내포지역은 지형적·지리적 특성상 육로교통과의 단절 및 임진·병자호란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역사문화 및 전통적인 생활문화자원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⁷⁾

내포지역이 지닌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실태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포지역에는 우리나라 전래 불교문화에 접할 수 있는 희귀한 초기 백제불교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백제불교문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안 마애불, 서산 마애삼존석불,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 등 초기 백제불교문화자원이 내포지역내에 독점적으로 발견·분포되어 있다. 이들 불교문화자원은 백제시대 외래문화와 불교의 전래라는 종교역사 차원 뿐만아니라

조각과 회화적인 특징을 갖춘 불교미술사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내포지역에는 백제시대 건설되고 아직도 고려시대 목조건축양식과 건물이 남아 있는 고찰인 수덕사와 근대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스님이 거처하셨던 개심사와 신라시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원사지 등이 있어 불교신자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요 순례지가 되고 있다. 수덕사는 경허 성우선사의 고족 제자인 만공 월면과 여성운동가로 이름을 날린 일엽스님의 자취가 남아있어 일반인에게도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내포지역에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여 가야사지, 문수사, 일락사, 간월암, 부석사, 용봉사, 광경사지 등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불교사찰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둘째, 내포지역은 해안지역에 입지하여 외국 선진문물이 수용되는 창구역할과 동시에 외국세력의 침투가 이어지는 통로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관방유적이 많이 잔존해 있으며, 조운·조창 등 연안운송

유적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군사적 요충지인 홍주읍성과 해미읍성, 그리고 연안방어를 위한 안흥진성, 소근포진성, 백화산성 등 많은 산성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내포지역에는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으로 추정되는 임존성, 백제부흥을 위해 파견된 일본 원정군의 전몰지로 추정되는 막무덤 등이 있어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일고대사 교류연구 측면에서 일본의 민간연구모임회는 백제부흥운동지역 답사를 통하여 부흥운동 당시의 일본원군에 대한 연



우강 솔피마을

7) 내포지역내 지정문화재는 총 214점으로 전국의 2.6%, 충남전체의 27.5%를 차지한다. 이들 지정문화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교유적자원이 68점으로 전체 지정문화재의 31.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인물유적자원이 42점으로 19.6% 등 불교와 인물관련 유적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를 추진하고 있어 내포지역이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 연구차원에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내포지역의 해안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기반이 되었던 삼남지방의 세곡이 운반되던 조운로였다. 즉 충청도 이남의 세곡을 중앙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보령 앞바다에서 태안 안흥량, 태안 만대, 당진 난지도 서쪽을 경유해야만 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굴포운하, 백사수도 등 조운과 관련된 많은 유적이 남아있다. 특히 내포의 삼교천 하류는 충청도의 세곡이 집결되는 곳으로써 여러 개의 조창이 있었으며, 공세꽃조창은 조선전기 규모가 가장 큰 조창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의 내포지역내관방유적자원, 백제부흥유적자원, 조운·조창 등에 관련된 유적은 특수전문분야의 관광수요 차원에서 매우 높은 잠재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내포지역은 천주교, 동학관련 유적 등 한국근대사와 종교문화적 차원에서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내포지역은 내포교회사 불릴 정도로 천주교가 활발하게 전래된 전교지역이자 순교지역으로서, 평양·강화도와 함께 천주교의 국내 3대 전교지역으로 유명하다. 내포지역은

울곡 이이-(송익필) (성리학)

사계 김장생 (주자예학)

우암 송시열 (기호학과)

수암 권상하

江門八學士

(남당 한원진, 외암 이간, 병계 윤봉구, 봉암 채지홍, 화암 이이근, 관봉 현상벽, 매봉 최징후, 추담 성만징)

남당 한원진

(人物性異論)

호론

사변학과, 소중화론, 춘추대의 중시

노론의 정론

위정척사파

화서 이항로(벽이단론, 개항반대),

면암 최익현, 유익현, 양현수

의병운동(홍주의병, 독립운동)

이 설, 김복한, 임한주

윤봉길, 김좌진, 한용운

외암 이간

(人物性同論)

낙론

역외춘추론, 物性에 관심증대(象數學, 經濟之學 등 대상세계에 관한 학문발전

증대) : 낙향인사 중심

북학과(실학)

담헌 홍대용(지전설), 연암 박지원

(이용후생설), 대곡 김석문(상수학),

미호 김원행, 황윤석(상수학 연구),

추사 김정희

개화파, 천주교

강위, 오경석 등 개화지식인,

이존창, 김대건신부, 이가환, 황석영

계몽주의

심훈

애국충절 및 충의사상

(내포문화권의 사상적 본질형성)

해운교통상의 지정학적 특성상 외

〈그림 1〉 내포지역의 학문·사상계보와 인물

래종교인 천주교를 쉽게 흡수하고,⁸⁾ 안중·공세리·예산·합덕·공주의 경로를 통하여 국내 여타지역으로 급격하게 전파하였다. 이에따라 내포지역 내에는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와 출

생지인 솔피마을,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 이가환, 황석영 등을 비롯하여 전교활동의 중심지였던 합덕본당,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해미읍성, 그리고 천주교 교우촌, 순교지 등 천주교 전래

관련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어 천주교 성지순례코스 개발 및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내포지역에는 박인호, 박덕철, 손병희, 박용태 등을 중심으로 동학운동이 활

〈표 1〉 내포지역 시군별·유형별 주요 민속·무형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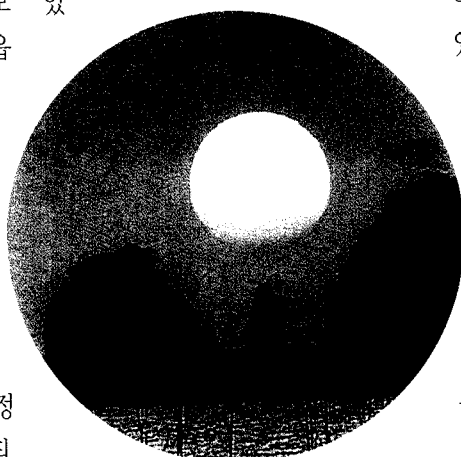
지 역	민속신앙	민속놀이	민속악	민속무용	민속공예	민속음식
서산시	간월도 굴부르기제, 야당리 홍수매기, 창리 영신제	-	서산벚가리개 놀이(농악)	박첨지놀이, 승무	-	
홍성군	수룡동마을 당제, 독배마을 당제, 원동 서낭제	용대기놀이	결성농요	-	지승제조, 용기장	
예산군	갈신리 장승제, 꺾곡리 산신제, 천방산 하록산신제	덕산보부상놀이	-	-	소목장	
당진군	안섬풍어 당굿놀이, 용신당제, 칠월칠석풍년제	기지사 줄다리기	-	-	-	면천 두견주
태안군	황도봉기풍어제, 파도리 산신제, 황도리 당제	벚가리대 놀이(머슴의 날), 조개부르기제놀이	-	-	태안 설위설경	
보령시	등바루놀이, 등불씨기 놀이, 전황장군제, 효자도당제, 고대도 당제	-	-	-	보령 남포벼루 제작	
아산시	농기싸움 놀이	아산 줄다리기, 아산 장치기 놀이	-	-	-	아산 연엽주

자료 : 오양렬(2001), “내포지역내 무형문화 및 전통민속자원의 특성과 보존방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 충청남도·국토연구원.

8) 천주교의 전파루트를 보면, 의주 변문을 통하는 조선교회의 비밀연락로, 성직자 잠입의 서북 관서를 통하는 비밀통로가 위험해지자 새로운 비밀 통로로 '내포지방 서해루트'가 김대건 신부에 의해 개척되어 내포지방이 한국에서 상하이를 거쳐 한반도 중부해안으로 이어지는 서해루트였다. 이 루트가 예수회 동양전도의 거점이었던 마카오를 통하여 조선으로 숨어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2000), 내포지역과 한국천주교회사,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학술심포지엄 자료.

발하게 전개되었으며, 1894년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합덕 성동산성, 당진을 구룡리 승전목, 당진 송악면 송악산 등 전적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한말 대표적인 의병운동이었던 홍주 의병이 동학운동으로부터 배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로 지역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넷째, 내포문화는 다른 한편으로 의문화권(義文化圈)이라 불리어질 정도로⁹⁾ 충의·충절인물의 다수 배출되었으며, 아울러 조선후기 사상사를 주도한 인물관련 유적자원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내포지역에는 강직한 충정과 충열, 애국지사가 많이 배출되어 생가유적이 집중되어 있다.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충의·충절인물은 고려말 최영장군을 비롯하여 조선조 성삼문, 근세에 들어서서는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한용운, 김좌진, 윤봉길, 옥파 이종일, 심훈 등이 있어 청소년의 정신교육과 학습장으로써 역사문화 및 민족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가족단위의 답사관광의 중심지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내포지역에는 최치원, 김삿갓, 토정 이지함, 추사 김정호 등 문화인물 관련유적자원 등이 산재해



당진 왜목마을

어 문화답사지로서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내포지역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학문 및 사상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내포지역의 학문적 사상은 기호학과 계통으로 율곡·(송익필)→사계 김장생→우암 송시열→수암 권상하→강문 팔학사로 이어지는 학맥을 유지하여 왔으며, 인물과 사물의 본성에 대한 논쟁인 인물성동이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인물성동이론(또는 湖落論爭)은 사회윤리적 실천과 관련된 논쟁으로 조선후기 수도작의 확대라는 농

〈표 2〉 내포지역을 대표할 만한 향토역사·문화자원

(단위 :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역사·유적자원	임존성 (17.8%)	홍주읍성 (13.0%)	서산읍성 (9.5%)
인물자원	김정희 (24.9%)	윤봉길 (23.3%)	김좌진 (15.8%)
불교자원	서산마애삼존불 (26.8%)	수덕사 (26.4%)	개심사 (11.1%)
유교·동학자원	서산보원사지 (21.0%)	남당한원진 (19.0%)	승전목 (18.5%)
천주교자원	해미읍성 (33.2%)	솔뫼마을 (28.7%)	갈매못 (13.0%)
기타자원	남연군묘 (19.3%)	기지사줄다리기 (16.7%)	황도봉기풍어제 (13.6%)

9) 충남은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 등 2개의 문화권으로 포괄되며, 내포문화권은 義文化圈, 금강문화권은 禮文化圈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업변화와 상업발전, 신분제 논란을 반영한 철학적 논쟁으로서,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 사이에서 촉발되었던 대논쟁이었다. 남당 한원진을 중심으로 하는 호론(湖論)은 춘추대의를 위하여 청나라를 공격하여야 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후일 노론의 정론으로 위정척사, 개항반대 및 의병활동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반면, 낙론(落論)은 외암 외간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대개 낙향하여 살았으므로 낙학, 낙론이라 칭하며, 청은 여전히 중화에 속한다는 역외춘추론을 주장하며 상수학, 경제지학 등 대상세계에 관한 학문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들의 입장은 추후에 답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필두로 하는 북학과와 실학에 영향을 주었으며, 개화파, 천주교, 계몽주의가 내포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다섯째, 내포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외침이나 천재 등 재해의 영향이 적어 전통민속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유·무형의 민속문화자원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내포지역은 반농·반어의 자급자족적 생활문화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결성농요, 황도봉기풍어제, 안섬풍어 당굿놀이, 간월도 굴부르기제 등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풍

어제와 당제, 산신제 등 마을 차원의 향토민속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그리고 내포지역에는 토정 이지함의 묘, 남원군 묘, 손석우 묘 등 풍수지리 관련 전통자원과 선돌, 고인돌 등 선사문화자원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내포지역은 이와같은 지역향토 역사문화자원을 보전 활용하려는 자생적인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향토사학자 및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고건축박물관, 인장박물관, 민족문화음악원, 삼종효 연수원, 해변시인학교, 민속박물관(건설추진중), 전통옹기 실습행사 등이 향토역사와 문화의 보전과 전수 등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민속문화자원의 관광 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포지역은 지형상 농경과 어로를 겸한 생활문화를 보유한 지역인 동시에 차령산맥 이북의 가야산 주변 지역으로 해안의 교류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부상 유적자원은 내포지역의 자립적이고 합리적인 특질을 드러내는 유적자원으로 볼 수 있다. 보부상은 장시를 무대로 생산자와 객주·여객,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서 교환경제를 담당해 온 전문적인 장돌림 상인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조직과 규율을 갖추고 전통적인 5일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왔다. 현재 보부상 조직은 서천을 중심으로 보부상, 예덕상무사를 중심으로 한 보부상이 잔존하고 있고, 예산·홍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덕상무사 등 보부상 관련유물이 보존·관리되고 있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역향토 역사문화자원 외에도 내포지역은 태안해안국립공원, 삽교호, 예당저수지, 안면도 관광지, 덕산온천, 철새도래지 등 풍부한 자연경관자원과 해산물 중심의 지역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가족휴양 및 주말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다.

■ 내포지역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역전문가 의견

내포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하여 해당지역내 공무원, 교사, 향토사학자 및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¹⁰⁾ 내포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이 전국적 차원에서 상대적인 우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23%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여 독특한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 “내포지역내 어떠한

〈표 3〉 내포지역의 유형별 핵심역사문화·관광자원

구 분	선 정 자 원
역사문화자원	불 교 서산마애삼존불, 수덕사, 개심사, 보원사지, 가야사지,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용봉사, 고산사
	천 주 교 솔피성지, 홍성옥터, 해미읍성, 갈매못
	관방유적 해미읍성, 임존성, 홍주읍성
	전통가옥 수덕사 대웅전, 예산 정동호가옥, 홍성 조응식가옥, 홍성 엄찬 고택
	인물관련 추사 김정희, 매헌 윤봉길의사, 백야 김좌진장군, 성삼문, 한용운 생가지
자연경관자원	향토문화 남연군묘, 예덕상무사
	태안해안국립공원, 대호방조제(도비도휴양지), 덕산도립공원(온천), 삽교호 국민관광지, 예당저수지, 홍성온천, 도고온천, 남당항

〈표 4〉 내포지역내 개발권별 중점진흥지구와 개발방향

개발권	중점진흥지구	개발방향	핵심관광자원 및 명소	연계관광자원
가야산권	가야산 북부지구	역사문화 및 학습체험관광	서산마애삼존불, 해미읍성	한우목장, 개심사, 해미향교, 여숫골
	가야산 남부지구	문화·민속체험 및 보양관광	보부상유품(상무사), 덕산온천, 남연군묘	화전리사면석불, 남은들상여, 충의사, 삽교석조보살상, 한국고건축박물관
북부권	삽교호지구	도시근교위락 및 산업관광	삽교호국민관광지, 행담도, 솔피성지	구합덕성당, 필경사, 서해대교, 영인산휴양림
	도비도 (난지도)지구	해양휴양 및 생태체험관광	도비도휴양지	왜목마을, 난지도해수욕장, 의병충, 백제원군도착지
	안면도 국제관광지구	국제해양 휴양관광	안면도국제관광단지, 해수욕장	꽃지해수욕장, 안면도휴양림, 원산도, 모감주나무군락
해양권	안흥항지구	관광어항 및 특산물관광	안흥항	안흥성, 해수욕장
	간월도 생태지구	탐조 및 생태체험관광	간월도관광지	부석사, 전용일가옥, 간월도철새도래지, 간월암
	남당리지구	민속문화체험 지역특산물관광	남당항	고산사, 한용운선생 생가지, 김좌진장군생가지, 결성농요전승회관
내륙권	예당저수지지구	역사학습체험 및 휴양관광	예당저수지 국민관광지, 임존성	이성만형제호제비, 호양저수지, 면암 최익현 묘, 추사고택
	용봉·홍주지구	역사체험 및 가족휴양관광	홍성온천, 홍주관아, 용봉산	노은단, 홍주의사총, 용봉산 자연휴양림, 마애석불

관광문화자원이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해외관광객에게 내놓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상품이나 관광자원으로는 해양경관자원(26.0%), 백제역사유적(25.4%), 민속문화(21.2%), 온천(13.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국내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주요 표적대상으로는 휴양 및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가족(59.1%), 역사체험·학습 등 청소년(3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특정목적의 전문관광객(1.4%), 보양·건강을 추구하는 노인보양관광(1.4%)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내관광객에 대하여 내포지역의 핵심관광자원으로는 해양경관자원(27.6%), 내륙자연경관(23.3%), 충절·역사인물(18.6%), 백제역사유적(13.6%), 불교, 천주교 등 종교자원(7.6%), 전통민속(3.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내포지역을 대표할만한 향토역사 문화자원에 대하여 우선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임존성, 홍주읍성, 서산읍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인물자원으로는 추사 김정희, 윤봉길의사, 김좌진장군의 순으로, 불교자원으로는 서산마애

삼존불, 수덕사, 개심사의 순으로, 유교 및 동학자원으로는 서산보원사지, 남당 한원진, 승전목의 순으로, 천주교 자원으로는 해미읍성, 솔피마을 등으로 나타났다.

4.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방향

내포지역은 문화·역사적 측면에서 지명도나 인지도가 낮아 개발이 등한시 되어왔던 전통적인 생활문화 및 백제불교, 백제부흥운동사, 보부상, 충의·충절인물 등 희귀한 역사적 전통 자원들을 풍부하고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내포지역을 「21세기형 학습·체험위주의 복합여가 문화지대」로 중점 육성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특질 및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포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대표적 특질은 보여지는 것, 즉 가시성 보다는 이해하고 음미하여야만 진정한 가치가 우리나라의 상징성과 문화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

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내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는 편의시설, 대규모 관광지 조성과 함께 내포지역이 지닌 역사, 문화자원의 내용과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안내서, 안내물 개발 및 전문안내인력의 확보와 활용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내포지역은 명소방문 및 탐방형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보다는 전문분야, 특정관심분야의 소규모 답사관광, 가족·개별관광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지역내 관광문화자원의 상징성을 높이고 지역간 불필요한 경쟁에 자원낭비를 막기 위하여는 내포지역을 지역단위로 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보완연계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포지역은 지형적 특성이거나 역사문화자원의 분포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전체를 북부권, 가야산권, 해양권, 내륙권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부권은 삼교호, 도비도지구를 포함하여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수도권 근접의

10)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국토연구원(2001)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의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연구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 조사는 2000년 10월중순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지역전문가 300명에게 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50%의 응답율을 보였다.

도시근교위락 및 해양휴양관광에 중점
토록 하고, 가야산권은 역사·문화·
민속체험의 중심지로 개발토록 한다.
해양권은 안면도국제관광, 안흥항지구
등 해양 및 생태관광의 거점지대로 육
성하고, 내륙권은 예당저수지 및 용
봉·홍주지구를 중심으로 역사인물순
례 등 역사체험과 가족·청소년 학습
관광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한
다.

둘째,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들은 거점화되어 있지 못하고 분산되

어 있다. 지역의 관광이미지를 형성하
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는 핵심적
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선정하고, 이
를 중심으로 관광문화자원을 보전·복
원·관리하고, 교통망 및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핵심관광자원으로 불교문화,
천주교순례지, 관방유적, 전통건축, 향
토문화차원에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
여 상징성과 희소성이 있는 역사문화
자원과 경관자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
할 수 있다.¹¹⁾

이와같은 핵심관광거점은 지역적 분
포를 고려하여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중점진흥지역을 설정하여 관광문화시
설의 정비, 교통망 및 편의시설을 집
중·정비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
면 용현계곡을 중심으로 한 가야산 북
부지구, 덕산온천 중심의 가야산 남부
지구, 삽교호지구, 안흥항지구, 도비도
지구, 안면도 국제관광지구, 간월도지
구, 예당저수지지구, 남당리지구, 용
봉·홍주지구 등이 핵심관광자원과 연
계를 위한 핵심거점으로 정비가 가능

〈표 5〉 내포지역의 특수목적 문화·관광상품 구상예시

테 마	주 제	관 광 자 원 예 시
내포인물탐방	충의·충절인물을 찾아	· 최영장군 생가, 성삼문 생가, 추사 김정희 고택, 만해 한용운 생가, 운봉길의사 생가, 김좌진 장군 생가, 옥파 이종일선생 생가, 심훈 필경사, 남당 한원진 등
내포불교문화탐방	불교유산의 보고 가야산탐방	· 서산마애삼존석불, 태안마애불, 수덕사, 보원사 등 백제불교미술 및 불교사찰 탐방
내포천주교 성지순례	천주교의 성지순례	· 솔피성지, 해미읍성, 갈매못, 해미 여숫골, 홍성옥터, 교우촌, 합덕성당 등
백제부흥운동지 답사	백제부흥운동사의 부활	· 임존성, 주류성, 승전목, 몽산성, 막무덤 등
내포 민속문화답사	보부상 발길을 따라 내포민속문화 재현	· 보부상 : 예덕상무사, 부상감의비, 홍도원, 웅암포, 수덕고개 등 · 풍수지리사상 : 남연군묘, 남은들상여, 손석우옹묘 등 · 전통민속문화 : 결성농요, 황도봉기풍어제, 안섬풍어제, 용대기놀이 등
내포특산물 관광	지역특산 먹거리를 찾아	· 대하, 꽃게, 실치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문화와 주변관광자원 연계관광
내포생태체험관광	갯벌, 조류 등 생태체험	· 갯벌, 조류, 식목 등 생태자원의 체험을 통한 관광자원화
내포문학탐방	내포관련 문학체험	· 내포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집필된 소설, 시를 통하여 내포지역의 문학이미지 부각 (심훈의 상록수기행, 이성만형제 우애비, 해변시인학교 등)
내포역사재현 및 학습체험탐방	내포역사 재현 및 학습체험	· 내포역사재현축제 : 중국사신영접 축제화, 백제부흥운동사 재현, 보부상놀이 재현 등 · 고건축박물관, 오가옹기, 인장박물관, 불교박물관 등 지역내 박물관 순례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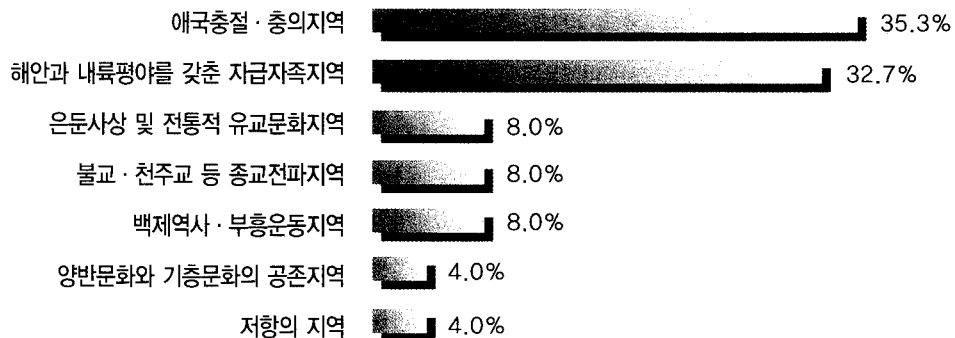
셋째, 내포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은 분야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의 특화 차원에서 다양한 테마형 관광루트의 개발이 가능하다. 특수목적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루트로 는 역사학습·체험관광루트, 문화체험 관광루트, 해양체험 및 휴가관광루트 등이 가능하며, 특히 충의·충절을 대표하는 내포역사인물(생가지)탐방루트, 내포불교문화 탐방루트, 천주교 성지 순례, 백제부흥운동 답사 등 보다 세분화된 관광루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관광루트란 관광상품으로서 관광답

사일정(itineraries)을 의미한다. 관광루트가 형성되기 위하여는 연계교통망, 관광안내정보체계 구축 등 인프라와 공공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광루트의 개발은 내포지역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는 여행업자(inbound agents)와의 협력과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 지역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내포지역의 관광루트와 상품개발은 표적 시장을 차별화하여 국제관광수요를 위하여는 해양관광, 백제역사유적, 민속 문화자원 중심의 관광루트와 상품을, 그리고 국내관광수요를 위하여는 여

가·휴양중심의 가족관광, 역사체험과 교육목적의 청소년대상 관광상품 개발에 치중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넷째, 내포지역은 풍부한 해산물 등 지역특산물, 독특한 지역향토문화행사 와 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경우 관광문화자원과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특산물로는 서산 어리굴젓, 광천 새우젓, 태안 대하, 예산 더덕 등이 있고, 지역향토축제는 계절별로 4월에는 예산의 매현문화제, 온양아산문화제, 여름에는 홍성의 만해제, 태안의 안면도 예술 축제 및 보령의 바닷길축제, 가을에는



〈그림 2〉 내포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지역이미지)

11) 핵심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선정과정은 충청남도 · 국토연구원(2001), 170-172면 참조.

서산문화제, 홍주문화제, 및 예산 추사문화제 등이 있다. 이들 축제를 내포지역의 관광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가야산 무공해 산채채집, 서해안 바지락 채집, 해미읍성 역사체험, 불교생활체험 등 지역특산물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다섯째, 지역관광산업의 소프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매력도와 관광객 유인력을 높이려면 지역내 관광자원과 시설개선, 관광상품의 개발과 함께 이에대한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내포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지역내 관광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관광종사원의 전문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강화, 여행사·음식·숙박·유흥업소 등에 대한 시설과 서비스수준, 고객만족도 등을 토대로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내포지역의 관광자원, 관광상품, 음식·숙박시설, 교통정보 및 예약서비스 공급망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노력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체, 휴양관광업체, 여행안내

업체, 교통운수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포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개발을 위하여 역사문화자원이나 경관의 훼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포지역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이 없이 전승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보전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더욱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역사문화자원의 망실과 훼손우려가 특히나 높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실우려가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발굴·연구와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없는 관광개발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역사문화자원의 훼손과 망실과 이로 인한 지역역사문화자원의 가치와 지역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내포지역의 개발방향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역전문가 의견

충청권 지역전문가의 80.7%는 내포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자적 문화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나, 대표적 문화적 속성에 대하여는 상이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5.3%는 내포지역을 애국·충의·충절지역으로, 32.7%는 자급자족의 향토문화지역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은둔사상 및 전통적 유교문화지역, 불교·천주교 등 종교전파지역, 백제역사부흥운동지역 등 역사문화지역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내포지역이 다양한 역사문화적 속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내포지역을 개발할 경우, 내포지역 개발의 특성화 방향에 대하여 조사대상 지역전문가의 약 49%가 전통향토역사지역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경관 생태지역(27.0%) 등으로 응답함으로써, 내포지역은 지역경관이 어우러진 전통향토역사문화지역으로 상징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포지역의 관광개발 측면에서 내포지역 발전에 가장 제약이 되는 요인으로서는 관광위락 휴

양시설기반의 취약(30.1%), 지역의 독자적인 관광이미지 확립미흡(26.0%), 지역내 관광지와 시설간의 연계성 취약(25.4%), 숙박, 음식 등 관광지원시설 및 기반취약(7.5%)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맺는말

내포지역은 자급자족의 서민문화와 조선 후기 사상사를 주도한 전통문화·사상자원으로서 충의·충절의 역사인물자원과 백제부흥운동사, 보부상 유적 등 희귀한 역사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교 및 천주교 등 외래종교 전래지역으로서 마애불, 사찰, 천주교 성지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이와함께 내포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해안과 내륙평야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높은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보유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내포지역은 그동안 내륙과의 지형적 단절성, 교통접근성의 미흡으로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증대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내포지역과 지역이 지닌 향토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관광·여가패턴이 단순경

관탐방형에서 가족휴양과 역사문화에 대한 학습과 체험관광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내포지역에 대한 관광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추이에 부응하여 내포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부각시키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내포지역에 맞는 독특한 개발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그동안 방치되어 온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전·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내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상 전문 및 특수목적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문화관광지대로의 육성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대단위 관광시설이나 관광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철저한 보전과 정비, 소단위 관광에 적합한 내실있는 관광기반시설의 정비에 치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포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특성은 가시성 보다는 상징성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 관광자원에 대하여 특성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관광객의 지적 호기심과 이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테마관광루트 등 관광문화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산업 육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이나 상품의 개발 못지 않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진흥(promotion)과 마케팅(marketing)이다. 관광진흥과 마케팅은 창의력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관광진흥전담기구 또는 민간전문기관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관광진흥과 마케팅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전문가 육성, 관광진흥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내포지역내 자치단체의 협력체 구성 등 다양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논단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지역 개발 / 김정연·전영노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개발 / 한무호

당진항의 명칭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성 / 안기용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에 대한 기초연구 / 송두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 개발*

김정연 · 전영노 본원 연구실장 · 지역개발연구부 위촉연구원

1. 서론

교통체계의 발달은 지리공간 위에서 시간거리와 비용 거리를 단축시켜, 시공간(time-space)과 비용공간(cost-space)의 상대적 수렴을 가져온다. 특히, 고속도로는 인구·산업이 집적된 도시와 도시, 사람과 목적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최단거리·최단시간으로 연결하여 상호 교환효율을 극대화 해준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지만, 일단 건설되면 주민생활, 산업활동, 그리고 지역발전에 절대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고속도로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그 종류와 관련지역의 여건에 따라 正의 효과 또는 負의 효과로 작용한다. 물류비용·운송시간 단축→생산원가 절감→생산성 향상→경쟁력 강화, 도시화 촉진, 국토이용 효율성 증진, 지역분업 가속화, 지역격차 해소, 생산효율 증진에 따른 물가의 안정, 고속도로의 건설산업 및 이용산업과 관련된 기술혁신, 지역 고유성의 붕괴, 개방화, 삶의 형태 및 가치관 변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은, 상호 연관된 사회·경제조건의 適否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행하여, 正의 파급효과가 최대화되고 負의 파급효과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서해안고속도로는 2001년 9월 이후 인천~서천 구간이 부분 개통된 이후 교통량과 관광객의 증가 등 이미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2001년 말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면 그 파급효과는 점차 누적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서해안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개방형 통합 국토축 전략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해안지역은 우리 나라가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시현하는 선도지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양호·김창현, 2000).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서해안지역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수단들이 아직은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이 논문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추론하고, 이를 토대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이 건설한 국토개발축의 하나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 논문은 서해안의 5개 시·도 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서해안포럼(2001. 10. 17)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서해안고속도로가 교통량으로써
서해안 개발축의 형성이 비토소 가시화 되고,
지역간 물리적 접근성의 비약적 향상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2.1 이론적 검토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수단이 어떻게 공간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로는 Janelle(1974)와 김형국(1997) 등을 들 수 있다.

Janelle는 교통발달이 공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접근성에 대한 수요 증대는 교통기술의 혁신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시·공간의 수렴과 집중화·전문화, 공간적 상호작용의 증대, 공간수요의 확대, 시공의 확산, 공간적응(분산, 분산적 집중, 고충화), 상호작용의 증대, 접근성 수요 증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통발달이 어떻게 공간을 재조직하는가에 관한 과정을 모델화한 것이다(Janelle, D., 1974, pp.358~376). Janelle의 모형은 교통발달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과정을 개관하고 예측하는데 신뢰성있는 준거틀이 되고 있다(김형국, 1997, p.26).

김형국은 공간 위의 이동을 매개하는 교통망의 발달이 연결효과(connective effect)를 실현해 줌으로써 지역간의 경제·사회적 상호작용이 심화·확대되고, 지역의 경제와 사회를 폐쇄체계로부터 개방체계로 전환시켜줌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부추기는 반면, 단절효과(divisive effect)라는 부작용도 발생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형국, 1997, p.242).

고속도로 효과를 실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접 효과(수송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교통사고의 감소, 교통공해의 변화, 교통편리성의 향상 등)와 간접효과(주변지역의 개발과 토지이용의 변화, 공장입지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통구조의 변화, 관광지 개발, 주민교류 확대와 사회의식의 변화, 지방재정 개선 등)로 구분하고, 특히 간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함수모형, 비용(이윤)함수모형, I/O 모형, REMI 모형, CGE 모형, 준실험분석, 계량통계적 분석 등의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전병제 외, 1999, pp.99-156).

2.2 선행연구의 검토

1968년 서울~인천간 고속도로 개통을 시점으로 '60년대 기간산업 노선의 구축, '70년대 낙후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선 구축, '80년대 기간 노선축의 용량증대, '90년대 대도시권 광역노선과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지역개발 논리와 연계된 고속도로 건설은 공간을 분리·통합하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토공간의 변화를 가져왔다(유재영, 1995, p.16).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속도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성장과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국토개발연구원(1994), 정일호·손동혁(1995), 유재영(1995), 대한상공회의소(1995; 1998), 김정연(1999), 전병제 외(1999)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고속도로 개통효과가 IC를 중심으로 10km 이내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

또한,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 향상에 따른 지가의 상승과 토지이용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²⁾ 고속도로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효과 역시 특화단지의 형성, 신선채소 및 화훼재배 등의 고부가가치 농·어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였으며, 리조트 개발 및 자동차 대중화로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수요를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

도시 성장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로는 이기석(1998), 전병제 외(1999), 김정연(1999)의 연구가 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 및 도시성장은 고속도로 IC까지의 시간거리가 짧을수록 시·군의 인구 증가율이 높고, 인구규모가 적은 시·군에 있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IC까지의 시간거리 변화가 그 후의 인구 증가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년마다 인구의 변화를 볼 때 IC까지의 접근성이 높은 순서와 증가율의 순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구 변화와 동일한 패턴으로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입지한 도시들은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은 정체 내지 쇠퇴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³⁾

이상과 같은 고속도로 효과를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차원에서 보면, 그간의 고속도로망 건설이 다른 경제·공

간개발 정책과 더불어 이미 교통수요가 고조되어 있는 노선을 택하는 조장효과(facilitating effect)를 따랐기 때문에, 기존의 경부회랑 상의 지역 특히, 대도시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였지만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쇠퇴케 함으로써 국토의 양권역화를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기석, 1998, pp.93~101).

이런 면에서 보면, 최근 개통 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는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전효과(development effect)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김형국, p.236), 기존 개발지역보다 개발투자의 효율성은 낮지만 지역균형 발전에는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도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조응래(1998), 김정연(1999), 원광희(2000)가 있다. 조응래와 원광희는 계획 고속도로 개통시 지역별 접근도 변화를 이중계약 중력모형과 시·군간 통행 O/D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김정연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전국의 시·군간 단순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고속도로 IC 주변 및 직·간접 영향권만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1) IC 연접부 산업입지 경향을 보면 '92년 말 산업단지의 83%가 IC 10km 이내에 입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산업단지의 58.6%가 경부고속도로 IC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지방산업단지는 61.1%가 경부·중부고속도로 IC 10km 이내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말에는 새롭게 입지한 공장의 61.5% 이상이 고속도로 IC로부터 10km 이내였다. 또한, IC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종사자수는 우리 나라 전체 산업단지의 88%수준에 이르고 있다(유재영, 1995, p.20~21; 대한상공회의소, 1998; 정일호·손동혁, 1995, p.167; 김정연, 1999, p.15).

2) '70년도를 1,000으로 하여 IC로부터 거리대별 지가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지가변동은 20km 내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고속도로 IC에서 30km 내의 지가는 1970~1975년에 18%, 1980~1985년에 30.5%, 1990~1995년에 61.5%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 형태별로 지가변동을 비교할 경우, 고속도로 개통 후 10년후에 상업, 업무지는 5,670배 증가하고, 생산녹지(전, 답)은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일호·손동혁, 1995, p.200; 김정연, 1999, p.23).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개발연구원(1994), 김정연(1999), 전병제 외(1999)의 연구결과를 참조바람.

3.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권지역 변화 분석

3.1 접근성 개선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직·간접효과의 측정
은 영향권내의 일정 시·군(또는 교통존)으로부터 다른 모
든 시·군(또는 교통존)까지의 통행거리와 통행시간 측정
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1995년과 2010
년의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하여 전국
의 165개 시·군간 최단루트를 계산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국, 서해안의 5개 시·도,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영향
권지역에 대한 O/D표를 작성하고, 시·군간 통행거리 및
통행시간 단축효과를 측정하였다.⁴⁾ 영향권의 구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을 직접영향권으로 그리고 인접된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였다.⁵⁾

분석결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수준
에서는 서해안지역의 시·군들이 평균 14.3%의 단순
시간거리가 단축되고, 서해안의 5개 시·도내의 시·
군간에는 평균 17.9%의 단순시간거리가 단축되며, 서
해안고속도로영향권내의 시·군간에는 평균 24.5%의
단순시간거리가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및
서해안 5개 시·도에서 가장 단축효과가 높은 곳은 충
남과 전북으로, 전국에서는 충남이 20.3%, 전북이
17.1%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의 시·도 중에서는 충남

이 21.3%, 전북이 18.3%로 단축효과가 나타났다.⁶⁾

시·군별 시간거리 단축효과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국수준에서 20.3%이상 단축시간 효
과를 보는 시·군은 24개 시·군으로 청양군(32.0%),
전주시(29.2%), 아산시(28.8%), 금산군(28.8%), 당진군
(26.5%), 경주시(24.1%), 장수군(23.4%), 예산군
(22.5%), 정읍시(22.1%), 부천시(22.0%), 평택시
(21.8%), 시흥시(21.8%), 통영시(21.7%), 김포군
(21.7%), 안산시(21.6%), 군포시(21.6%), 거제시
(21.3%), 광명시(21.3%), 태안군(21.1%), 과천시
(21.0%), 화성군(20.7%), 여주시(20.6%), 용진군
(20.5%), 의왕시(20.4%)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가 11시·군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6개 시·군, 전북 3
개 시·군, 전남 1개 시, 경남 2개 시·군, 경북 1개
시·군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시간거리
단축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해안 5개 시·도에서 24.7% 이상의 시간거리 단축
효과를 보이는 시·군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로, 청양군(35.9%), 전주시(34.6%), 아산시
(33.1%), 금산군(32.7%), 당진군(29.3%), 영광군
(29.0%), 장성군(27.5%), 완도군(26.4%), 목포시
(26.0%), 순천시(25.9%), 예산군(25.0%), 여주시
(24.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5개, 전북 1개, 전
남 6개 시·군이다.

직·간접 영향권 내에서 32.2%이상의 시간거리 단축
효과를 보이는 시·군은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6

4) 모든 지역간의 단순도로거리와 단순통행시간을 구하고 나서, 한 지역(시·군)에 있어서 다른 모든 지역으로 가는데 드는 단순도로거리와 단순통행시간의 총량
을 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직·간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5) 고속도로 효과가 IC로부터 10km 이내에 집중되는 만큼,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러한 구분방법을 택하고 있다(정일호·손동혁, 1995 ; 김정연, 1999 ; 전병제
외, 1999).

6) 분석결과는 교통량을 고려한 가중(weighted) 도로거리와 시간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급 도로의 구간별 특성자료 작성, 지역간차별 OD표 작성 예측, 각종 효과분석 모형의 적용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직·간접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일호·손동혁, 1995, pp.103-128 ; 조응래, 1998, p.3, pp.119~137).

개로, 직접영향권내에서는 영광군(34.7%), 목포시(32.5%)이며, 간접영향권내에서는 청양군(40.1%), 전주시(38.9%), 아산시(36.7%), 장성군(33.0%) 등이다.

특히, 시·도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군간의 단축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거리 단축효과에 의해 서해안 지역의 시·군들은 지역의 입지적 잠재력과 그 동안 저이용 상태에 있었던 역사·문화·경관·자연자원 등 자원활용 잠재력이 높아 질 것이다.

3.2 지역간 상호작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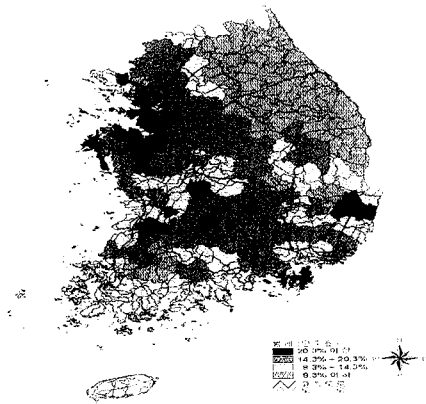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그 동안 억제되었던 서해안 일대의 남북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IC를 통해서 연결되는 도로망의 교통량 도한 영향을 받으면서 각 지역별로 교통흐름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지방부도로 즉, 국도·지방도·군도의 상태로는 폭증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곤란한 구간이 다수 발생하게 될 것이다.

〈표 1〉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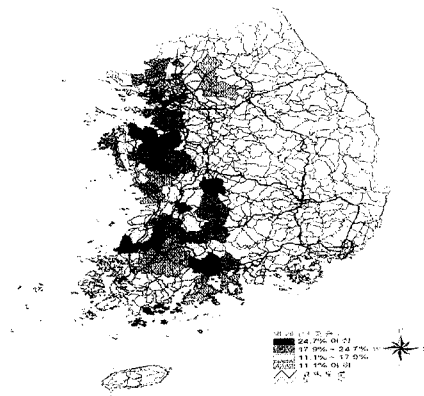
구	분	시·군간 통행시간 ¹⁾		단축시간 (B-A)	단축률(%)
		1995(A)	2010(B)		
전국 (165시군)	인 천	26,624	23,265	3,359	12.6
	경 기	31,227	25,692	5,535	17.8
	충 남	30,734	24,287	6,447	20.3
	전 북	29,448	24,329	5,119	17.1
	전 남	37,867	33,194	4,673	12.4
서해안 시·도 (83시군)	계	32,972	28,336	4,636	14.3
	인 천	16,101	13,911	2,190	13.6
	경 기	14,026	11,639	2,388	17.3
	충 남	12,433	9,691	2,742	21.3
	전 북	12,625	10,279	2,346	18.3
서해안 고속도로 영향권 ²⁾ (35시군)	전 남	17,295	14,493	2,802	16.3
	계	14,433	11,876	2,557	17.9
	직접영향권	5,669	4,353	1,315	23.1
	간접영향권	5,561	4,153	1,427	26.1
	계	5,617	4,247	1,369	24.5

주 : 1) 지역간 평균통행시간은 전국, 서해안의 5개 시·도, 서해안고속도로 영향권 등 각각의 분석대상 지역내의 모든 시·군간의 통행시간의 합을 해당 시·군수로 나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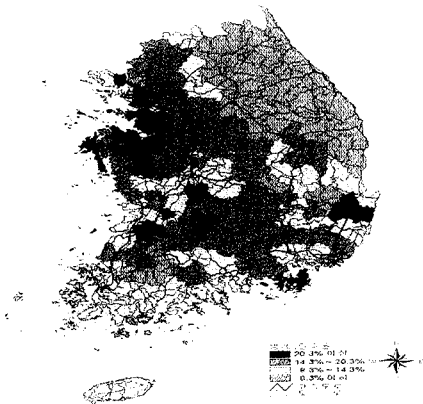
2) 서해안고속도로의 직접영향권에는 인천광역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군,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홍성군, 서천군,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영광군, 무안군, 목포시 등 18개 시·군이 포함되고, 간접영향권에는 수원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부천시, 의왕시, 아산시,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전주시, 정읍시, 익산시, 장성군, 영암군, 나주시 등 17개 시·군이 포함됨.



〈그림 1〉 전국 165개 시·군간 시간거리 단축



〈그림 2〉 서해안 5개 시·도내 시·군간시간거리 단축



〈그림 3〉 서해안고속도로 직·간접영향권내 시·군간 시간거리 단축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 예측결과를 보면(한국도로공사, 1997), 2012년에 이르러 평택항IC~행담도IC 구간이 102,993(대/일)로 가장 많고, 서천JC~북군산JC 구간이 76,019(대/일)이며, 일로IC~목포IC 구간이 31,603(대/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도로의 경우는 사업 시행시에는 IC 접속구간은 증가하고 그 외의 구간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송악IC에 접속되는 서해안산업도로가 3,580(대/시),

서천IC에 접속하여 장항산업단지와 연계되는 국도 4호선이 2,195(대/시)의 교통량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의해 연결되는 주요 도시간에는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데 반해, 고속도로가 통과함으로써 분리되는 지역들간에는 오히려 상호작용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험적으로 볼 때도 우리 나라의 남북을 종단하는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의 발달은 동서 도시간의 연계에 방해가 되고, 동서 횡단선인 영동선은 강원도내 동서축상의 도시인 원주-강릉, 춘천-강릉간의 교류를 크게 강화시킨 반면에 남북연계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지역의 통합을 불리하게 하였다.

따라서 서해안지역에 뚜렷한 개발거점이 조기에 형성되지 못할 경우 영향권내의 모든 시·군들과 수도권, 특히 서울간의 교통연계가 강화되는 반면에 시·군들간에는 상대적인 약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적 분리를 통한 단절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해안지역과 기존 개발축상에 위치한 내륙의 지방도시들 즉, 대전, 광주, 전주, 천안 등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광역권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3 산업 및 지역경제의 변화

서해안지역은 수도권과 군산·이리·전주, 그리고 목포를 제외하면 제조업기반이 매우 미약하다. 서해안 중남부 지역에 소재한 대부분의 시·군들의 총 제조업체수도 280~800개 정도이고, 각각의 시·군내에서 사업체수 비중이 10% 이상인 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등이며, 1998년의 충남, 전북, 전남의 산업별 취업구조에 있어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각각 40.3%, 28.1%, 42.1%로 전국 평균(12.4%)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은 각각 12.8%, 11.4%, 9.3%로서 전국 평균(19.6%)보다 저조하다. 특히, 경제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업본사 등 중추관리기능과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기능이 특히 취약하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내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 있다. 간선교통망, 정보통신, 용수 등 산업투자 여건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하고, 산업단지 건설 등 인프라 건설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집행은 부진한 실정으로서 선도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의 영향력을 아직까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에서 제시한 교류거점 및 신산업지대의 거점지역들을 조기에 형성해 내지 못할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산업 활성화 정도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할 것이며, 그 한계는 군산까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4 인구·도시 성장 및 생활권구조의 변화

서해안지역은 산업과 기반시설이 발달된 수도권과 낙후된 중남부지역으로 뚜렷이 대별된다. 수도권은 1985년 이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2개에서 10개로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서해안지역은 단지 1개만 증가하였다. 특히,

서해안의 중남부지역에는 1998년 말 현재 中·大都市가 전주(56만), 군산(27만), 익산(32만), 목포(25만) 등으로 성장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또는 도시권의 발달이 미약하다.

우리 나라 214개 시·읍·군 도시를 대상으로 기능지수에 의해 계층을 구분해 볼 때도 서해안측에는 인천이 2계층, 수원과 전주가 3계층, 성남·안양·부천·천안·군산·익산·목포 등이 4계층으로서 지방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이들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머지 지역은 시·군 중심지를 중심으로 농어촌 배후지가 분할되어 있는 정립적인 중심지체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역 및 국가도시체계상에서도 그 지위가 계속 약화되고 외부의 충격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김정연, 1999).

이것은 시·군 중심지들이 오랜 기간 배후 농어촌지역에 대한 서비스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나,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와 농·어업 인구의 감소에 따른 구매력 감퇴에 의해 주요 기능인 상업·서비스업이 영세화·사양화되는 반면에 제조업 등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산업부분의 성장을 거의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해안지역의 도시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반적으로 생활권의 광역화가 촉진되면서 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대도시의 영향력이 서해안의 중소도시의 배후지 이면에까지 미치는 潛上效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해안지역의 중남부에는 소도시 수준의 시·군 중심지 상호간에는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지방 中·大都市에 의해 배후지를 잠식당함으로써 상대적인 쇠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김정연, 1999).

4.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개발 방안

4.1 거점권의 형성과 IC 연결부의 계획적 개발·관리

고속도로 개통 후 가장 변화가 심한 곳 중의 하나가 IC 연결부이다(유재영, 1995). 수도권지역 등 개발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난개발 억제와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IC 연결부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정기능과 시설을 도입하여 지역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⁷⁾

다시 말해서, 서해안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임해형 산업단지들은 분양률이 저조하고, 일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부문들의 입지수요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들 부문이 선호하는 첨단정보통신기반과 연구·물류 등 각종 연계·지원기능,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산업단지 주변 또는 내부에 단시간 내에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IC 연결부는 원자재나 제품수송이 유리하여 제조업체들이 선호할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의 입지에도 적합하다. 대체로 IC는 기존의 중소도시와도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며, 그 연결부가 이들 도시보다 복합기능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도 유리하다.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이 오랜 기간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여 기존 시가지 내부 또는 그 주변에 계획적인 토지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C 연결부는 접속도로망의 정비와 연계

하여 개발하되, 첨단산업·정보관련시설·연구개발시설·물류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IC 연결부 개발을 추진하면서, 도시, 산업지구, 물류단지, 공항, 항만 등과 긴밀히 연계된 기능공간의 군집을 형성하여 거점권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중견도시가 전무한 아산만권에서는 이러한 거점권 형성 방식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서해안 전체적으로도 개발거점은 국제적 교류활성화와 국내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개발축을 따라서 개발잠재력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의 都市群을 결합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광역적 형태의 성장거점권이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해안축은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방대도시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일정 범역내의 지역간, 기능간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거점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4.2 지역교통체계 정비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접속도로 및 교차로를 정비하여 연계도로망의 혼잡지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김형진·김홍석, 1996; 노승만·박진우, 1996, 조응래·김재령, 1998).

이와 함께, 항만과 공항에서 배후지로 연결되는 도로나 철도의 부족과 미비가 물류나 사람의 이동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해상 및 항공교통간의 연결성 및 치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해안고속도로와 공

7) 일본도 이러한 개념과 유사하게 고속도로 IC, 공항, 항만, 시험·연구기관 등의 사이에 「기반기술 산업집적 활성화 촉진지역」을 배치하고, 이들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하고, 특정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장용지, 업무용지의 정비를 지원하는 「신산업 창출기반 형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http://www.mlit.go.jp/road/>).

항·항만·물류시설 등과의 연계도로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해안과 내륙의 주요 거점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동서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 동서간 간선도로망은 대전, 전주, 광주 등 내륙 개발거점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기존 개발축의 개발효과가 서해안으로 쉽게 파급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해안의 개발거점 형성에 도움을 받으며, 장기적으로는 부산-서울(-신의주)로 이어지는 한반도 중심축의 대륙 연계기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한편, 이미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천·경기는 분산형 지역구조를 형성하고, 교통분산의 원활화를 위해서 동서간 간선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 동안은 서해안을 연결하는 남북 교통망이 미비하여 서해안지역은 그 잠재력에 비하여 관광산업의 발달이 저조했으나,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자원 활용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산업·관광도로망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의 IC로부터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도로망과 연결하여 관광수요와 관광자원간의 보완성·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광루트를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광기반시설 및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공유를 위한 지역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3 지역간 연계·제휴에 의한 광역협력체계 구축

생활권의 광역화로 이미 2~3개 시 군이 모여서 하나의 실질적인 생활권을 형성해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지역간선망체계가 개선될 경우 인접 시 군간의 시간거리가 대폭 단축될 것이며, 생활권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국도 등 간선교통망으로

연결된 몇몇의 중소도시가 통합되어 하나의 자립적인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경우, 규모의 경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제고, 지역활성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자치단체간, 대상 목적별로 다양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경영에 성공하고 있는데, 많은 부문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추가투자를 하지 않고도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광역적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서해안개발축 상에 있는 지역들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광역적인 협력의 대상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 방식은 행정구역을 조정하지 않고도 손쉽게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공동이용, 상호이용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공동이용형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과 같이 하나의 시설을 복수의 도시가 공동으로 설치, 이용하는 형태이며 상호이용형은 도서관 정보시스템과 같이 동일한 종류이면서 다른 기능을 지닌 도시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 개개의 시설로서는 실현할 수 없는 종합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유형과 다른 종류의 도시시설을 관련 자치단체가 각각 정비하여 서로 이용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광역적 도시기능의 상호이용 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성 향상과, 활발한 역내의 교류, 그리고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결 론

이 논문은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서해안지역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전망해 보고, 正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負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해안 개발축의 형성이 비로소 가시화 되고, 지역간 물리적 접근성의 비약적

향상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해안에서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교류·생산 거점의 미비, 인구활력의 저하와 지역산업의 낙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한 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서해안지역이 서해안고속도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견실한 국토개발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비수도권지역에서의 거점권의 형성, IC 연결부의 계획적개발·관리, 접속도로 및 교차로 등의 정비, 동서간선망의 구축, 관광지 연계도로망 정비, 인접지역간 광역시설 공동 이용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나아

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10년까지의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에 따른 단순 시간거리 단축효과를 계산하였으나, 지역간 상호작용·도시체계·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기존 고속도로 효과를 원용하여 추론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개발전략과 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산업·공간구조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설명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參 考 文 獻

- 국토개발연구원, 1994, 도로투자에 대한 물류비용 개선 효과 분석.
- 김정연, 1999,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이종상,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방안”, 제1회 서해안 포럼: 서해 안시대의 전개와 개발방향, 경기개발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 2001. 10. 17, pp.93~115.
- 김형국, 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기석, 1998, 한국 근대도시의 공간적 이해, 한국도시론, 박영사.
- 대한상공회의소, 1995, 기업의 공장입지 선호도 조사.
- 박양호·김창현, 200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국토축 추진전략, 국토연구원.
- 원광희, 2000, 고속도로 건설이 충북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편익과 접근도 변화 분석, 충북개발연구원.
- 유재영, 1995, 고속도로 IC 주변부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전병제 외, 1999, 고속도로 노선별 사업효과 분석-사회·경제분야-, 한국도로공사.
- 조응래, 1998,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경기지역의 통행시간 변화분석”, 경기 연구, 제3권, 경기개발연구원, pp.119~137.
- 김재령, 1998, 지방부 도로의 기능제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한국도로공사, 1997, 서해안고속도로 안중-목포간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
- Janelle, D., 1974, “Spatial Reorganization: A Model and Concept”, in M. Hurst(ed), Transportation Geography, New York: cGraw-Hill, 1974. <http://www.mlit.go.jp/road/>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개발

한무호 산업경제연구부장, 연구위원

지난 30여년간 각종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파괴 등 각종 도시 문제가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토전반의 불균형의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공장총량제의 완화에 이어, 산자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 확대와 허용기간의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이 51%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다른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도권의 집중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1. 공배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최근 공배법시행령 개정의 움직임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근시안적

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총체적인 틀이 없는 상태에서 산자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지역불균형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에는 경기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3건)과 비수도권 의원들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2건)이 계류 중에 있고, 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법률안들이 출세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차원에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수도권의 집중문제는 시장실패와 정책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시장실패 차원에서 보면, 개별기업은 시장의 접근성, 인력공급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과밀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집적효과로 인한 혜택을 보지만 환경파괴 및 오염 등 집적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위배하여 시장실패의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이를 규제해야할 정부는 겉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주장하면서 그 실행수단인 수도권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더욱더 악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토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밑그림이 없이
수도권만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는

2. 공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망

국토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밑그림이 없이 수도권만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는 외 자도입, 기업유치와 지가상승 등 순기능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에 따르는 수도권 집중의 강화로 인한 역기능은 체증적으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수도권의 교통혼잡,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의 체증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이는 또다시 수도권의 집중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둘째, 지방경제는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각종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 공급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마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 할 것이고, 이는 지방산업기반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족능력을 박탈하게 되어 그 잠재력을 살릴 기회마저 잃게 할 것이다.

셋째,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수도권의 토지, 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지방에 대한 과소투자는 국토 개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관리비용 등 사회적 비

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간 격차의 확대는 지방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증폭시켜 정치·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장논리에 근거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집적불경제의 증가와 지방경제를 폐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생보다는 공멸의 가능성이 더 높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수혜자부담원칙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볼 때 교통혼잡 비용, 환경파괴 비용 등 현재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결코 수도권의 경쟁력이 지방에 비해 높다고 매우 높다고 볼수는 없다.

3. 문제의 해결방안

지금까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일관성의 부재, 국토 전반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추진으로 수도권 자체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경제격차를 악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시장실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 각 부처가 협조하여 국토 전반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형성한 다음, 그 틀안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선진외국과 경쟁하는데 필요한 각종 국제기능, 첨단·정보기능, 고급업무·서비스 기능 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지방과 경쟁이 되는 분야는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은 특성에 맞게 적합한 기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생산성 높고, 효율성이 보장되어 자생력을 갖춘 수도권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는 공공투자를 집중하여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통하여 서로 공생하는 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농촌정경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나홀로 아파트에 비유될 수 있는 공배법시행령의 개정과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토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의 종합적인 대안이 수립될 때까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항의 명칭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성

안기용 환경연구부, 연구위원

I. 머리말

현재 아산만 일대의 항만시설은 위치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아산시 및 당진군으로 되어 있으며, 항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해상구역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고온리(북위37°01'55"·동경126°44'58" 지점)와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북위36°59'44"·동경126°42'12")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다만 남양호, 아산호, 삽교호 제외)으로 되어 있어, 2개도 3개군에 걸쳐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명칭이 평택항으로 되어 있어 아산 및 당진지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평택지역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군 및 아산시는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으로 수도권에 근접한 교통요충지적 입지가 되고 또한 아산만권 유통단지 건설계획, 중국과의 최단거리 등의 요인으로 환황해권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나, 아산만권역의 무역항이 대표성이 떨어지는 특정 지역의 지명으로만 불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무역항의 이름은 명칭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출입국관리, 검역소, 도선, 강취 등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고용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본 고에서는 당진지역에 위치한 항만 시설이 당진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당진항 분리 지정의 당위성

1. 당진항 역사성

당진(唐津)은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의미)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일찍부터 한반도와 당나라와의 해상교역이 활발하였던 곳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처음으로 당진(唐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원나라 이후 실시되는 해금정책(海禁政策)으로 바닷길이 막히면서,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당진(唐津)은 더 이상 대외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 해안방어의 중요기지로 부각되어 수군만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당진군 송악면 '한진(漢津)'은 조선시대에 '대진(大津)'이라고 불리워졌는데 '漢津'은 '큰 나루'의 의미인 '大津'의 우리말 표기 '한 나루'가 한자로 표기된 지명으로 항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대진은 조선시대 홍주목의 월경지인 신평현에 해당했던 곳으로, 주위에 당진현과 면천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고을에 편입되지 않고, 큰 고을[홍주목]의 월경지로 남아 있게 된 것은 그만큼 항구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당진포구는 현재에도 당진포리(唐津浦里), 옥현리

삼포(三浦), 조금리 조금나루(造琴津), 삼봉리 웅포(熊浦), 강문리 부리포(富里浦), 운정리 공포(孔浦) 등 역사적 의미가 담긴 지명들이 상당 수 사용되고 있다.

2. 당진항 지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항만이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므로 정량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선박 입·출항에 따른 직접비용 외에도 해운관련기관의 입주에 따른 부대산업, 운송업, 창고업과 같이 항만 산업과 직접연관된 분야가 있으며, 관광, 교통, 문화 등과 같이 2차적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도 있다.

〈표 1〉과 같이 항만이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지표를 표현하기 위하여 선진항구 도시의 실질적인 예를 〈표 2〉에서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총 고용인구의 약 28%가 항만관련산업에

종사하며, 기타쿠슈의 경우 30%가 항만관련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전체 고용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에 근접하고 있다.

〈표 1〉 및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항만이 갖는 지역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며, 당진항도 무역항으로 지정될 경우 당진 및 아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진지역은 배후의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고대·부곡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시키고, 이는 다시 당진항 이용율 증대를 초래하여 상호상생작용으로 양자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3. 항만의 명칭과 위치 관계

우리나라에는 지정항만 50개 중 28개항이 무역항으로

〈표 1〉 항만지정에 따른 파급분야 및 기대효과

구 분		종 류	기 대 효 과
직 접 파 급 분 야	해운항만 관련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 관리사무소, 검역소, 항만운송협회 등	· 인구증가 · 고용창출 · 투자촉진
	수상운송업	내·외항화물운송업, 여객운송업 등	· 2차부대산업 · 산업단지 활성화
	수상운수 보조업	예선업, 도선업, 선박청소업 등	→ 지역총생산 증가
	항만운송업	화물하역업, 검수업, 통관업, 검량·검정업 등	
	보관 창고업	냉장창고업, 위험물보관업, 농산물창고업 등	
2 차 파 급 분 야	기 타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항만건설업, 식료품제조업 등	· 간접자본 확충 · 소득증대
	교통분야	육상·항공 연계교통망 가능, 지역민 생활 편의 등	→ 삶의 질 향상
	관광분야	연안관광 활성화	
	사회·문화분야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항구도시 이미지	

자료 : 당진항 지정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본연구, 2001.3

〈표 2〉 향만의 지역경제 기여도

(단위 : %)

구 분	총인구(천명)	고 용	고용자소득	부가가치액	자치단체수입	연 도
부 산	3,654	27.7	20.7	34.2	-	1987
포틀랜드	61	22.0	-	-	-	1980
요코하마	2,915	26.0	23.0	32.0	29.0	1983
와카야마	403	19.0	28.0	46.0	39.0	1983
고 베	1,381	17.3	38.8	30.8	-	1984
기타큐슈	1,052	30.0	32.2	50.0	51.0	1978

자료 : 당진항 지정 타당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본연구, 2001.3

지정되어 있다. 이들 무역항들의 명칭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통상 지명이나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개항된 28개의 무역항의 명칭을 보면, 23개항이 그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항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여론(삼천포항), 예전의 행정구역 명칭(삼천포항, 목호항), 동일 행정구역에 별도의 무역항이 존재(부산항-진해항, 광양항-여수항)하고 있는 이유로 현

재의 무역항 위치와 항명이 불일치하나 평택항과 같이 2개도 3개군에 위치하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특정지역의 명칭을 항명으로 칭하는 예는 없다.

따라서 당진군이 당진지역의 항만시설을 당진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진지역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당연한 주장이며,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기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 창출과 지역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표 3〉 무역항의 명칭과 위치

항 명	지 정 항 (무역항) 위 치	비 고
부산항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진해시	대부분의 항만구역과 주된 배후기능이 부산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부산항 명칭사용 (진해시 : 『부산·진해신항만』 명칭사용 건의)
인천항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평택항	경기도 평택시, 충남 아산시 및 당진군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불일치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마산항	경상남도 마산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통영항	경상남도 통영시	1994년 까지는 행정구역상 경남 삼천포시로 되어 있던 것
삼천포항	경상남도 사천시	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1995년 부터는 행정구역상 경남 사천시로 통합 편입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정서와 여론을 받아들여 항만의 명칭을 삼천포항으로 사용
장승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장승포동
진해항	경상남도 진해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항 명	지 정 항 (무역항) 위 치	비 고
옥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옥포동
고현항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의 위치가 동해시 승격(80) 이전에 명주군 묵호항에 위치하여 묵호항으로 사용
속초항	강원도 속초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삼척항	강원도 삼척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옥계면내에 위치하여 옥계항으로 사용
울산항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군산항	전라북도 군산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장항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장항읍
보령항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대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대산읍
태안항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목포항	전라남도 목포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완도항	전라남도 완도군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여수항	전라남도 여수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광양항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항세가 광양지역에 치우쳐 있고 별도로 여수항이 있어 지역정서에 문제가 없음
포항항	경상북도 포항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제주항	제주도 제주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서귀포항	제주도 서귀포시	행정구역 명칭과 항명 일치

주 1) 항명, 위치 : 항만법시행령 2조

주 2) 비교 : 관할지방해양수산청 질의·회신 자료

〈표 4〉 무역항 명칭의 분류

항 명	행정구역 명칭사용	주민여론 반 영	종전의 행정구역 명칭 사용	별도의 무역항 존재	비 고
부 산 항				○	진해항
평 택 항					2개도, 3개군이 위치해 있음
심천포항		○	○		
묵 호 항			○		
광 양 항				○	여수항
기타 23개항	○				

4. 입·출항 선박의 항만행정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일반적인 입·출항 절차는 외해의 박지에서부터 입항신청을 하면 도선에 의해 접안·하역하고 출항하게 된다.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일반적인 입·출항 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 1).

현재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평택측 부두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진측 부두를 이용하는 경우 입·출항 절차가 달라 입항선박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해양수산부는 당진측부두 중 당진 화력부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측부두와 당진측 부두중 동부제강과 한보철강부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3개 관련기관은 평택측부두와 당진측부두를 구분하여 관할하고 있다. 또한 관련업체도 일정한 기준없이 편의에 따라 당진측과

평택측, 인천청과 대산청으로 구분하여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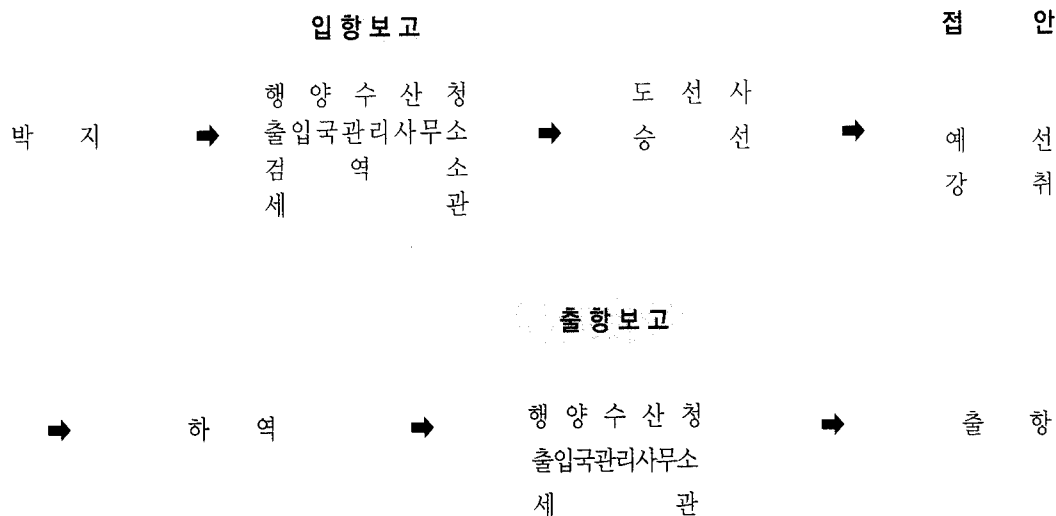
평택지역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산하의 평택출장소와 관련업체 및 경기도에 위치한 관련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Non-Stop 서비스가 가능하나, 당진측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은 관련기관 3곳이 충남측에 위치해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인천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원화되어있어 부두의 이용절차에 혼선이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항만이용 선박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아산만지역을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분리·운영하여 고객중심의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당진항의 규모

당진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항명이나 이용

〈그림 1〉 선박의 일반적인 입·출항 절차



에 따른 불편 사항보다도 무역항으로서의 일정 규모와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당진항이 분리 지정될 경우 군·장항과 비슷한 항계가 형성될 것을 가정하여 군·장항 및 평·

당항의 항만규모를 비교 검토하여 당진항이 무역항으로서의 규모를 갖추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군산항의 항계내에 위치하면서 별도의 항계를 보유하고 있는 장항항과의 항만 규모를 비교한 <표 6, 7, 8>에

〈표 5〉 사용부두에 따른 차이점

구 분	평택측부두 이용 선박	당진측부두 이용 선박		비 고
		동부제강부두 한보철강부두	당진화력부두	
관련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출장소	대산지방해양 수산청	
	출입국관리 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오산출장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산출장소	
	검역소	인천검역소	군산검역소(대산지소)	
관련업체	세관	평택출장소	천안세관	
	도선사	인 천	대 산	
	강취	인 천	대 산	
	예선	평 택	대 산	
	수리	인 천	대 산	

〈표 6〉 항만 물동량 처리 실적

(단위 : 천톤)

구	분	1995	1997	1999	2000. 8
아산만지역 (평택항)	평택측	-	23,764	23,044	38,939
	당진측	-	1,848	3,088	4,367
	계	21,820	25,612	26,132	43,306
금강하구 지역	군산항	8,441	12,045	11,503	7,852
	장항항	592	782	623	407
	계	9,033	12,827	12,126	8,259

자료 : 해양수산부(당진측물동량은 당진군 내부 자료임)

〈표 7〉 항만물동량 추정치

(단위 : 천톤)

구	분	2001	2006	2011	2015
아산만지역 (평택항)	평택측	36,625	56,111	86,490	86,796
	당진측	4,114	6,303	9,716	9,751
	계	40,739	62,414	96,206	96,547
금강하구 지역	군산항	15,654	27,531	35,152	40,833
	장항항	811	1,427	1,822	2,117
	계	16,465	28,958	36,974	42,950

자료 :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제정비 1999. 12

주) : 당진측물동량은 한보철강부두+동부제강부두+당진화력부두 인.

주) : 평택측 물동량은 아산만지역(평택항)물동량은 - 당진측물동량인.

〈표 8〉 항만시설 현황

(1999년 현재)

구	분	2001	2006	2011	2015
아산만지역 (평택항)	평택측	36,625	56,111	86,490	86,796
	당진측	4,114	6,303	9,716	9,751
	계	40,739	62,414	96,206	96,547
금강하구 지역	군산항	15,654	27,531	35,152	40,833
	장항항	811	1,427	1,822	2,117
	계	16,465	28,958	36,974	42,950

자료 : 해양수산부, 인터넷 자료

서 보듯이 장항항 보다 당진항이 물동량 추정치에서는 2015년 약 4배, 항만 시설면에서는 3배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항만규모만을 가지고 판단하여도 당진항은 무역항으로 손색이 없다.

Ⅲ. 분리 지정되었을 경우 문제점

당진항이 평택항으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무역항으로

개항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세계항만 업계의 전반적인 추세인 대형화 및 물류단지화를 지연 또는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산만 내 전체 항만시설과 아산유통단지, 석문공단 및 포승공단 등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 추진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둘째 항만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행정절차가 편리해

질 것이나, 항만운영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접한 두 개의 무역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장소, 관제시스템 등을 분리운영 하여야 하므로 운영자측면에서는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선박의 입·출항시 동일항로, 동일박지 사용이 예상되므로 해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상분쟁의 우려가 있다.

넷째 유사한 사례에 직면하고 있는 부산항, 광양항 등에서도 이와 같은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부산항은 부산-진해, 광양항은 광양-여수에 위치하여 당진항의 경우와 같이 항명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다섯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이원화로 당진항과 평택항의 차별화가 심화 될 수도 있다. 항만시설은 여타의 사회간접자본과 달리 주기적인 준설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무역항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떨어질 경우 자칫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IV. 결론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으로 국경없는 글로벌화된 사회로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세계속의 우리나라, 우리나라 속의 지자체 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영역과 창조성이 존중되어야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물론 지방중심의 경제·사회질서가 정착되리라 본다.

지역발전을 위한 물적하부구조 즉 항만, 도로, 상하수도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며 이중 해양관련 산업은 1·2·3차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산업으로 지역의 상징적, 경제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진군이 현재 평택항 중 당진지역에 위치한 항만시설에 대해 당진항으로 지정하고자 해양수산부에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신의 권리를 찾고, 당진항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21세기 다원화된 경제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항만운영의 효율성보다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공공서비스의 지향점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항만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야한다.

따라서 삼국-통일신라시대 당나라와의 교역으로부터 시작된 당진(唐津), 조선시대 충남서·북부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던 커다란 항구 대진(大津)등이 현대에 와서는 평택항으로 불리워 진다면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당진지역이 계속해서 평택항으로 일컬어 질 경우 당진지역의 주권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현 아산만지역의 항만시설을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지역 정서와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에 대한 기초 연구

송두범 지역개발연구부장, 연구위원

1. 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에서 가치관과 도덕성의 붕괴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즉, 전통의 덕목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성장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나 규범 등은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나 효와 같은 전통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정신적인 자산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는 역사 문화적으로 볼 때 많은 충신, 열녀, 예학자들을 배출하여 충효의 고장이라 불리어 왔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전통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예절의 고장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의 교육은 학교,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예절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예절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세계화 시대 국제인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글로벌 에티켓 등을 학습·교육할 수 있는 예교육의 도량으로서 가칭 '충청남도 예절관'을 설립하기 위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건립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탈물질적 가치관과 학습사회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통한 외형적,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인간성의 회복, 자아실현 등과 같은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슬로우(Maslow, 1954)는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이들의 강도에 따라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즉, 인간의 욕구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를 향해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그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는 소위 욕구 단계설(needs hierarchy)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물질주의 가치관이 충족되면, 인간은 참여와 자아실현, 자기표현 등을 중시하는 탈물질적 가치관으로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이제 물질적인 욕구보다 상위의 욕구인 예절이나 효와 같은 덕목을 중시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탈물질적인 가치관은 예절이나 효라는 사실¹⁾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탈물질적인 가치관은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생애를 통해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편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시기의 항상성과 계속성, 교육장소의 광범성과 무정형성,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다원성, 교육방법의 다양성과 입체성, 교육대상의 전체성과 평등성, 교육담당자의 다양성과 탈정형성 그리고 교육접근 및 교육적 의사소통의 용

우리나라 전통예절의 교육·연구·전시·공연장소의 미비와 이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예절관 설립은 필요

통성과 순환성, 쌍방성을 전제로 하는 학습사회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사회 실현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을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예절바른 도민 의식 함양, 예절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영²⁾, 유아 및 어린이 인재교육 체질화, 예절교육 체제와 실천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칭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은 예학의 본거지로서 수준 높은 예문화를 꽃피웠던 지역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을 위한 지역사회 예절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절관 건립의 기본구상

1) 예절관 건립의 의의

우리나라 전통예절의 교육 연구 전시 공연장소의 미비와 이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예절관 설립은 필요하다. 또한 예절관은 전통예절에 대한 학술연구,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 전통예절 관련 전시 및 공연, 전통예절의 관광상품화 등이 그 설립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예절관은 연구기능, 평생문화학습 기능, 전시기능, 공연기능,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예절관련 자료의 출판 및 홍보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절관 건립을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 지역경제 및 관광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향수 제고와 자긍심 고취, 지역이미지 창출 및 개선, 지역문화의 중심체, 지역간 교류, 예절에 대한 교육을 통한 파급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

2) 기본구상

예절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예절관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전통예절을 포함시키며 그 시설설치를 위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절관 설립유형은 시설활용에 따른 유형과 입지형태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시설활용에 따른 유형은 신규설립, 기존시설 활용, 기존시설에 부여하는 유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신규설립은 바람직하지만, 재원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기존시설 활용은 폐교 향교 서원 충남평생학습회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존시설에 기능부여하는 형은 충남도 교육청이 운영

1)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의 잉글하트(Inglehart) 교수와 독일의 클린게르만(Klingerman) 교수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가치조사 설문(World Value Study Questionnaire)을 이용하여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세계 48개국에서 실시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s) 자료(은기수 외,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 정책연구과제, 교육부, 1999참고).

2)충청남도에서는 건양대학교 예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예절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다(<http://www.ye365.or.kr/>).

하는 충무수련원 등에 예절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절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절관 입지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배후지의 인구규모, 주변지역에 예절관과 관련 있는 우수한 역사문화경관 및 자연환경 보유 여부, 접근성, 주변문화시설이나 레저시설과의 연계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자연환경 사회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절관 건립시 도입가능한 시설은 전통예절 연구관, 교육관(생활관), 전통놀이장, 예절공연장, 예절자료관(도서관), 공공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 예절관련 역사문화유적 탐방시설 등이다. 또한 도입가능한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4.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계획

예절관 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해 투자계획의 효율성 추구, 단계별 개발추진, 민자유치 활성화, 행정지원체제 개선, 개발역기능 최소화, 제도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방식은 수탁개발, 단독개발, 전면공영개발, 부분공영개발, 제3섹터 개발방식 등이 있으며, 토지확보방안은 협의매수를 통한 토지확보와 제3섹터개발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³⁾

투자계획은 효율적인 예절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별로 구분하며, 사유지 및 국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계별 계획으로 1단계(2002~2003년)는 예절관 건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을 위한 준비기간, 2단계(2004년)는 토지보상 및 기반조성, 3단계(2005년)는 사업시행, 목표연도인 4단계(2006~2007년)는 종합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여기서는 신규설립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공익성사업은 국가 및 예절관 입지 시·군 또는 공공기관, 수익성 사업은 민간투자를 기본전제로 한다. 충청남도나 도 교육청의 주도 하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되, 제3섹터 조직이나 민간기업이 수익성 시설에 대한 개발부담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한다.

예절관은 교육 문화시설로서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도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하며, 충분한 관리인원을 확보하여 계획적인 관리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예절관의 건립주체는 예절관의 성격상 관리 운영의 주체는 기업이, 정책적 행정적 지원은 공공,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청이나 충청남도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실현성이 높다.

5. 정책제안

1) 예절관의 성격 규정

예절관은 연구 교육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전시 및 공연기능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절관의 성격은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0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예절관이 주축이 되어, 평생학습원, 학교,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학생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절관련 프로그램들과의 기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예절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예절관이 수행하는 교육 문화적 기능으로 볼

때 예절관을 문화시설 속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절관의 물리적 시설기준은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설립주체

예절관의 설립주체는 공공, 민간, 제3섹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공공으로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보다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방안(예절관은 교육 기능이 제일의 기능임)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민간으로 추진할 경우 기업의 협조를 얻어 기업연수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예절교육이 공공교육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섹터로 추진할 경우 공공은 시설설립을 민간은 운영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3) 설립유형

예절관의 설립유형도 신규건립, 기존시설 이용, 기존시설에 기능부여하는 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신규설립은 배후지 인구 대도시와의 접근성 유교관련 역사 문화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고 예절관의 성격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율곡교원연수원 분원인 예절연수원과 같이 기능적으로는 율곡연수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독립된 지역에 독립건물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기능적으로도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이나 학생수련원에 분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기존시설 이용은 폐교·향교·서원·충남평생학습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폐교를 이용하여 건립할 경우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문당은 학교중 규모, 입지(접근성,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교를 이용하여 건립할 경우 대부분의 향교가 접근성이 양호하고, 본래의 기능인 교육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례기능의 시연을 통한 현장학습 경험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절관이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연구기능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복합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향교가 대부분 지은지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독립건물의 신축이 필연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향교를 관리하는 재단과 협의하여 설립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원도 교육기관으로서 예절교육을 목적으로 한 활용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서원들은 향교와 마찬가지로 건축연도가 비교적 오래되어 예절관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서원을 예절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신축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서원이 읍면 단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도시 인근의 서원 중에서 접근성이 양호하고, 부지확보 및 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다면 서원을 이용한 예절관 건립도 고려해 볼만 하다. 한편, 운수연수원의 폐지가 논의됨에 따라 운수연수원을 예절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만 하다.

셋째, 현재 충청남도나 충청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무원교육원, 충무수련원 등의 기관에 예절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중 상당부분을 예절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이는 기존시설의 목적사업과 중복, 업무과중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4) 행정기관의 역할

예절관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설립주체를 결정하고, 그 주체가 중심이 되어 가칭 '충청남도 예절관 건립 기획단'이나, "충청남도 예절관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에서는 예절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2764호)를 제정하였다. 충청남도에서도 예절관을 설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조례제정)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절관의 유치에 대한 시·군 지역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면, 시·군을 대상으로 예절관 설립(신규건립, 기존시설이용, 기존시설에 기능부여 등)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이를 평가하여 최종설립지역 및 설립유형 등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활용하여 예절관련 교과과목을 개설하고 공통교재의 개발, 예절관련 강사 풀(pool)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예절관련 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공은배,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2000년도 평생교육정책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한국평생교육학회, 2000.6.15.
- 교육부, 평생교육법 해설자료, 2000.
- 김도수, 평생교육, 양서원, 1999.
- 김시중, 한국예절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방안 시론, 1999.
- 김시중, 한국 예절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방안 시론,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9.
- 대구대학교 사회교육과정부, 사회교육개론, 청림출판사, 1992.
- 신원득 외, 평생교육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경기개발연구원, 2000.
- 은기수 외,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 정책연구과제, 교육부, 1999.
- 이흥재 외, 문화시설의 지역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 연구 :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 임선빈, "향교의 연혁과 운영실태," 충남의 향교, 충청남도, 1999.
- 정영선, 문단은 학교(폐교)의 효과적 활용방안(2), 문화도시 문화복지, 41호, 서울: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7.
- 충청남도, 충청남도 개도백년:충남 새로운 출발, 1996.
- 한기범, "향교의례와 그 기능," 충남의 향교, 충청남도, 1999.
- Peter Jarvis, "Paradoxes of the Learning Socie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ifelong Learning, ed. John Holford, Peter Jarvis and Colin Griffin London:Kogan Page, 1998.
- Richard Edwards etc, "Recent Thinking in Lifelong Learn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search Briefs"; available from <http://www.dfes.gov.uk/research/report80.html>; accessed 15 May 2000.
- 日本生涯教育學會, 生涯學習事典, 東京書籍, 1997.
- <http://www.ye365.or.kr>

지방자치관련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

법률 제6497호 (2001.7.24.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때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363호 (2001년 9월 15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청사 등을 건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하고, 수의계약으로 잡종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의 납입고지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하기전에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함(영 제30조제3항단서 신설)

나.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실업대책에 따라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영 제88조제1항제17호 내지 제25호 신설)

다.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시·도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가산금 또는 변상금을 징수한 때에는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구에 귀속시켰으나, 앞으로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차등화 함(영 제100조제6항 및 제105조제2항)
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을 체납한 자에게 납무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2회까지 다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0조제6항 및 제105조제2항)
마. 불용결정한 구형컴퓨터 등을 저소득자의 자녀교육용으로 양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22조제5항)

3.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판례

99다69341 소유권확인 (자) 상고기각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경상남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상남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01다14023 공사대금 (다)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의 요건과 절차〉

구 지방배정법 제63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

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지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01. 5. 15).

98다5109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의 한계〉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01. 7. 13).

2001도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라) 파기환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 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01. 7. 13)

99두9971 면직무효확인등 (라) 상고기각

〈공무원이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취소할 수 있는 기한〉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를 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중요판결요지 2001. 8. 24)

〈편집부〉

곰나루

공주시서 서북쪽으로 십리 정도
가면 공주를 싸고도는 금강기슭에
곰나루라고 하는 나루터가 나온다.
이나루터를 '고마나루터' 라고도 하고
'웅진' 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
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득한 옛날이었다. 이 곰나루 근처의 연미산(燕尾山)에 큰 굴이 있는데 이 굴에서 커다란 암곰이 한마리 살고 있었다. 암곰은 나이가 들면서 시집을 가고 싶었다. 마을에는 멀리 떨어진 외진 강가에서 살기 때문에 시집을 갈래야 갈 수가 없었다. 솔바람 소리가 밤새도록 동굴 속에 와 부딪히는 겨울밤이나 달이 유난히 밝은 가을 밤 같은 때도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날도 곰은 하염없이 굴을 나서다가 발을 멈추었다. 그 앞에 잘 생긴 사나이가 옷깃을 바람에 날리면서 유유히 지나고 있지 않은가. 외로울대로 외로와진 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도 아주 잘 생긴 사나이였기 때문에 암곰은 기쁨이 충만해 있었다.

‘저 사나이를 내 남편으로 삼아야지.’

암곰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더 생각할 것이 없다는 듯이 달려가 그를 입에 물고 굴속으로 들어왔다. 사나이는 이미 기절하여 있었다. 곰은 사나이를 눕혀 놓고 물을



뿌리며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한참 뒤에 깨어난 사나이는 눈을 부시시 뜨면서 굴속을 살펴 보았다. 그러다가 곰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몸을 움찔했다. 곰은 사나이가 놀라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와서 사나이의 몸을 쓰다듬으면서 놀라지 말라는 듯이 다독거렸다.

사나이라도 곰이 해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마음을 놓았다. 곰은 날마다 맛있는 고기를 차려다 주었다. 그러고 밤에는 제 몸에 있는 털로 사나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잠을 잤다. 이처럼 사나이를 위해서 곰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섬겼지만 어디 나갈 때는 굴 앞에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나갔다. 그래서 사나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굴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답답하고 지루했다. 거기다가 세상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곰이 나간 뒤에 굴을 막아 놓은 돌을 떠밀어 보았

지만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나이는 할 수 없이 꿈이 깃다주는 고기나 찢어먹고 꿈을 바라보며 살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는 동안에 꿈은 새끼를 배고 그 뒤 몇 달 뒤에는 마침내 새끼를 낳았다. 새끼는 이상하게도 반은 사람 모습을 닮았고 반은 꿈의 형상을 닮았다. 처음에는 징그러웠다. 그러나 날마다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그에게는 더없이 귀엽고 예쁜 아기로 변하였다. 사나이는 사람도 아니고 꿈도 아닌 아기꿈과 노는 것이 더 없는 즐거움이었다.

아기 꿈을 끌어 안고 목마를 태우고 걸음마를 시킬때면 그는 어떤 기쁨까지도 느껴졌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꿈은 꿈대로 가슴이 뿌듯한 기쁨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일년이 지나고 또 일년이 지난 뒤에 또 새끼를 낳았다. 두 아기꿈은 무럭무럭 자랐다. 이제 네 식구가 된 것이다. 사나이는 그 전처럼 심심하지는 않았다. 비록 굴속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지낼만 했다. 그러나 문득문득 세상사람들이 그림고 그들과 어울려 지내던 시절이 목이 마르도록 간절하게 그리웠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꿈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는데 그 날은 굴 앞에 돌을 막아놓지 않은 채 나갔다. 꿈

은 아마도 새끼를 돌이나 낳았으니 도망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사나이는 이 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 길로 굴을 뛰쳐나왔다. 마침 나루터에는 빈배가 한 척 매여 있었다. 사나이는 그 배에 올라타고 노를 저었다.

그때 마침 굴로 들어오던 꿈이 이것을 보고 강가에 서서 돌아오라는 듯 소리치르며 손짓을 했다. 그러나 그는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꿈은 새끼를 데리고 와서 높이 들고 손짓을 했다. 마치 돌아오지 않으면 새끼를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꿈은 정말로 새끼 한마리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 사나이가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니까 꿈은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다가 새끼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뒤부터 이 나루를 '곰나루'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런 애절한 사연을 지니고 있는 곰나루는 공주시의 명소로 공주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편집부〉



제3대 연구원장 鄭鍾煥 前철도청장 초빙

건설·교통·관광 전문가, 충남발전 촉진 기대

제3대 충남발전연구원장에 정종환(鄭鍾煥) 前철도청장(53)이 초빙됐다. 신임 정원장은 충남 청양출신으로 청양농고·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 행정관료로 일해왔다. 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총무과장·공보관을 거쳐 항공국장·관광국장 등을 역임 했다.

건설교통부 시절에는 국토계획국장·기획관리실장·수송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건설교통분야의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지난 1998년 3월부터 2001년 4월에는 대전 3청사내 철도청장을 지내 지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전문행정관료 답지 않게 기획력과 독심을 함께 소유한 관료로 평가받기도 한다.

21C 중부권과 서해안시대를 맞아 충남지역 개발의 그림을 그리는데 책임자로 꼽히다가 이번 충남발원의 책임자로 초빙되어 앞으로 큰 역할이 기대된다.

철도청장시절 '내부고객의 만족 없이는 외부고객을 만족 시킬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 「내부고객 만족 100대 과제」를 제정한 후 적극 추진 철도경영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업적으로 '고객만족 경영대상(大賞)' '한국관광 대상(大賞)'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MBC-TV 「성공시대」에 출연하기도 했다.

관료시절 틈틈히 학업에 열중해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원 경제학석사, 순천향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를 수여 받았다.

취미는 독서와 스포츠관람. 부인 조정자여사와 3남을 두었다.



연구실장에 김정연 박사 임명

충남발원은 공석중인 연구실장에 김정연(金正淵) 본원 산업경제 연구부장(45)을 승진 임명했다. 신임 김실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석사를 취득한 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지난 85년 부터 10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한 뒤 지난 96년 부터 최근까지 본원 산업경제연구부장을 재직했었다.

충발연 기구 개편

충발연은 지난 1월 28일자로 연구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 연구실장내에 기획조정팀과 정보자료팀, 산업디자인팀을 두어 연구원내의 기획정보 기능을 강화했다. 자치정책연구부와 개발환경연구부는 폐지되고 지역개발연구부와 환경연구부를 신설했다. 기구 개편과 아울러 연구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지역개발연구부장에 송두범박사, 산업개발연구부장에 한무호박사, 기획정보팀장에 이인배박사, 산업디자인 팀장에 권영현 연구위원이 각각 맡게 되었다.



송두범 부장



한무호 부장



이인배 팀장



권영현 팀장

「내포를 아시나요」 팸플릿 발행

충남발전연구원은 내포지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내포를 아시나요」란 팸플릿을 2001년 11월 발행해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내포지역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이 팸플릿은 서해안시대를 맞아 5천부를 제작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 무상 배포했다.

특히 이 팸플릿은 철도청의 협조를 얻어 새마을호(특실) 열차내에 3천부를 배포해 내포지역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 팸플릿에는 내포지역 관광소개는 물론 내포의 인물·민속·맛과 멋, 온천 등 내포지역 모든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 전면 칼라로 제작돼 관광 안내 책자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매품. 구입문의 (042) 841-9454

節齋 金宗瑞 장군 학술 세미나

정구복 교수 등 3명의 전문가 주제 발표

조선 세종조에 6진을 개척한 장군으로 널리 알려진 절제 김종서선생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2001년 11월 22일(목) 오전9시30분 공주시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공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잘못 알려지고 역사속에 감춰진 김종서선생에 대한 사계의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구복교수(한국정신문화원)는 “절제 김종서의 생애와 업적” 백원철교수(공주대)는 “절제 김종서의 충절” 임선빈부장(충청학연구부)은 “절제 김종서와 공주”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김종서는 6진을 개척한 장군뿐만아니라 문과를 통해 관직생활을 시작해 좌의정까지 오른 문무겸전의 인물이라는 사실에 집중 조명 학계의 큰 관심을 얻었다.

아울러 「고려사」편찬을 주도한 역사가이며, 조선왕조 5백년 “충의의 상징”이라고 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김종서선생이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생을 마감한 “공주의 영원한 인물”이라는 데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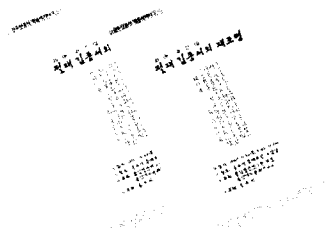
이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이해준소장(충남역사문화연구소)은 “절제선생은 조선 초기 거목으로 공주 출신으로는 가장 큰 인물이었으나 역사적인 문제로 참된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절제선생의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이같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세미나 요지 〉

절제 김종서의 생애와 업적

(정구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절제는 세종의 뜻에 따라 국경을 두만강까지 확보하는 등 우리 영토를 넓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어린 단종의 왕위를 지켜주려다가 수양대군의 철퇴를 맞고 쓰러진 사림정신의 표상이었다. 또한 그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폈으며 문화적으로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이복을 세우는데



헌신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편찬했는가하면 세종실록도 편찬했다. 그가 배향된 함경도 종성부 충렬사는 백성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세워졌고 사액을 요청했으나 내려지지는 않았다.

절제는 왕조에 의한 공로보다는 국가의 영역을 넓히고 백성의 질고를 풀어주기 위해 애쓴 관료였다. 이같은 공로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편찬한 문화적 공로와 함께 높이 평가돼야 한다. 그가 백성을 위하여 빈민을 구제한 봉공멸사의 정신은 오늘날 관료들의 영원한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절제 김종서의 충절

(백원철 공주대학교수)

절제는 당시 현실에 타협하지 않은 충직(忠直)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했다. 다소의 곡절은 있었으나 세종, 문종등 현군을 만나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득의의 삶이었다.

곧 국록(國祿)이나 축내는 나약한 선비가 아니고 한 국가를 떠받치는 동량지재(棟梁之材)로서 진유(眞儒)의 면모를 후대에까지 보여주었다. 또한 유학에서 일컫는 “임금은 예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으로 섬긴다”는 바람직한 군신상(群臣像)을 뚜렷이 실현해 보였다.

예로부터 어린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을 군자다운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이로 볼 때 절제야말로 충직과 절의를 지킨 군자다운 사람으로 길이 추앙되어야 한다.

오늘날에 사는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변함없는 귀감으로서 그 존재가 뚜렷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절제 김종서와 공주

(임선빈부장 본원 충청학연구부)

조선 초기 공주의 유력 가문이었던 김종서 집안은 계유정란이후 철저히 파괴됐다. 김종서의 맏아들인 병조참의 김승규는 계유정란 당시 김종서의 서울 집인 현장에서 죽었고 현장에서 죽지않은 김종서는 이튿날 새벽에 도성으로 들어오다가 참살당했다.

김종서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대명률」의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가 준거가 되었다. 정난이 발

節齋 金宗瑞 장군 학술 세미나



발한지 이틀이 지나 수양대군은 김종서·김승규와 같이 주형을 받은 사람들의 아버지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관노(官奴)에 붙이는 등 친인척 모두는 노비로 끌려가고 재산은 모두 적몰했다.

이후 김종서는 공주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성종조에 편찬되고 중종조에 신증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공주목 인물조에는 김종서에 대한 기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후의 조선시대 읍지와 지리지에서도 공주의 김종서나 그 가문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김종서의 학문적 역량이나 업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만약 김종서가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이후 공주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공주사람들은 수백년동안 공주가 배출한 참된 영웅을 잃어버리고 지냈던 것이다. 이제 이를 되찾을 때가 온 것이다. 절재 김종서가 태어나고 묻힌 공주에는 그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생가지가 있으며 그의 선영과 묘소, 묘비가 있고 김종서가 신원·복관된 후에 그를 제향하기 위해 세워졌던 요당서사 터와 숙모전이 있다. 이러한 유적지에는 충절인 김종서의 정신이 면면히 배어있다.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당 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해준)는 지난해 12월7일 공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제1회 정기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충청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된 이날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향토사학가 및 문화원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5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제1주제는 향토사·지방사 연구에 대해 본원 임선빈 부장(충청학연구부), 2주제는 이강승 충남대교수(고고학·미술사), 3주제는 이필영 한남대교수(민속학), 4주제는 김균태 한남대교수(구비문학), 5주제는 황의동 충남대교수(인물·사상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충청학·충청문화의 방향설정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최됐다. 충남역사문화연구소는 앞으로 연구결과물을 연구소 간행 연구지에 수록할 계획이다.



계룡산 최정상 천황봉, 다량의 기와·토기편 수습 통일신라부터 고려·조선시대까지 계룡산 천제단(天祭壇) 가능성 커, 본연구원 지표조사

계룡산 최정상인 천황봉(天皇峰, 845.1m)에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토기·자기편이 다량 수습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수습된 유물로 볼 때 계룡산 천황봉이 국가에서 제사를 지낸 제단처였을 가능성이 커 이 지역 인근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계룡산은 통일신라시대에는 5악(岳)중 하나로 이곳에서 중사(中祀)에 해당하는 제사를 지냈으며, 조선시대에는 명산(名山)으로 소사(小祀)에 해당해 제사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다만 조선말기 국가제사처로 인정되던 신원사내 중악단은 지난 1999년 3월에 보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매년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천황봉에서 다량의 관련 유물이 수습됨에 따라 계룡산을 비롯한 국가 제단처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유물 중에는 '天下...' 라고 쓴 기와편이 수습돼 천제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설 경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계룡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개 명문(銘文)은 유물의 제작연대나 제작자, 제작처, 수요처, 또는 제작동기 등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유적의 성격규명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문화재연구부 이 훈부장(41)은 "계룡산 정상인 천황봉에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기 및 기와가 수습된 것은 이곳에 제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면 계룡산 천제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룡산 천황봉 지표조사는 이 지역에 대한 환경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물이 수습되자,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문화재연구부 이 훈부장(41)은 "계룡산 정상인 천황봉에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기 및 기와가 수습된 것은 이곳에 제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면 계룡산 천제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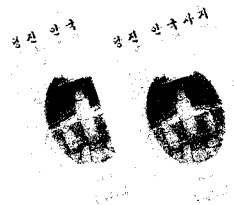


당진 안국사지 학술 세미나 「기업하기 좋은 충남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당진 안국사지 학술 세미나



본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와 당진군은 2001년 12월 19일 당진 안국사지 학술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안국사지가 지닌 학술사적 의의와 이의 효율적인 보존·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세미나에는 1백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는 본원 강종원연구위원의 '안국사지 조사 및 실측 결과보고'를 갖는 등 5명의 이 분야 권위자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기업하기 좋은 충남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도와 본연구원은 2001년 11월 14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기업의 경영애로사항과 충남지역 기업의 행정지원에 대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충남지역 관내 기업인, 관련공무원, 유관기관 근무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임준인 연구팀장(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팀장)이 「공장설립 및 입지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는 등 5명의 지역전문가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편/집/후/기

『열린 충남』이

한동안 발간되지 못한 아픔을 겪었는데

새롭게 재탄생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이번에 발간된 『열린 충남』은

그동안의 편집관행을 타파하고

충남인과 함께 하는 계간지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다.

첫순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과 여건내에서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자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린 충남』은

충남인의 미래를 제시하고

연구하는 언론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것이다.

독자들의 날카로운 평가와 질책을 기다린다.

이번호의 압권은 당연히

「내포문화의 재조명」에 관한 글 둘이다.

집필자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가 다 아는 유명인들이다.

신년 특집은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게재했다.

앞으로 주목하는 테마는 「충남의 역사와 문화」 분야에 관한 글일 것이다.

『열린 충남』은 비중있는 인사를 집필자로 선정,

살아있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다.

지면관계로 해외취재와 공무원칼럼 등을 실지 못해 못내 아쉽다.

다음 호에는 지면 할애할 것을 약속하며

충남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열린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편집위원 일동 -

열린 충남

제18호 2002년 1월

발행인 / 정중환

편집위원장 / 이해준

편집위원 / 최병학, 김정연, 임상돈, 임선빈

표지디자인 / 이충훈

편집간사 / 이길구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 (계룡출장소 3층)

전화 042-841-9901·9454 / 팩스 042-841-9902

디자인·인쇄 / 대문사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86-40번지

전화 042-624-4635 / 팩스 042-632-7054

인쇄 / 2002년 2월 20일

발행 / 2002년 2월 28일

『열린 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 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새로운 내용 및 정보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320-912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계룡출장소 3층

충남발전연구원 정보자료실

(042)841-9454 · 9901

『충남발전연구원』은

세계속의

충남을 열어나가는

Think-Tank로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꽃의 대향연!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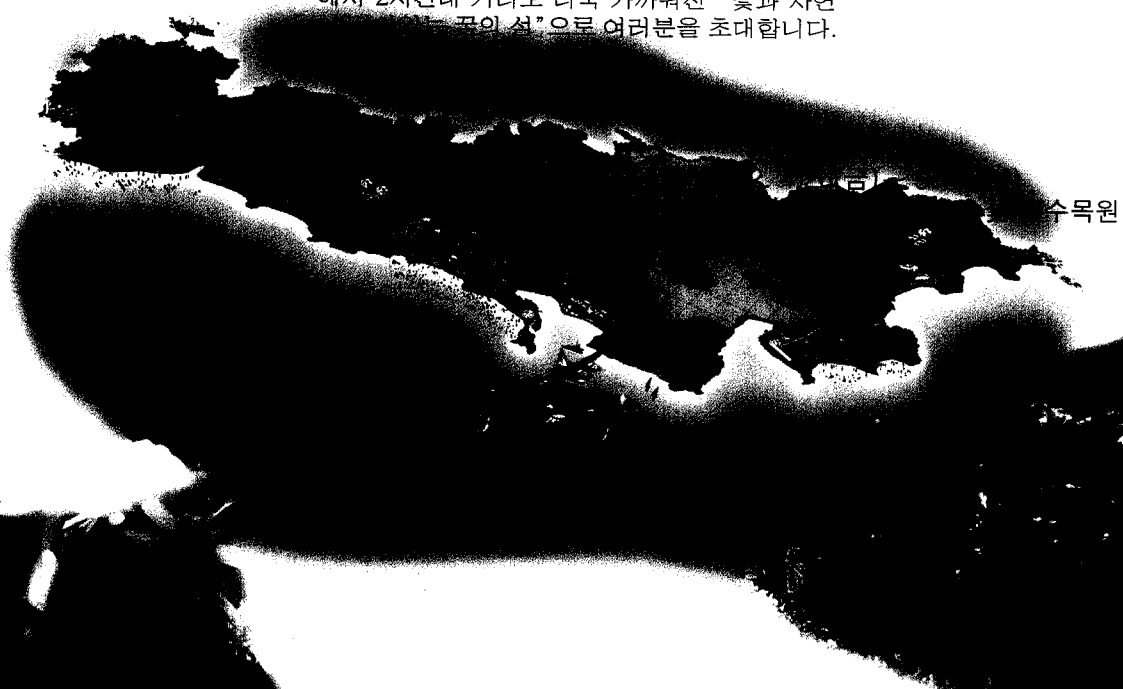
“자연 그대로의 섬 안면도”를 아십니까?

안면도는 국내에서 하나뿐인 해안국립공원으로
독특한 풍치를 자랑하는 안면송군락과 살아있는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개펄 그리고 천혜의 모래
언덕(사구)을 간직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자연의
보고입니다.

안면도에 오시면 맑게 탁트인 서해바다와 보석
처럼 빛나는 백사장뿐만 아니라 안면도의 특산
물인 맛깔스런 꽃게·대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양성기후라서 연중 온화하며 쾌적한 날씨가
더욱 안면도의 매력을 느끼게 할 것 입니다.

새로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서울
에서 2시간대 거리로 더욱 가까워진 “꽃과 자연
의 섬 안면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목원